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동북아협동연구 국제학술회의(2004. 10. 25) 발표논문집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연구원

kinu

개 회 사

존경하는 문정인 동북아시아위원회, 박영규 통일연구원장, 인문사회연구회 동북아문화공동체 특별연구위원회 김광익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금번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발표자와 토론자를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연구」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신 것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구현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문화사적 위치를 기반으로, 동북아 국가들과 함께 공동 발전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역 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동북아 지역 국가들 사이의 다차원적인 이해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증진되어야 합니다.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근대사의 중요한 시점에서 제국주의로 인해 서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외형적으로는 동북아 3국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과거 역사의 상흔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상호 이해와 협력 관계를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국가들 간에 상호이해와 협력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척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반성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에 토대를 두지 않는다면 동북아 국가 간의 협동은 피상적인 단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저는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국가들이 평화적 선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호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공동체 건설’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은 동북아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적, 정치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먼저 활발한 문화교류와 그에 바탕을 둔 상호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지역연합이 이루어진 과정을 살펴볼 때, 이러한 문화적 협력 체계의 구축이 궁극적인 지역협력체계의 형성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언어와 민족, 지리적 경계가 다른 국가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 바탕을 이룬 것은 유럽 사람들에게 고유한 문화적 공통성의 확인과 국가간 상호 이질적인 문화의 교류와 이해의 증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한국, 일본이 속한 지역은 고대 세계 문화 발상지의 하나로서 세계적인 문화중심권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근세에 들어 서세 동점이 이루어지면서 동북아 3국은 문명 해체 혹은 문화 지체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은 유교, 불교, 도교의 위대한 문화적 유산과, 조상들이 쌓아 올린 빛나는 문명 유산을 저력으로 하여 다시 놀라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북아는 지식문화의 축적과 놀라운 교육열을 바탕으로 글로벌 지식 정보 사회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자율성을 신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향후 동북아 국가의 성장 잠재력은 실로 폭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아 국가들의 성장 잠재력을 현실적인 시너지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추구’라는 시대적 명제에 대한 상호 합의와 그에 협력하고자 하는 협동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문화적 측면에서의 갈등해소와 상호 협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래 및 이윤추구 중심의 경제적 관계는 타산이 안 맞을 경우 그 관계를 지속하기 힘든 반면, 문화적 협동 관계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지속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진된 상호이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에서의 문화적 협력관계의 증진은 또한, 각 국가의 문화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은 오늘의 동북아의 제반 상황에서 매우 절실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동북아 주요 국가들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동북아문화공동체 건설', 그리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동북아문화가치의 창출'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기를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은 동북아국가의 협력적 정서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동북아를 세계적인 문화선진지역으로 만들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상은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각자 고유한 문화 영역을 토대로 상호협력을 통한 WIN-WIN을 추구한다는 전략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거시적 비전하에 인문사회연구회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협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과 기타 인문 관련 국내외 연구소들과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연구사업에서는 유럽통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한·중·일의 입장과 21세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를 위한 삼국 간의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회의는 한·중·일 지식인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동북아 지역을 21세기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하여, 삼국 간 상호이해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동북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인문사회연구회의 금번 연구사업이 풍성한 결실을 맺어 정책적

적실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오늘 국제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학자, 실무자 여러분들의 생산적인 토론과 깊이 있는 대화가 많이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금번 국제학술회의가 계획대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북아문화공동체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통일연구원 협동연구 실무자와 직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금번 학술회의를 빛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인사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 10. 25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최 송 화**

축 사

존경하는 「최송화」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통일연구원 박영규 원장님, 중국 사회과학원의 루 신 부원장님, 도쿄대의 와타나베 히로시 부총장님, 그리고 멀리 유럽에서 오신 유럽통합연구센터 루드커 퀴하르트 소장님,

그리고 이 회의에 참석해주신 학계의 연구자 여러분.

한·중·일 삼국의 지성들이 동북아 문화공동체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이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를 열망하는 한·중·일 삼국의 지도적인 지성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이러한 국제학술대회를 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여 서울에서 개최하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동북아 문화공동체는 한국만의 비전과 추진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이 각 국가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공통의 공감대를 넓혀 나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동북아 공동체를 생각할 때, 주로 경제 공동체, 안보 공동체라는 기능적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어왔습니다. 이는 경제 현안과 안보 현안의 시급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EU와 NAFTA 등 지역통합의 세계적 확산 현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내 주민들의 정서적 유대감과 신뢰를 기초로 하는 문화 정체성 형성 없이 이러한 기능적 공동체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북아 공동체 구축에 있어 문화 공동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과 급증하고 있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감안할 때, 역내 문화공동체 구축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믿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난관은 많습니다. 과거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집단 기억, 고도로 정치화되고 있는 배타적 민족주의, 그리고 ‘Global Standard’로 표방되는 세계화의 거센 물결들이 그 대표적 사례들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중·일 삼국 간 회의를 계기로 이와 같은 기회와 도전의 모순 구조를 규명하고 극복하여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축의 새로운 기제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축하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2004. 10. 25

동북아시아위원회 위원장 **문 정 인**

환영사

존경하는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님, 최송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그리고 오늘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발표자와 토론자를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먼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이라는 주제로 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통일연구원이 주관하는 2004년도 협동연구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동북아 공동번영의 목표를 달성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동북아시대를 구현하고자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 지역은 기회와 도전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냉전해체 이후 역내 협력공간의 외연 확대와 성장 잠재력의 증대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 및 연대의 기운 확산은 그 어느 때보다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가로막는 도전 역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핵문제, 영토분쟁문제 등 역내 안보불안요소의 상존, 경쟁 격화와 협력의 제도화 부족 그리고 폐쇄적 민족주의와 상호 불신의 장벽은 동북아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면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토대로 한 문화공동체의 구상은 이들 국가 간의 협력적 정서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역내 평화와 번영의 구도를 조성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날로 증대하는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적 경쟁의 부정적 측면에 대응하고 불행한 역사에서 비롯된 상호 단절과 불신의 관성을 차단시키고자 하는 문화적 교류·협력의 시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국제학술회의는 한·중·일의 지식인과 문화인들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아의 번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동체의 구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적·문화적 교류의 확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이 연구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풍성한 결실을 약속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국제학술회의가 성사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학술회의가 매우 성공적이고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환영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10. 25

통일연구원 원장 **박 영 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연구

*The Policy Study Session for the Formation of the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for Peace and Prosperity*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연구

2004년 10월 25일 (월)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 행 사 일 정

□ 등록 (09:30~10:00)

□ 개회식(10:00~10:30)

- 개회사: 최 송 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축 사: 문 정 인 (동북아시아위원회 위원장)
- 환영사: 박 영 규 (통일연구원 원장)

□ 기조연설 (10:30~11:50)

- 주 제: “동북아문화공동체에 관한 각국의 시각”
- 사 회: 정 하 미 (한양대 교수, 인문사회연구회 특별연구위원)
- 연 설: “‘개별적 국가’로부터 ‘동북아시아 공동체’로: 유럽연합이 주는 교훈에 유의하면서”
김 학 준 (동아일보 사장)

“‘화’사상으로 국민상호간의 이해를 촉진한다”
루 신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동북아시아 문화 공동체: 가능성을 검진한다”
와타나베 히로시 (도쿄대 부총장)

“문화공동체 형성: 유럽 - 문화적 소통의 통일 구축”
루드거 퀴하르트 (유럽통합연구센터 소장)

□ 오찬 (12:00~13:50)

- 오찬연설: 김 광 익 (서울대 교수, 인문사회연구회 특별연구위원장)

□ 제1회의 (14:00~15:40)

- 주 제: “동북아문화공동체에 관한 각국의 현황과 전망”
- 사 회: 김 광 익 (서울대 교수, 인문사회연구회 특별연구위원장)
- 발 표: **“동북아문화공동체와 한국의 역할”**
진 영 평 (대구대 교수, 인문사회연구회 특별연구위원)
“발전에 대한 인간적 접근: 중국측 견해”
황 핑 (중국사회과학원 국제협력실장)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가능성”
니시카와 나가오 (리츠메이칸대 교수)
- 토 론: 김 창 호 (중앙일보 학술전문기자)
친 홍 상 (베이징대 교수)
미야지마 히로시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 교수)

※ Coffee Break(15:40~16:00)

□ 제2회의 (16:00~17:40)

- 주 제: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위한 각국의 과제”
- 사 회: 김 우 상 (연세대 교수, 인문사회연구회 특별연구위원)
- 발 표: **“국가적 프로젝트로서의 국제적 문화공동체: 유럽적 경험의 함의를 중심으로”**
김 명 섭 (연세대 교수)
“‘거리’의 개념을 논하다”
자오팅양 (중국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교수)
“단절의 세기를 넘어: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를 위한 각서”
다카하시 데츠야 (도쿄대 교수)
- 토 론: 조 한 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잉지에 (주한 중국문화원장)
오사와 츠토무 (주한 일본문화원장)

The Policy Study Session for the Formation of the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for Peace and Prosperity

Monday, October 25, 2004
Sapphire Ballroom, The Lotte Hotel, Seoul

..... Schedule

Registration (09:30am~10:00am)

Opening Ceremony (10:00am~10:30am)

- Opening Speech: Choi Song Wha (*Chairman and CEO, Korea Research Council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Congratulatory Speech: Moon Chung In (*Chairman,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 Welcome Speech: Park Young Kyu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eynote Speech (10:30am~11:50am)

- Subject: “How Nations View the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 Facilitator: Chung Ha Mie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 Special Research Fellow for the Korea Research Council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Speech:
 - “From ‘Individual Nations’ to ‘Northeast Asian Community’: Noting the Lesson from the E.U.”
Kim Hak Joon (*President, The Dong-A Ilbo*)
 - “Let’s Promote the People’s Understanding Based on the Idea of Reconciliation”
Ru Xin (*Vice-President,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Possible? or Impossible?”
Watanabe Hiroshi (*Vice-President, The University of Tokyo*)
 - “Building a Cultural Community”
Ludger Kühnhardt (*Director, Center for European Integration Studies*)

Lunch (12:00~13:50)

- Luncheon speaker: Kim Kwang O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Chief of Special Research for the Korea Research Council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First Session (14:00~15:40)**

- Subject: “Nations' Response to the Prospect of a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 Facilitator: Kim Kwang O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Chief of Special Research for the Korea Research Council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Presentation:
 -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and the Role of Korea**”
Chun Young Pyoung (*Professor, Daegu University / Special Research Fellow for the Korea Research Council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Towards a Humane Approach to Development: Chinese Perspective**”
Huang Ping (*Chief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 “**The Possibilities of a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Nishikawa Nagao (*Professor, Ritsumeikan University*)
- Panelists
 - Kim Chang Ho (*Reporter Specialized in Philosophy and Culture, JoongAng Ilbo*)
 - Qin Hong Xiang (*Professor, Peking University*)
 - Miyajima Hiroshi (*Professor, The Institute of Easter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 Coffee Break(15:40~16:00)

☐ **Second session (16:00~17:40)**

- Subject: “Issues Facing Participating Nations in Establishing a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 Facilitator: Kim Woo Sang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Special Research Fellow for the Korea Research Council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Presentation:
 - “**International Cultural Community as a National Project Beyond Heritage - Focusing on the Implication of European Experience**”
Kim Myong Sob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About Concept of ‘Distance’**”
Zhao Ting Yang (*Professor, The Institute of Philosophy,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 “**Beyond the Century of Distrust**”
Takahashi Tetsuya (*Professor, The University of Tokyo*)
- Panelists
 - Cho Han Bum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Zhu Ying Jie (*President, China Cultural Center in Seoul*)
 - Osawa Tsutomu (*President, Japan Cultural Center in Seoul*)

建设和平繁荣的东北亚文化共同体 政策研究

2004年10月25日（星期一）

乐天饭店(蓝宝石室)

..... 日 程

□ 会前活动 (09:30~10:00)

- 登记和介绍

□ 开幕式 (10:00~10:30)

- 开幕词: 崔松和 (人文社会研究会理事长)
- 祝 辞: 文正仁 (东北亚时代委员会委员长)
- 欢迎词: 朴英圭 (统一研究院院长)

□ 基调演说 (10:30~11:50)

- 主 题: “对东北亚文化共同体的各国的观点”
- 主 持: 郑夏美 (汉阳大学教授, 人文社会研究会特别研究委员)
- 演 说: - 韩 国: 金学俊 (东亚日报社长)
- 中 国: 汝信 (社会科学院 副院长)
“用”和“和”的思想促进人民之间的相互理解”
- 日 本: 渡边浩 (东京大学理事, 副学长)
“东北亚文化共同体:探讨其可能性”
- 欧 洲: Ludger Kühnhardt (欧洲统合研究中心所长)
“文化共同体的形成”

※ 午餐(12:00~13:50): 乐天饭店

- 午餐致辞: 金光亿 (汉城大学教授, 人文社会研究会特别研究委员长)

□ 第1会议 (14:00~15:40)

- 主 题: “关于东北亚共同体的各国的现状和前景”
- 主 持: 金光亿 (汉城大学教授, 人文社会研究会特别研究委员长)
- 发 表: - 韩 国: 全永评 (大邱大学教授, 人文社会研究会特别研究委员)
“东北亚共同体和韩国的作用”
 - 中 国: 黄平 (社会科学院国际协力室长)
“Towards a Humane Approach to Development:
Chinese Perspective”
 - 日 本: 西川长夫 (立命馆大学 教授)
“东北亚文化共同体的可能性”
- 讨 论: - 韩 国: 金苍浩 (中央日报学术记者)
 - 中 国: 秦鸿祥 (北京大学教授)
 - 日 本: 宫岛博史 (成均馆大学东亚学术院教授)

※ Coffee Break(15:40~16:00)

□ 第2会议 (16:00~17:40)

- 主 题: “建设东北亚共同体-各国所面临的课题”
- 主 持: 金字祥 (延世大学教授, 人文社会研究会特别研究委员)
- 发 表: - 韩 国: 金明燮 (延世大学教授)
“作为国家项目的国际文化共同体: 以欧洲经验的意义为主”
 - 中 国: 赵汀阳 (社会科学院 哲学研究所 教授)
“论‘距离’概念”
 - 日 本: 高桥哲哉 (东京大学 教授)
“越过不信任的世纪”
- 讨 论: - 韩 国: 赵汉凡 (统一研究院 高级研究委员)
 - 中 国: 朱英杰 (驻韩中国文化院院长)
 - 日 本: 大泽勉 (驻韩日本文化院院长)

平和と繁栄の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 形成のための政策研究

2004年 10月 25日 (月)

ロッテホテル(サファイアボールルーム)

..... 日 程

□ 受付 (09:30~10:00)

□ 開会式(10:00~10:30)

- 開会の辞 崔松和(人文社会研究会理事長)
- 祝 辞 文正仁(東北アジア時代委員会委員長)
- 歓迎の辞 朴英圭(統一研究院院長)

□ 基調演説(10:30~11:50)

- テーマ: 「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に関する各国の見方」
- 司 会: 鄭夏美(漢陽大学教授、人文社会研究会特別研究委員)
- 演 説: 「『個別の国』から『北東アジア共同体』へ: 欧州連合の教訓から」
金學俊(東亜日報社長)
- 「『和』の思想で国民間の相互理解を促進する」
汝信(中国社会科学院副院長)
- 「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 可能性を探る」
渡辺浩(東京大学副総長)
- 「文化共同体の形成」
Ludger Kühnhardt(欧州統合研究センター所長)

□ 昼食会(12:00~13:50)

- 演 説: 金光億(ソウル大学教授、人文社会研究会特別研究委員長)

□ 第1会議 (14:00~15:40)

- テーマ: 「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に関する各国の現状と展望」
- 司 会: 金光億 (ソウル大学教授、人文社会研究会特別研究委員長)
- 発 表: 「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と韓国役割」
全永評(大邱大学教授、人文社会研究会特別研究委員)
「発展に対する人間的アプローチ:中国の見解」
黄平(中国社会科学院国際協力室長)
「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の可能性」
西川長夫(立命館大学教授)
- 討 論: 金蒼浩(中央日報学術専門記者)
秦鴻祥 北京大学教授
宮嶋博史(成均館大学東アジア学術院教授)

※ Coffee Break(15:40~16:00)

□ 第2会議 (16:00~17:40)

- テーマ: 「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のための各国の課題」
- 司 会: 金宇祥(延世大学教授、人文社会研究会特別研究委員)
- 発 表: 「国家的プロジェクトとしての国際文化共同体 欧州の経験の
含蓄的意味を中心に」
金明燮(延世大学教授)
「『距離』の概念を論じる」
趙汀陽(中国社会科学院哲学研究所教授)
「断絶の世紀を超えて」
高橋哲哉(東京大学教授)
- 討 論: 趙漢凡(統一研究院前任研究委員)
朱英傑(在韓中国文化院長)
大澤勉(在韓日本文化院長)

목 차

기조연설

- ‘개별적 국가’로부터 ‘동북아시아 공동체’로:
유럽연합이 주는 교훈에 유의하면서 3
김 학 준
- ‘화’ 사상으로 국민상호간의 이해를 촉진한다 13
루 신
-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가능성을 검진한다 39
와타나베 히로시
- 문화공동체 형성: 유럽-문화적 소통의 통일구축 77
루드거 퀴하르트

제 1 회의

- 동북아문화공동체와 한국의 역할 109
전 영 평
- 발전에 대한 인간적 접근: 중국측 견해 151
황 핑
-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가능성 163
니시카와 나가오
- 제1회의 토론 203

제 2 회의

국가적 프로젝트로서의 국제적 문화공동체: 유럽적 경험의 함의를 중심으로	211
김 명 섭	
‘거리’ 개념을 논하며	241
자오팅양	
단절의 세기를 넘어: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를 위한 覺書	261
다카하시 데즈야	
제2회의 토론	283

기조연설 Keynote Speech

동북아문화공동체에 관한 각국의 시각
How Nations View
the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개별적 국가’로부터 ‘동북아시아 공동체’로
: 유럽연합이 주는 교훈에 유의하면서

김 학 준

I. 들어가는 말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 사이에 써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 아래서 국무장관을 지낸 존 헤이(John Hay)는 국무장관 시절에 “19세기가 지중해의 시대라고 한다면 20세기는 대서양의 시대이며 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진부한 표현 같지만, 확실히 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이다. 이미 20세기 중반 이후, 태평양지역은 전 세계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지역이면서 군사력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의 정상급 강대국들이 각자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역이다. 국제정치와 국제경제의 중심이 대서양지역으로부터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했다는 평가가 결코 과장은 아니라고 하겠다.

이 지역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지역은 동북아시아지역이다. 20세기 후반의 표현으로 세계4강을 형성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힘이 수렴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 10대 무역국가로 부상한 남한이 위치하고 있다. 다만 세계의 최빈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북한이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역설적으로 보이나, 북한은 핵국가로 의심이 될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확실히 역동적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 새로운 상품의 개발, 수많은 세계적 수준의 인재들의 활동 등, 이 지역은 마치 21세기를 이끌어가는 미래의 세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북아시아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갈등과 분쟁이 잦으며, 심지어 때로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전쟁의 위기마저 감돈다. ‘국경 없는 세계’라는 말과는 유리된 채, 역내(域內) 국가들 사이의 국경은 완강한 장벽 또는 관문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역내 국가들 사이에 입국사증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과 크게 대조된다. 유럽연합은 무려 2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글자 그대로 ‘국경 없는 세계’를 이루었다. 전쟁의 위기는 사실상 사라지다시피 했으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은 충분히 보상되어 있다. 지난날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던 이 지역의 국가들이 사실상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을 형성한 채, 동부 유럽을 향해 전진하면서 회원국들을 늘려가고 있는 현실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동진(東進)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결실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럽은 글자 그대로 ‘한 지붕 아래서의 유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말을 상기하게 된다. 그는 “언젠가 유럽과 러시아의 통합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이 말이 그대로 실현될 것인지, 그것은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유럽과 러시아의 통합이 토론의 대상이 될 정도로 유럽은 점차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현실과 유럽의 현실의 이러한 대비에 유의하면서, 본인은 이 회의의 주제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말하고자 한다. 본인의 전공이 국제정치학인 만큼 이 분야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다.

II. 동북아시아의 현실

여기서 우선 동북아시아의 현실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현실은 많은 긴장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갈등과 분쟁의 요소들도 참으로 많이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이 지역의 장래를 결코 낙관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안고 있는 긴장의 요소들은 어떤 것들인가? 다음에서 중요한 몇 가지들을 예시하기로 한다.

첫째, 핵확산의 경향이다. 이 지역에는 세계의 3대 핵국가, 곧 미국 러시아 중국이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현재 상당히 심각

한 수준으로 핵개발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으며, 일본과 대만은 핵잠재국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일각에서는 순수한 학술적 연구에 지나지 않았던 실험들을 과장하면서 남한의 핵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떨치지 않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지역의 국가들이 모두 핵을 보유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일어난 일이다.

핵확산과 동시에 대량파괴무기(WMD)의 확산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역시 북한이 미사일의 수출 및 생화학무기의 보유 가능성 등과 관련해 우려와 의혹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당이 행정부를 장악하든 북한의 핵개발을 포함한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및 보유의 문제에 대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것은 한반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대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둘째, 역내 국가들 가운데 일부가 때때로 보여주는 ‘패권주의적’ 행태이다. 최근 발생한 중국의 한국 고대사에 관한 ‘침탈’이 그 한 보기이다. 한민족의 고유한 역사인 고구려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두 나라 사이에 불신을 조장할 뿐이다.

셋째, 역내 국가들 사이에 국경분쟁 또는 영토분쟁이 상존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보기가 이른바 북방4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분쟁이다. 러시아는 지난 1997년에 가진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2000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끔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민족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은 자신의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이 문제를 하나의 국제분쟁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남한이든 북한이든 한민족은 이 문제를 분쟁으로조차 간주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넷째, 2차대전의 시기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불행했던 사건들을 돌

러싼 갈등이다. 일본의 정부 요인들과 우익세력 가운데 일부가 보여주는 행태는 그 사건들의 피해자들이었던 남북의 한민족과 중국국민들을 분개시키고 있다. 그러한데도 일본은 깊은 우경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평화헌법의 개정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 그러한 경향의 한 보기라고 하겠다. 이러한 경향이 더욱 깊어진다면, 그것은 역내 평화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다섯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앞으로 약 20~30년 안에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의 물음과 관련해서이다. 미국은 확실히 중국을 미래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 또는 심지어는 ‘가상적(假想敵)’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신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절대로 악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으며 평화와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국력이 더욱 크게 신장되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훨씬 더 자기주장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면, 미·중관계는 긴장의 관계로 바뀔 수 있다.

여기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오늘날 군사력을 확장시키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시키고 있는 형편인데, 강화된 미·일군사동맹이 중국을 ‘가상적’으로 대하고 견제하고자 할 때, 이 지역에는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여섯째, 북한의 장래와 관련해서이다.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이 유지되든 또는 붕괴되든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북한의 내부상황과 관련해 주변국가들 가운데 일국이 또는 복수의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이 지역의 평화 및 안전과 관련해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이 지역의 긴장요소들을, 잠재적 긴장요소들까지 포함시켜 짚어보았다. 그러나 이 지역의 장래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게 만드는 요소들 역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평하게 지적돼야 할 것

이다.

첫째, 중국의 어떤 대외정책들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예컨대 ‘상하이 화이브(Shanghai Five)’ 등을 통해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시키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사이의 회담은 두 나라 사이의 국경분쟁도 해소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의 많은 국경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목표에 하나의 건설적인 선례를 남겼다. 중국은 또 미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둘째, 이 지역의 핵확산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결코 중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과 관련해, 우선 북한핵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삼는 6자회담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III.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언

동북아시아의 현실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언을 덧붙이기로 한다.

첫째, 비정치적 비군사적 부문, 말하자면 문화적 부문에서 공동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길이다. 이것은 우선 목표의 상한선을 낮추자는 뜻을 담고 있다. 동북아시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의 형성을 이 지역에서 추구하기란 현재의 시점에서 결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단계로부터, 비교적 쉬운 단계로부터’ 공동의 협력을 증진시켜나가는 단계적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또 기능적 접근법을 채택하자는 제의로 이어진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이 지역은 우선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목표로 삼고 구체적 행동계획들을 수립해 집행하자는 뜻이다.

둘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일의 정치학자 에리히 비데(Erich Weede) 교수의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라는 감정(We feeling)’의 성장

과 확대이다. 동북아시아의 국민들 사이에 과연 ‘우리라는 감정’이 얼마만큼 공유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하나의 지붕 아래서의 동북아시아’라는 구호가 제시됐을 때,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얼마나 될 것인지 궁금하다.

‘우리라는 감정’의 성장과 확대를 위해 많은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고 또 그것들 가운데 적지 않은 것들이 실천에 옮겨져 왔다. 예컨대,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민간교류와 문화교류의 확대 등이 여러 형태를 통해 진전되어 왔다. 최근 이 지역에서 일고 있는 한류(韓流) 현상은 그러한 교류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교류를 확대시키고 있다. 지난날 불행했던 역사에 대해, 또는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연구를 함께 하고 교과서를 함께 쓰는 일 역시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 본인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별로 제기되지 않은 방안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 언어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럽은 언어의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것이 유럽연합의 탄생과 확대에 이바지했다. 그런데 동북아시아에서는 언어의 장벽이 매우 높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라는 감정’이 형성되기도 확산되기도 어렵다. 이 지역의 다양한 민족들 또는 국민들 사이에 언어의 장벽이 훨씬 낮춰질 수 있도록, 예컨대 역내 국가들의 공동투자와 공동협력에 의한 국제적 언어학교들의 설립 같은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 비록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나, 하나 덧붙이고자 한다. 그것은 한자(漢字)에 관해서이다. 한자는 동북아시아에서 하나의 공통된 문자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간자(簡字)를 만드는 등 일방적으로 한자에 손을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자에 손을 대고자 할 때는 동북아시아의 한자 사용국들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자주 지적하고 있듯,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서 또 민족들 사이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동북아시아는 민족적으로 언어적으로 다양하다. 과연 동북아시아라는 말이 하나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말인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조차 적잖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시아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다양성의 상호인정이다. 이렇게 볼 때, 편협한 민족주의 또는 국수주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이 지역 안에서 불신감과 심지어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오늘날의 세계는 글자 그대로 세계화의 시대이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세계적 기준에 걸맞은 사고와 행동이다. 여기서 세계적 기준이라 함은 다양성을 충분히 존중하며 공존상생하려는 생명존중과 평화 및 국제협력에 대한 존경이다.

‘화’ 사상으로 국민상호간의 이해를
촉진한다

루 신

이번 국제회의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의의 주제는 ‘동북아 지역의 각국 국민간의 상호이해의 개념과 현실’로 매우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 주제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현 시대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먼저 간단하게 저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세계 정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주지하시다시피 최근 세계는 매우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 특히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과거 인간을 격리시켰던 지리적 장애를 극복하였고 세계 각 지역이 진정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세계는 점점 작아지고 있고 McLuhan이 말한 것처럼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찬반 양론이 분분하지만 경제 글로벌화는 이미 세계발전에 있어 거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추세입니다. 경제 글로벌화는 각국과 지역 간의 연계와 상호 의존도를 높였고 세계경제, 정치, 문화 및 사회생활 등 각 방면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귀한 발전의 기회와 동시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평화와 발전은 시대의 주제이나 세상은 그다지 평화롭지 못하고 패권주의와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테러리즘과 각종 비인도적인 폭력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 세계를 괴롭히는 문제가 수도 없이 산재해 있습니다. 빈부격차, 환경오염, 민족 간의 갈등과 종교분쟁, 인구팽창 및 각종 전염병 방지 등의 문제는 각국의 공동이익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동북아 지역은 근년간 총체적으로 정치도 안정되고 경제도 발전하고 있으며 한중일 삼국 간의 무역과 경제협력 규모도 매우 커져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활력이 있고 발전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성장했습니다. 국제적인 영향력과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은 공히 글로벌화 된 문제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지

역의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야 하며, 담판과 협상을 통해 지역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동북아 각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류와 대화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우호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매우 크며 국민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우호협력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국가 간의 협력관계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주로 정치나 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문화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 간의 정치·경제관계가 비록 중요하기는 하지만 매우 강한 공리적 목적을 지니므로 각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 문화처럼 인간의 정신영역에 깊이 파고드는 그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 오래된 친구인 주일한국대사 나종일(羅鍾一) 박사의 저작물인 『동북아공동체의 문화시각』의 증문판이 출판되었습니다. 나종일 박사는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협력은 먼저 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에서 출발해야 하며 문화협력 프로젝트를 동북아 지역과 세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 하였습니다. 나 박사는 저작에서 한국독립운동의 선구자인 김구 선생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문화의 힘은 한계가 없는 유일한 힘이다. 문화는 다른 이들과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나는 조선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대국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우리가 사랑과 평화의 문화를 통해서 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헌하기 바란다.” 김구 선생의 말은 매우 감동적이었고 김구 선생의 원대한 포부와 혜안 그리고 탁견은 진실로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학자로서 동북아 각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문화의 작

용에 대해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국전통 철학이 숭상하는 ‘화(和)’ 사상에 현대적인 해석을 가미한다면 지금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구축하고 국민들 간에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의 개념은 중국에서 아주 오래 전에 등장했는데 갑골문과 금문에서 시작되어 그 후에 일부 사상가들이 철학적으로 연구토론을 하고 발휘를 하면서 ‘화’ 개념이 중국전통문화의 기본개념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주 말년의 사백에 ‘화실생물, 동칙불계(和實生物, 同則不繼)’ 라는 사상이 등장하는데 철학적으로 화의 함축적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화라는 것은 다른 사물간의 화합과 통일을 의미하며 우주만물이 모두 다른 원소로 이루어져있으며 동일한 사물의 상호 합이 새로운 사물을 생성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자시대에 이르러 ‘화’ 사상을 높은 가치추구로 보고 논어에서도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 ‘화위귀(和爲貴)’ 등을 말하면서 ‘화’의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긍정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이인지화(以仁致和)’를 중시하고 인애정신으로 인간관계의 조화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공자의 유학 외에 도교의 노자나 장자 등 다른 학파에서도 ‘화’ 사상이 존재하는데 이들 학파에서는 ‘천화(天和)’를 더욱 중요시 하며 자연계의 조화로운 상태를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2천 여 년의 중국 사상사를 종합하여 보면 각 시기의 각기 다른 학파에서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화’ 개념에 대해서 논술하고 있는데 ‘화’라는 것이 중국전통 문화사상 가운데서 늘 하나의 실마리로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깊은 깨우침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화’의 의미는 어울림, 조화, 화합을 의미합니다. ‘화’는 일종의 철학사상으로서 그 전제는 먼저 세계적으로 다른 사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사물 간의 차이와 구별, 이견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후에 다른 사물에 적당한 조정과 배치 그리고 적절히 안배하고 처리하여 모순과 이견이 조화를 얻도록 하는 것이며 마침내는 전체적인 조화로운 발전에 이르도록 하며 다른 사물간의 화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화’의 개념입니다. 소위 ‘화이부동(和而不同)’은 사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지속해 가자고 주장하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며 다른 점과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상호 간의 조화발전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다른 것이나 차이가 없고 모든 것들이 하나로 가지런하다면 사물 간의 다양성도 자연히 사라지고 조화로운 발전이 전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세계는 생기라고는 전혀 없을 것이며 너무 단조롭지 않겠습니까?

‘화’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물의 다양성과 발전의 다양성은 객관적 세계에서 존재는 보편적인 형식입니다. 자연계에서 우리들은 그 무한하게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사물들이 모두 하나의 형태, 색채로 등장한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류사회 및 다른 높은 수준의 정신적인 산물(문화나 사상)에 있어 모두가 하나의 모델, 하나의 사상, 하나의 가치관만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물에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연계가 눈부시게 아름답고 다채로운 것이며 생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류사회의 발전의 다양성이 역사라는 무대에서 한 장면 한 장면 휘황찬란한 비장미를 연출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문화의 번영은 그 자체의 다양성을 나타내는데 문화세계는 마치 갖가지 꽃들이 만발한 화원처럼 수많은 종류의 화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종류의 문화는 꽃들이 독특한 색채와 향기를 가지는 것처럼 독특한 존재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문화의 공존과 조화로운 어울림 만이 풍부한 갖가지 자

태와 다채로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 사상에 근거하여 서로 같지 않음과 차이에서 생겨난 다양성은 필연적일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세계발전의 생명력, 인류사회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천백여 년 간 중국문화사상이 신봉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사상은 다양성을 강조하되 보편성과 공동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양성은 보편성, 공동성과 완전히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보편성, 공동성은 다양성에 속하는 것 입니다. 문화에 대해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다양한 문화는 모두 인류가 창조한 것으로 일정 정도 인류의 공통된 가치관을 드러내며 인성의 공동성과 보편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문화는 또한 특정한 지리환경과 사회역사 조건 하에서 생겨나고 발전하는 것으로 각자 특수성과 다른 사람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기도 합니다. 중국인은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주장하는데 바로 차이를 인정하고 유지하고 다양성의 조건 하에서 상호간의 공통점을 찾자는 것입니다. 만약 현존하는 다양화된 문화와 가치관을 떠나서 글로벌 문화를 구축하고 보편적 가치를 세우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 밖에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각자 문화의 특수성을 보존하는 것은 문화의 보수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문화가 적극적으로 교류와 대화를 펼치는 것으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소멸시키거나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소통, 상호 이해, 상호 귀감을 통해 다른 문화의 긍정적 요소들을 배우고 흡수하며 상호간에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외부로부터 영양과 새로운 활력을 얻어 자신을 향상시키고 충실히 함으로 공동의 발전에 이르고 상호간에 융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문화는 그 문화가 얼마나 찬란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간에 일단 폐

쇄적으로 변하면 전진의 원동력을 상실하고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쇠락하게 된다는 사실이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발전의 규율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관점은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축과 국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북아 지역의 한국, 중국, 일본은 이웃국가로 장기적으로 밀접한 정치, 경제, 문화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상호 간의 문화교류는 각국에 있어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 국민은 모두 유구한 역사·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문명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랜 동안 삼국은 하나의 문화권에 속하여 상호 간에 빈번한 문화교류를 통해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형성해 나갈 것이며 또한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문화적인 공헌을 할 것이며 각 나라에 뿌리 내린 독특한 문화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 동북아 각국의 문화교류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이 기초 위에서 형성된 사상문화는 일정 정도에 있어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 간의 상호이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적 시기에 있다 할지라도 각국의 실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상문화 또한 특색과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등장한 유학은 한반도와 일본에 전파된 후에 현지의 실제적인 상황과 결합하여 각 민족의 특색을 지닌 한국유학과 일본유학을 형성하였고 유학의 발전에 나름의 공헌을 하였습니다. 불교의 동북아 전파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한국, 중국, 일본의 유학과 불교의 영향과 작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그 공통점을 찾는 동시에 그 차이점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백 여년간 동북아 지역 각국의 발전상황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났고 역사적인 연유로 인해 국가마다 현대화 공업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 서양문화의 영향에서 민족문화에도 다른 새로운 내용과 특성이 가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구축하려면 과거와 다른 새로운 기초를 찾을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공감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원칙은 아마도 좋은 해결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동북아에 현존하고 있는 각종 문화의 차이를 충분히 인정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문화교류와 대화 가운데서 다른 문화와의 교집합을 발견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원칙으로 동북아 지역의 각종 문화의 상호융합과 공동의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화교류와 상호작용이 있어야 국민 간의 상호이해를 더욱더 증진할 수 있습니다.

문화교류와 대화를 순조롭게 진행시켜 나간다면 국민들 간의 상호이해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각 민족 고유의 문화전통을 존중하며 글로벌화의 조류 가운데 각 민족이 문화적 특성을 유지해 나갈 권리가 있으며 자신에 적합한 문화발전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한 가지 문화를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삼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교류와 대화의 당사자는 반드시 평등해야 하며 서로 존중하여야 하며 상호 신뢰하여야 하며 선의와 우호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미국의 작가 Emerson의 말인 ‘The only way to have a friend is to be one’이라는 말에 십분 동의하는 바이다. 만약 상대방을 경쟁상대나 잡

재적인 적으로 간주한다면 교류와 대화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협소하고 폐쇄된 태도를 극복하고 맹목적인 자문화 중심주의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자기 민족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되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냉정해져야 할 것이다.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허심탄회하게 세계 모든 문화의 우수한 성과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다.

넷째, 관용의 정신을 제창하며 특히 어떻게 자신과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정확하게 대하는지를 배워야 할 것이다. 각국 국민은 서로 다른 환경과 사회제도 속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이나 이견을 보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대화와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견해차를 줄이고 없애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며 서로 용인하는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며 견해차를 잠시 접어 두고 갈등이 첨예화되어 국민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상술한 제언은 ‘화이부동(和而不同)’, ‘화위귀(和爲貴)’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실천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노력한다면 반드시 국민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각종 문화의 발전과 진보에도 역시 유익한 작용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동북아 문화공동체는 왕성하게 발전할 것이며 세계 평화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입니다.

用“和”的思想促進人民之間的相互理解

汝 信

非常高兴能有机会参加这次国际会议，这次会议的主题是“东北亚地区各国人民之间的相互理解的概念和现实”，我认为这是具有重大意义的。在讨论这个问题时，不能脱离当前的时代，所以我想先简单地谈谈我们现在所面临的整个世界的形势。

恐怕谁都承认，近一个时期以来世界发生了很大变化。科学技术的迅猛发展、尤其是交通和通讯的进步，克服了以往将人们分隔开的地理障碍，把世界各部分联结成一个真正的整体。世界正在变得越来越小，成为麦克卢汉(Mcluhan)所说的“地球村”。经济全球化的进程在加速前进，不管人们赞成还是反对，它已成为世界发展的一种难以抗拒的客观趋势。经济全球化加强了各国和地区之间的联系和相互依赖，对世界经济、政治、文化和社会生活等各方面都带来深刻的影响。这样的形势使我们既面临难得的发展机遇，也面临严峻的挑战。在当今世界，和平与发展仍是时代的主题，但天下并不太平，霸权主义和战争并未停息，恐怖主义和各种反人道暴行依然严重。此外，还有不少令世界困扰的问题，如日益扩大的贫富差距、环境污染、民族矛盾和宗教纷争、人口膨胀以及防止各种传染病的蔓延等等，它们关系到各国的共同利益，必须

共同努力去解决。就东北亚地区来说，这些年来形势总体稳定，经济发展情况良好，中、韩、日三国之间的贸易和经济合作达到很大规模，已成为世界上最具活力、最有发展潜力的地区。在国际上的影响和作用越来越大。但是，东北亚各国也同样面临着以上这些全球性问题的挑战，特别是还迫切需要妥善地解决关系到地区和平与安全的韩半岛无核化问题，通过谈判协商和加深区域合作以保证东北亚地区的持久和平、稳定和繁荣。为了东北亚各国广大民众的根本利益，进一步加强交流和对话，扩大友好合作是十分必要的，而加深人民之间的相互理解则是友好合作的必不可少的基础。

人们在谈论国家之间的合作关系时往往更多地着重政治和经济，而对文化则没有足够的重视。实际上，国家之间的政治和经济关系虽然很重要，但往往带有强烈的功利的目的，对于促进各国人民之间的相互理解来说，远不如文化所起的那种深入到人们的精神领域中去的长远持久的作用。不久前，我的一位老朋友、韩国驻日本大使罗钟一博士的著作《东北亚共同体的文化视角》中译本在中国出版。他十分强调文化的重大作用，认为东北亚地区的合作可以先从建构文化共同体开始，把文化合作工程看作保证本地区 and 全世界持久和平与繁荣的主要手段。他在书中引用了韩国独立运动的先驱金九先生的一段话：“文化的力量是我希望的唯一没有局限的东西，因为它会使其他人和我们同时得到幸福……我

不希望朝鲜在经济或军事意义上成为大国。我希望我们能够
通过爱与和平的文化为全人类的和平与繁荣做出贡献。”这
些话使我深受感动，对金九先生的博大胸怀和远见卓识十分
钦佩。作为一个来自中国的学者，我愿对文化在增进东北亚
地区各国人民相互理解中的作用谈一点个人的看法。

我认为，中国传统哲学所崇尚的“和”的思想，如果加以现代
的诠释，可以作为我们今天建构东北亚文化共同体和促进人
民之间相互理解的重要参考。“和”的概念在中国出现很早，
始见于甲骨文和金文，后来经过一些思想家从哲学上加以探
讨和发挥，成为中国传统文化的基本概念之一。如西周末年
史伯提出“和实生物，同则不继”的思想，开始从哲学高度去
揭示“和”的涵义，认为“和”是不同事物之间的和谐统一，宇宙
万物都是由不同元素组合而成，而同一事物的相加则不能产
生出新事物。到了孔子，更把“和”作为一种很高的价值追求
来看待，在《论语》中谈到“君子和而不同”，“和为贵”，充分
肯定“和”的社会价值。孔子重视“以仁致和”，提倡以仁爱精
神来实现人际关系的和谐。除了孔子的儒学，其他学派如道
家的老子、庄子等也都有“和”的思想，不过他们更重视“天
和”，强调自然界的和谐状态。纵观二千多年的中国思想史，
各个时期的不同的学派以不同方式对“和”的概念作了阐述，
可以说“和”是中国传统文化思想中贯彻始终的一条线索，即
使在今天，仍然给我们以深刻的启迪。

所谓“和”，意思是和谐、调和、和合。“和”作为一种哲学思想，其前提首先是承认世界上不同事物的存在，肯定和允许事物之间的差异、区别和分歧，然后把不同事物加以适当的调整、配置和妥善的安排处理，使它们之间的矛盾和分歧得到调和，最后达到整体的和谐的发展，使不同事物和合，这就是“和”。所谓“和而不同”，是主张维护和保持事物的多样性的，正因为有多样性的存在，所以有不同和差别，才有相互和谐发展的问题。如果一切都同一，没有不同和差别，什么都整齐划一，当然也就没有事物的多样性，根本不需要和谐发展了。但这样的话，世界将会变得死气沉沉，不是显得太单调了么？

从“和”的观点去看，事物的多样性、发展的多样性是客观世界存在的普遍形式。在自然界，我们不能想像那无限复杂多样的各种事物都以一种形态、一种色彩出现。同样地，对人类社会及其高级精神产品(如文化、思想)来说，大家都统一于一种模式、一种思想、一种价值观也是绝对不能想像的。正因为事物有多样性，自然界才如此绚丽多彩，生机盎然。也正因为人类社会发展的多样性，历史舞台上才能演出一幕幕辉煌悲壮的戏剧。人类文化的繁荣更表现为它的多样性，文化世界就像一个百花园，是由许多种花卉构成，每一种文化都有其独特的存在和价值，像花卉那样有其独特的色彩和芳香。各种不同的文化共存，和谐相处，才形成丰富

多姿、万紫千红的美景。因此，根据“和”的思想，由于不同和差别而产生的多样性不仅是必然的、不可避免的，而且是世界发展的生命力、推动人类社会前进的动力。中国传统哲学所追求的理想境界是“万物并育而不相害，道并行而不相悖”，就是主张不同的事物和思想文化和平共存，和谐相处，实现发展的多样性。这已成为千百年来中国文化思想信奉的基本原则。

“和而不同”的思想强调多样性，但并不否认普遍性、共同性。多样性同普遍性、共同性并不是截然对立的，相反，普遍性、共同性即寓于多样性之中。就以文化而论，历史上存在的多种多样的文化都是人类所创造，因此在一定程度上体现了人类的共同价值，表现出人性的共同性和普遍性。但是，这些文化又都是在特定的地理环境和社会历史条件下产生和发展的，因此又具有各自的特殊性和不同于他者的差别性。中国人主张“求同存异”，就是要在承认和保存差异和多样性的条件下去努力寻求彼此间的共同之点。如果脱离现存多样化的文化和价值观而企图建立什么“全球文化”和“普世价值”，那就只能流于空谈。此外，强调文化的多样性和保存各自的文化特性也决不意味着主张文化保守主义。相反，“和而不同”的真义在于不同的文化之间应积极地开展交流和对话，不是一方消灭另一方，不是一方“同化”另一方，而是相互沟通，相互理解，相互借鉴，学习和吸收其他文化中的积极因

素，彼此取长补短，从外界获取营养和新的活力，提高和充实自身，以达到共同发展，相互交融，这才是真正的“和”。历史证明，一种文化，不管它曾经取得多么辉煌的成就，一旦把自己封闭起来，就会丧失前进的动力而趋于僵化和衰落。这可以说是文化发展的一条规律。

在我看来，“和而不同”的观点可以适用于建立东北亚文化共同体和加强人民之间相互理解的问题。从历史上看，东北亚地区的中国、韩国和日本是近邻，长期以来有着密切的政治、经济和文化联系，其中尤以相互间的文化交流对各方产生了深远的影响。中、韩、日三国人民都有悠久的历史文化遗产，对东亚文明曾经做过重大的贡献。在很长的历史时期内，三国同属于一个文化圈，彼此间进行频繁的文化交流形成相近的文化背景，又各自有独立的发展和建树，创造了扎根于各国本土的独特的文化。应该说，过去东北亚各国的文化交流是富有成效的，在此基础上形成的思想文化在某种程度上具有同质性，这为人民之间的相互理解提供了有利的条件。但即使在那个历史时期，由于各国的实际情况不同，其思想文化也是各具特色而有区别的。例如，发源于中国的儒学先后传入韩半岛和日本后，与当地实际相结合，形成具有民族特色的韩国儒学和日本儒学，对儒学的发展作出了独特的贡献。佛教在东北亚的传播也有同样的情况。我们今天要正确理解中国、韩国和日本的儒学和佛教的影响和作用，

就既要寻找它们的共同点，也不能不看到它们之间的差别。特别需要指出，近一百多年来东北亚地区各国情况发生了翻天覆地的巨大变化，由于历史的原因，不同的国家在实现近代化工业社会的进程中走了完全不同的道路，在西方文化的影响下，民族文化也增添了许多新的内容和特色。因此，今天要建立东北亚文化共同体，就需要寻找与过去不同的新的基础，要取得某种可以被各方接受的“共识”。我认为，“和而不同”的原则也许能提供较好的解决办法，那就是充分承认东北亚现有的各种文化的差别，尊重文化的多样性，力求在文化交流和对话中发现不同文化的交汇点，“求同存异”，以此推动东北亚地区各种文化的相互交融和共同发展。正是在这种文化交流和相互作用中，才能加深人民之间的相互理解。

为了使文化交流和对话得以顺利进行，有助于人民之间的相互理解，我提出以下几点建议供大家考虑：

第一，要尊重每个民族固有的文化传统，在全球化的浪潮下，每个民族都有权维护自己的文化特性，有权选择适合于自己的文化发展道路，决不能把一种文化当作普遍适用的模式强加于人。

第二，交流和对话的各方应当是平等的，应相互尊重，相互信任，怀有善意和友好态度。我很赞赏美国作家Emerson的话：“The only way to have a friend is to be one”。如果把对方看作竞争对手或潜在敌人，交流和对话是难以进行的。

第三，要克服狭隘、封闭的心态，防止文化上的盲目自大。对自己民族的文化要有自豪感，但也要冷静地看到自身的缺点和不足。对其他文化要排除偏见，虚心学习和吸收世界上一切文化的优秀成果。

第四，要提倡宽容精神，特别是要学会如何去尊重和正确对待不同于自己的其他文化。各国人民生活不同的环境和社会制度下，有不同的价值观，因此在某些问题上有不同意见和分歧是不可避免的。要努力通过对话和友好协商去缩小和解决分歧，即使一时不能达成一致，也应有善于等待和相互容忍的精神，把分歧暂时搁置，不使矛盾激化而影响人民之间的关系。

以上这几点是本着“和而不同”、“和为贵”的原则提出来的，要真正实行并非易事。但我相信，只要努力去做，必将增进人民之间的相互理解，而且对各种文化的发展和进步也将起到有益的作用。一个新的东北亚文化共同体将会蓬勃兴起，对世界的和平与发展作出更大的贡献。

『和』の思想で国民間の相互理解を促進する

汝 信

今回の国際会議にお招きいただき、心よりうれしく思います。今回の会議のテーマは「北東アジア地域の各国国民間の相互理解の概念と現実」に関するもので、非常に重要な意義をもつテーマだと考えております。この問題について議論する際、今の状況を度外視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め、まず我々が直面している世界情勢について簡単に触れてみたいと思います。

皆様もご存知の通り、最近、世界は非常に速いスピードで変化しています。科学技術の発展、特に交通と通信の発達により、過去、人間を隔離させた地理的障害を克服し、世界の各地域がひとつになりました。世界はますます小さくなっていて、McLuhanが言ったように、ひとつの地球村となってきています。急速に経済のグローバル化が進められているわけです。

賛否両論に分かれ議論はされていますが、既に経済のグローバル化は世界の発展において逆らえない大きな流れとなっています。経済のグローバル化は各国と地域間の関係と相互依存度を高め、世界経済、政治、文化及び社会生活など、広範に渡って多大な影響を及ぼ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状況下で我々は発展の機会と同時に、深刻な挑戦に直面しています。現在、平和と発展は、時代の命題ではありますが、世界はそれほど平和ではありません。覇権主義と戦争が絶えず、テロリズムと各種の非人道的な暴力が横行している状況です。このほかにも世界の平和と発展を脅かす問題は数多く存在しています。貧富の格

差、環境汚染、民族間の対立と宗教紛争、人口増加及び各種の伝染病防止などの問題は、各国の共同利益にも影響を及ぼすため、必ず共同の努力で解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北東アジア地域は近年、政治や経済が安定し、持続的に発展しているため、韓中日3国間の貿易と経済協力規模も拡大、世界の中でも最も活力にあふれ、発展の潜在力が大きな地域として評価されています。国際的な影響力と役割も次第に大きくなっています。しかし、グローバル化の中で北東アジア地域は大きな問題に直面しています。特に地域の平和と安全に影響を及ぼす韓半島非核化問題を円滑に解決しなければならず、談判と交渉を通じて地域間協力を強化することで、北東アジア地域の持続的な平和と安定、繁栄を維持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北東アジア各国の根本的な利益のためには、交流と対話のさらなる強化と友好協力を拡大する必要があります。それは国民間の相互理解を増進させることが前提になると思います。

多くの人は国家間の協力について話す際、主に政治や経済に主眼をおいて話します。しかし、それは、文化の重要性を十分に認識していないからです。実際、国家間の政治経済も重要ではありますが、非常に強い功利的目的をもつため、各国国民間の相互理解を増進させることにおいては文化ほど人間の精神領域に深く影響を及ぼし、長期的かつ持続的な役割を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先日、私の昔からの友人である駐日韓国大使の羅チュウ一(ナ・チュンイル)博士の書いた『北東アジア共同体の文化の見方』の中国語版が出版されました。羅先生は文化の重要性を強調しながら、北東アジア地域の協力はまず文化共同体を構築することから出発すべきで、文化協力プロジェクトを北東アジア地域と世界の持続的な平和と安定を維持する重要な手段として見なすべきだ

と力説しました。また羅博士は著書で、韓国独立運動の先駆者の金九(キム・ク)先生の話を用いています。「文化の力は限界のない唯一の力だ。文化は他人と我々を皆幸せにしてくれるからだ。私は朝鮮が経済や軍事の面で大国になることを願っていない。私は我々が愛と平和の文化を通じて人類の平和と繁栄のために貢献できることを切に望んでいる」金九先生の話は感動的だとしか言いようがありませんでした。金九先生の遠大な抱負と知恵、考え方は実に素晴らしく、深い感動を覚えました。私は中国の学者として、北東アジア各国の国民間の相互理解増進における文化の作用に関し、私個人の見解を述べたいと思います。

私は中国伝統哲学で評価する「和」の思想に、現代的な解析を加味すれば、北東アジアの文化共同体を構築し、国民間の相互理解を増進させるのに重要な役割をするだろうと考えます。「和」の概念は中国で遠い昔から登場しています。甲骨文と金文から始まりましたが、その後、一部思想家らが哲学的に研究、討論を行い、「和」の概念が中国伝統文化の基本概念のひとつになりました。西周時代末期の史伯に「和実生物、同則不繼」という思想が登場しますが、哲学的に和の含蓄的意味を表したものです。和というのは物と物の和合と統一を意味し、宇宙万物は全て異なる元素で構成されていて同じ物の合計が新しい事を作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意味が込められています。孔子の時代には「和」の思想を高い価値として追求し、論語でも「君子和而不同」、「和為貴」などを言いながら、「和」の社会的価値を十分肯定的に評価しています。孔子は「以仁致和」を重視し、仁愛精神で人間関係の調和を実現することを主張しました。孔子の儒学以外に道教の老子や莊子など、他の思想家にも「和」の思想は見られますが、これらの思想では「天和」を一層重要視し、自然界の調和を強調しました。約2000年の中国の思想史を総合してみると、各時期のそ

それぞれの宗派でそれぞれの方式で「和」の概念について書いています。現在も「和」という思想は、中国の伝統文化思想の中のキーワードとして我々に教訓を教えてくれています。

「和」の意味はバランス、調和、和合を意味します。「和」は一種の哲学思想として存在します。その前提となるのは、まず世界にある他の異なる事物の存在を認めることです。つまり、事物間の差と区別、意見の差を肯定し受け入れることです。その後、ほかの事物に適切な調整と配置、配分を加え、矛盾と意見の差が調和をなすようにすることです。最終的には全体的に調和の取れた発展に達するよう、ほかの事物との和合を成すことが、まさに「和」の概念です。「和而不同」は事物の多様性を維持し持続しようと主張するものです。このような理由から多様性が存在することであり、相違点と差別が存在すると言えます。相互間の調和の取れた発展が必要になる理由はまさにここにあると言えます。もし、全てのものが同一であれば、すなわち、ほかのものと差がなく、全てのものが均等に整えられていたとすれば、事物間の多様性も自然と消えてしまい、調和の取れた発展が必要なくなります。しかし、こうなれば、世界は元気をなくし、面白くなるでしょう。

「和」の観点から見た場合、事物の多様性と発展の多様性は、もっとも一般的で、普遍的なものです。自然界で我々はその限りなく複雑で多様な各種の事物が、全部1つの形態、色で登場することは想像すらできません。これと同じように、人類社会及び高いレベルの精神的産物(文化や思想)において、1つのモデル、1つの思想、1つの価値観だけをもつということは考えられません。つまり、事物には多様性が存在するからこそ自然界がより美しくきれいに輝き、活気にあふれるのだと言えます。

また、人類社会の発展の多様性が、歴史という舞台できらめき、感動的な場면을演出できるのもその理由からです。人類文化の繁栄はそれ自体の多様性を表します。文化の世界はまるで各種の花が満開の花園のように、たくさんの種類の花で構成され、また全ての種類の文化には、花がそれぞれ独特の色と香りを持っているように、独特の存在と価値をもっています。他文化との共存と調和や均衡が各種の多様性を形成しているわけです。従って、「和」の思想に基づき、お互い異なることや差から生まれた多様性は必然的なものであり、避けては通れない世界発展の生命力、人類社会発展の原動力と言えます。長い歴史の中で、中国文化思想が守ってきた基本原則はまさにここにあると思います。

「和而不同」の思想は、多様性は強調しますが、だからといって、普遍性と共通性を否認したりしません。多様性は普遍性、共通性と完全に対立するものではなく、むしろ普遍性や共通性は多様性に属しているものです。文化について言えば、歴史的に存在する多様な文化は全部人類が創り出したもので、それは、人類の共通の価値観を表し、人性の共通性と普遍性を示すものと言えます。しかし、これらの文化は特定の地理環境と社会歴史条件の下で生まれ、発展するものです。そのため、それぞれの特殊性と他の人とは違う差別性を持つといえます。中国人は「求同存異」を主張していますが、これは違いを認めて維持し、多様性の下で相互の共通項を探ろうとするものです。現存する多様化された文化と価値観から離れ、グローバルな文化を構築し、普遍的価値を創造することは意味のないことになってしまうことでしょう。また、文化の多様性を強調してそれぞれの文化の特殊性を保存することは、文化の保守主義を意味す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これとは反対に、「和而不同」の真の意味は他文化と積極的に交流と対話を行うことで、ひとつがもうひとつを消滅させ

たり同化させたりす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相互間の疎通と相互理解など通じて、ほかの文化の肯定的な要素を学び、吸収して相手の長所を取り入れ短所を補完し、外部から栄養と新しい活力を得て自分を向上させ、共同の発展や相互融和に達することが真の意味の「和」と言えます。文化とはその文化が大きな成果を上げたとしても、文化が閉鎖的に変われば前進の原動力を失い、膠着状態に陥ったり、衰退の道を辿ったりするという事実は歴史を通じて証明されました。これがまさに文化発展のルールなのです。

私は「和而不同」の観点が北東アジアの文化共同体構築と国民間の相互理解増進に貢献できると思います。歴史的に見ると、北東アジア地域の韓国・中国・日本は、隣国として長期的に密接な政治、経済、文化関係を維持してきました。その中でも特に相互間の文化交流は、それぞれの国の発展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ました。韓中日3カ国の国民はともに悠久の歴史、文化的伝統をもっていて、これは北東アジアの文化に非常に大きく貢献しました。これからも3カ国は1つの文化圏に属し、緊密な相互文化交流を通じて、類似の文化的背景を形成していくことはもちろん、それぞれ独自に発展を続け、各国独特の文化を創造していくと思われれます。過去、北東アジア各国の文化交流は大変効果的に作用しました。このような基盤の上に形成された思想文化は、ある程度同質性をもっています。これは国民間の相互理解に有利な環境を作ってくれています。しかし、このような歴史的背景があるとしても各国の実際の状況が違うため、思想や文化にも特徴や相違点が存在しています。例えば、中国で登場した儒学は朝鮮半島と日本に伝わった後、現地の状況と融合して各民族の特徴をもつ韓国儒学と日本儒学を形成しました。これは儒学の発展にも貢献しました。北東アジアでは仏教においても同じ

ことが言えます。私たちは韓国、中国、日本の儒学と仏教の影響と作用を正確に把握し、その共通点を見つけると同時にその違いも重要視すべきです。特に、ここ100年間、北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各国の状況には非常に大きな変化が発生しました。それぞれの国が現代化、工業社会化する過程で、過去とは完全に違う道を歩むようになりました。また、その中で西洋文化の影響を受け民族文化にも新しい内容と特性が加わりました。したがって、今、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を構築する際に最も重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過去とは違う新しい基礎を見出すことと、相互が相手を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る、コセンサスを作ることだと思います。「和而不同」の原則はこの問題の良き解決方法になると確信しています。北東アジアに存在している各種の文化の差を十分認識し、文化の多様性を尊重し、文化交流と対話の中でほかの文化との共通項を発見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す。「求同存異」の原則で北東アジア地域の多様な文化の相互融合と共通の発展を推進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また、国民間の相互理解も文化交流と相互作用によって増進させることができます。

文化交流と対話を順調に進めていけば、国民間の相互理解にも自然といい影響を及ぼすと思います。これを実現するため、私はいくつか提案をしたいと思います。

まず、各民族固有の文化伝統を尊重し、グローバル化の流れの中で、各民族には文化的特性を維持していく権利があり、自国に適した文化発展の道を選択できる権利があります。1つの文化を全てに適用できるモデルと判断し、他の国や人に強制してはいけません。

2つ目は交流と対話の当事者は必ず平等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また、お互いを尊重し、善意をもって相互信頼と友好的な態度を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米国の作家Emersonの言葉の「The only way to have a friend is to be one」に全面的に同意します。もし相手を競争相手や潜在的な敵と見なすなら、交流と対話は進行できなくなります。

3つ目は偏って閉ざされた態度を捨て、盲目的な自国文化中心主義を防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自民族の文化にプライドを持つことも大事ですが、自国文化の欠点と足りない部分についても冷静に対応する必要があります。ほかの文化に対する偏見を排除し、虚心胆慨に世界の多様な文化やその優秀性を学ぶべきです。

4つ目は慣用の精神を考慮に入れ、特に自国の文化と他文化をどのような観点で適切に対応できるかを学ぶ姿勢が必要です。各国の国民はお互い異なる環境と社会制度の中でそれぞれ異なった価値観を持っています。そのため、ある問題において意見の相違や異見を提示するのは避けられないことです。対話と友好的な交渉を通じて見解の差を縮めるために努力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また、一時的に意見の相違が見られても忍耐強く我慢し、お互い相手を認める精神が必要です。また、場合によっては見解差が対立や葛藤の種となり、国民関係に悪影響を及ぼさないように神経を使うべきです。

今までの提案は「和而不同」、「和為貴」の原則に立脚したもので、その実行は決して容易ではありません。しかし、努力すれば、必ず国民間の相互理解は深まり、文化の発展と進歩にも有効な機能をすると思っております。新しい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は発展を続け、世界の平和と発展にも大きく貢献できると確信しております。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가능성을 검진한다

와타나베 히로시

(1)

이번 회의의 주제인 동북아시아의 범위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지리적으로 말하자면 러시아의 극동부분이 포함될 것이다. 사할린이나 연해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유럽보다는 한국이나 중국 혹은 한국과의 교류가 클 것이다. 또 동북아시아에 몽골을 포함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주민들의 대부분은 외견상의 유사성이거나 역사적인 교류에서 볼 때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또한 이른바 한자 문화권에서 생각해본다면, 반대로 몽골을 빼고 베트남을 포함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말하자면 동북아시아의 범위는 유럽의 범위이상으로 애매하며, 다양한 경계선을 그을 수가 있다. 그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바르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단, 주최 측의 의견을 따라 한국·중국·일본 3국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는 동경대학 측을 대표하는 의견이 아니며 나 개인의 입장임을 밝혀둔다.

(2)

동북아시아가 경제적으로 대단히 긴밀한 교류관계에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하며 발전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관광여행으로 상호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도 대단히 많다. 요즘 들어서는 종래에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중국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간의 상호교류도 이미 대단히 왕성해졌다. 몇가지 의미에서 본다면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는 이미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첫째, 많은 대중을 향수자로 하는 영화·TV·드라마·음악분야이다. 중국영화가 일본에서 널리 상영되고, 일본에서 유행하

는 음악이 한국에서도 유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TV드라마가 일본에서도 높은 시청율을 기록하여 출연배우가 동경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근년 들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식문화를 들 수 있다. 3국의 도시를 방문해보면 다른 두 나라의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중국의 요리 또는 그 영향을 받은 요리가 거리의 레스토랑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만들고, 이를 즐기게 된 것이다. ‘그들은 우리들이 먹지 않는 기묘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 편견의 전형이다. 그러한 편견이 성립하는 기초가 현실적으로 붕괴된 것이다.

세 번째로 스포츠분야를 들 수 있다. 스포츠 즉, 공통의 규칙에 따라 신체와 두뇌를 이용하여 진지하게 경쟁하는 놀이의 대부분이 3국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3국은 국제대회에서 때때로 호적수가 되어 공통의 규칙을 확인해가며 서로를 의식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했던 월드컵은 서로가 대활약을 하여 커다란 성공을 거둔 대회로 아직도 새로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2008년에 개최되는 북경올림픽은 다시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상의 분야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도 크다.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교류의 심화와 전개 의미를 경시할 수는 없다.

또한 학문분야에서도 3국의 교류는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내가 근무하는 동경대학에는 대학원을 중심으로 현재 2,100명의 유학생이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수가 중국인유학생으로 30%에 달하는 650이다. 일본에 주재하는 외교관의 이야기에 의하면 650명이라는 유학생수는 전세계의 대학 중에서 최대의 수라고 한다. 동경대학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학생 수는 한국유학생으로 약 450명이

이으며, 21%에 이른다. 유학을 마치고 동경대학에서 교수·조교수·강사 등이 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동경대학에는 중국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강좌 수도 많이 있다. 자연과학계를 포함하여 어떠한 의미에서든 중국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수는 대학전체에 약 70명이 있다. 한국에 관해서는 한국조선문화를 전문으로 하는 전공이 대학원에 설치되어 있고 이 이외에도 한국 연구자가 있는데 약 20명 정도이다. 중국·한국으로부터의 객원교수·객원연구원의 수도 많다.

3국학생들끼리의 교류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금년 10월 9일 동경에서에서는 국립서울대학합창단·북경대학학생합창단·베트남국립대학합창단·동경대학음악부가 합동으로 하는 합창 콘서트가 개최되었다(참고자료1).

동경대학에 한정되지 않고 일본 각지의 대학·연구소의 학자와 한국·중국의 학자들 간에 국제학술회의나 공동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6년 동안 일중, 지(知)의 공동체라는 양국지식인의 지적 교류활동도 진행되었다.¹ 중국에서는 「北京日本學研究中心」이라는, 일본연구자양성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원을 설치하여 중국·일본양국 연구자들의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나 자신의 연구분야를 예로 들자면, 일본정치학회(Japanese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는 매년 미국정치학회(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와의 교류외에 한국정치학회와의 교류섹션을 두고 있다. 또한 일본정치사상학회(Coference for the Study of Political Thought, Japan)는 매년 한국정치사상학회와 합동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동경에서 금년 7월에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학자와 일본학자간의 공동연구결과를 정리한 논문집도 속속 간행되고 있다.²

¹ 溝口雄三, 『中國の衝擊』(東京大學出版會, 2004), pp. 17-19 참조.

² 예를 들면, 『일한공동연구총서』고려대학교아시아문제연구소·케이오대학출판회(慶

이상과 같이 이른바 대중적인 문화에서뿐만 아니라 학문분야에서도 한국·중국·일본 간의 교류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적인 분야에서 3국은 정면으로 마주보고 대화한다는 실감을 갖고 있지 못한 듯하다. 예를 들면 현대 각국의 대표적 지식인들의 이름이 상호 지식인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지 않은 듯 하다(예를 들면 한국의 배우나 가수 혹은 축구선수들의 이름이 거의 대부분의 일본인에게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의 지식인의 이름을 들 수 있는 일본인은, 한국연구자를 제외하면 매우 드물다). 세 나라 간에 다른 나라의 지적·사상적 상황에 다른 두 나라의 지식인이 일상적 관심을 갖는 일은 거의 없다. 외교적·정치적 의미에서 관심은 있어도 어디까지나 타자로서일 뿐이고 현대의 보편적 문제나 동북아시아 공통의 문제에 대하여, 어떤 나라에서의 문제제기나 논쟁을 다른 두 나라의 지식인이 자신의 문제로써 논하여, 이에 참가하는등의 일은 아마도 있어본 적이 없다. 어느 나라에서 출판된 철학서·사상서 등이 다른 두 나라에서 전문가의 범위를 넘어 일반에게까지 읽혀진다고 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러한 의미에 3국은 지적·사상적 공간으로서는 상호간에 상당히 격리되어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의 지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지는 못한 것이다.

물론, 영국·프랑스·독일의 3국도 각각의 언어로 나뉘어져 각자의 지적·사상적 문제를 논하고 있는 면은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Isaiah Berlin, Michel Foucault, Jurgen Habermas 등의 이름은 상호 지식계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버마스가 새로운 저작을 간행하면 다른 두 나라에서도 곧 서평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국제회의나 공동연구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일부러 지의 공동체라는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상호간에 부단히 그리고 일상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지적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應義塾大學出版會) 참고자료2.

이러한 유럽 상황과의 커다란 차이는 부정하기 어렵다.

왜일까? 왜 우리들은 지적·사상적·철학적으로는 상호 간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일까?

(3)

역사를 거슬러 생각해 보자.

근대에 앞장섰던 시대, 동북아시아 3국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입으로 말하는 언어는 서로 달랐지만 고전한문(『古代漢語』)이라고 하는 공통의 문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유학·유교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내가 작성한 “유학관련사항대조표”³에 나타난 것처럼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도 큰 차이는 있었지만 예를 들면,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이와 우열에 대해서는 3국의 어느 지식인도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공동성은 존재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동성이었다. 따라서 중심인 중화(中華)의 학자가 동이(東夷)였던 당시의 조선국(朝鮮國)이나 일본국(日本國)의 유학에 깊은 관심을 갖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조선국(朝鮮國)』의 학자도 도쿠가와일본(德川日本)의 학자도 중국에 대한 관심에 비하여 상호간에 대한 관심은 희박했다(중국에 대한 대항의식에서 소중화, 황국 등으로 자국을 간주하여, 심리적으로 타국을 거절하는 경향마저 생겼다). 일본의 유학자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의 논어주석이 청의 유보남(劉宝楠 1791- 1855)의 『논어정의』나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논어고금주』에 인용되고 있는 예는 있지만, 이것은 예외이다. 즉 이 사상적·철학적 공동성은 핵으로서의 중국에(동경이든 반발이든)관심이 집중된다고 하는, 일방향성과 구심성을 특색으로 하고 있으며, 쌍방향성·상호성은 전무했던

³ 『東アジアの王權と思想』 (동경대학출판회, 1997), pp. 142-145 참고자료3.

것이다.

근대에 이르자 중국은 문명·문화의 중심이라는 위신을 상실했다. 구미가 이른바 새로운 중화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문명개화(Civilization)를 인류의 보편적 노정(ノ程)으로 인식하고, 그 노정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서양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급속히 퍼져나갔다. 그리고 중국조차도 서서히 이러한 세계상을 받아 들였다. 전반서화(全盤西化)를 목표로 한 5·4운동만은 아니다. 마르크스주의도 사회주의·공산주의도 구미의 사상이다. 사회주의 중국 그리고 현재의 개혁개방의 중국도 모양만을 바꾼 전반서화(全盤西化)는 아닐까? 그리고 서화(西化)를 철저히 함으로써 서양을 추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의 동북아시아3국은 실은, 근대 이전의 3국 이상으로 상호간에 닮아졌다고 생각한다.⁴ 각각이 상당부분 서양화되었다고 하는 점에어서이다. 지금은 근대 이전과는 달리, 3국인들은 같은 모양의 머리모양을 하고 같은 복장을 하고 있다. 모두 서양인과 같은 머리모양을 하고 서양인과 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이전의 중화나 동이에서 보여지던 구조가, 이제는 서양과의 관계에서 재생산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의미하고 있다. 한국·중국·일본의 많은 지식인들은, 예전에 한국과 일본의 유학자가 중국으로 보냈던 시선과 유사한 시선을 이제는, 구미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구미의 지적·사상적·철학적 상황에 부단히 주목하여, 그 움직임에 늦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사람들은 동북아시아 이웃나라의 지적·사상적·철학적 상황에 대한 관심은 희박하다. 구미가 중심이라면 그 밖의 나라는 주변국이다. 중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주변인이 다른 주변에 관심을 두기는 어렵다. 만약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쪽이 구미의 사상이나 철학을 보다 바르게 이해하고 보다 깊이 수용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관심이 가

⁴ 溝口雄三, 『中國の衝擊』, 5항 참조.

될 것이다. 때로는 구미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을 동북아시아 이웃나라에서 딴 사람보다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현상마저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진지하게 지적교류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동북아시아 知的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지적 공동체가 가능한 것일까?

(4)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공통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미중심의 지적 세계상을 거부하고자하는 방향이다. 이른바 아시아주의적인 단결의 방향이다. 예를 들면 한자사용이나 유학이라는 전통의 공통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에서는 한글사용이 중심으로 한자의 지식은 희박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유학의 영향은 거의 감지할 수 없다. 일상의 식사에서 젓가락을 사용한다는 문화적 공통성은 있어도 동북아시아의 사람들이 고전 한문으로 필답하는 상황에 복귀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전통의 강조로 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다 그러한 전통은 본래 중국의 것이다. 중국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공통의 전통은 그대로라면, 구미중심주의를 대신하여, 또 다시 중국중심주의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이나 중국에 있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이 아닐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문명개화, 근대화, 전구화(全球化), 세계화 등 이른바, 기본적으로는 구미를 모범으로 하는 변화·발전을 더욱 추진하고 그러한 면에서 공통성을 기초로 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이다. 생활양식에 있어서 여전히 서양화를 거부하는 이슬

람권과는 달리 동북아시아는, 구미의 외부에서도 가장 구미화한 지역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면에 착안한다면 싱가포르 등을 포함하여, 영어를 공통으로 하는 지적 공동체를 키워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특히 미국합중국을 중심·중주로 하는 세계에 스스로 잠입해 가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서양보다 서양적으로 미국보다 더욱 미국적으로 되고자 한다면 결국, 유사서양·유사아메리카로 항상 주변외식·열등외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옛날전통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구미모델의 발전을 이룩한 지역으로서의 공통성을 기초로, 거기에서 생겨나는 공통의 문제를 솔직하게 의논해가며 새로운 공통성을 만들어가는 방향이다. 이슬람권이나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남아시아 혹은 아메리카와도 다른 동북아시아만의 공통의 제경험과 문제를 상호의 차이를 인정해 가며, 같이 의논해 가는 방향이다. 온난화·사막화·오염 등의 환경문제나 인구문제, 자원문제만이 아니다. 철학적·사상적 공통문제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기독교의 전통이 없는 지역에서는 서양화한 비서양세계에서 생기는 일의 의미에 대하여 철학적 성찰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서양의 리베랄리즘 자립한 인격의 이상의 의미를 공통의 문제로 논의하는 일도 가능할지 모른다. 민주정(民主政)이나 자유나 인권에 대하여 동북아시아의 경험으로부터 보다 깊이있는 고찰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들고자 하는 사회상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한 매체로는 영어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사람들이 상호 간에 서로의 언어를 배워, 지역내의 커뮤니케이션을 영어로 한정 짓지 말고 다원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가능성은 이미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동경대학의 신입생들은 영어이외의 외국어를 적어도 하나 선택하여 새로이 학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올해 4월 입학한 신입생들의 통계에 따르면 독일어 33.7%, 중국어 27.2%, 프

랑스어 21.9%, 스페인어 12.4%, 한국어 3.4%, 러시아어 1.4%를 선택했다고 한다. 옛날 내가 학생일 때에는 중국어를 선택하는 학생은 아주 예외였다. 그러나 지금은 프랑스어를 넘어서서 독일어와 나란히 설 정도가 된 것이다. 아직 한국어학습자가 많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매년 착실히 증가하고 있다.

서양을 거부하지 않고 거기에서도 배우며, 그러나 서양경유만도 아니고 서양모방도 아닌 상호대화, 상호수용과 교류의 가능성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실은 이른바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

东北亚文化共同体形成的可能性

渡边浩

(1)

这次会议的主题“东北亚”范围不太明确，从地理上说包括俄罗斯远东地区，萨哈林岛和沿海州从经济方面来看与韩国和中国，或与韩国的交流更多于欧洲。我们还可以考虑把蒙古也包括在“东北亚”范围内。不过如果考虑大部分外形相似，历史上的交流也有足够的依据，还有“汉字文化圈”这些因素，那么去掉蒙古，补上越南更自然一些。

也就是说“东北亚”的范围比“欧洲”的范围还要模糊，可以有各种划分标准，可是任何一种都不能说绝对正确。

不过在这里，我想还是按照主办国的意见，以韩国、中国、日本三国为中心探讨共同体问题。我先说明，这不代表东京大学的观点，是我个人的立场。

(2)

东北亚在经济上有着非常密切的交流关系，取长补短，共同发展。来往游客也相当多。最近，中国游客也比以前增加了很多。这个地区人民之间的相互交流已经非常活跃。从以下几个意义上来说，东北亚文化共同体应该说已经实现了。

第一，大众喜爱的电影、电视剧、音乐。中国电影在日本上映，在日本流行的歌曲在韩国也流行，韩国的电视剧在日本收视率很高，演员成了日本人憧憬的对象，这些现象近年来越来越普遍。

第二，饮食文化。访问三个国家就可以发现，在所在国家都很容易找到提供另外两国料理的餐厅。现在在日本，不仅是餐厅，一般的家庭也会做韩国菜和中国菜，或者受到两国影响的菜肴，而且人们很爱吃。“他们吃我们不吃的奇怪的食物”的说法是典型的民族偏见。现在这种偏见成立的基础消失了。

第三，体育。体育，即按照共同的规则，用身体和头脑竞争的游戏。大部分项目三个国家都有。这样，三国在一些国际大会上有时会成劲敌，按照共同的规则，重新认识到对方的存在。韩国和日本共同举办的世界杯在两国的努力下取得了圆满成功，至今仍记忆犹新。2008年北京奥运会将会再次给我们这种机会。

上述领域已经有很多人关注，经济效益也很大，我们不能小看这些活动促进交流的意义。

在学术方面三国的交流也很活跃。

我所在的东京大学目前有2100名留学生，其中中国留学生最多，共650名，占30%。驻日外交官说这在全世界大学中也是最多的。然后是韩国留学生，约450名，占21%。完成学业后留校当教授、助教、讲师的人也越来越多。

东京大学有很多研究中国的讲座，包括自然科学学科，将中国当作研究对象的教授共有70名左右。研究生部设有韩国朝鲜文化专业，此外有20名左右韩国研究人员。从中国和韩国来的客座教授、客座研究员也很多。

三国学生之间的交流活动丰富多彩。比如，今年10月9日在东京举行了国立汉城大学合唱团、北京大学学生合唱团、越南国立大学合唱团、东京大学音乐部参加的合唱演出。(参考资料1)

不只在东京大学，日本其他大学和研究所的学者和韩国、中国学者们在各种领域进行的国际会议或共同研究。从1997年到2003年，日中两国的知识分子进行了“日中‘知’共同体”交流活动(沟口雄三，《中国的冲击》，东京大学出版会，参考2004 17 - 19页)。中国设立了“北京日本学研究中心”，专门培养日本学研究人才，提供了中日两国学者的交流场所。

再举我自己的研究领域为例，日本政治学会(Japanese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每年都有与美国政治学会(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的交流活动，与韩国政治学会也有交流部分，而且日本政治思想史学会(Coference for the Study of Political Thought, Japan) 每年与韩国政治思想史学会共同举办国际会议。去年是在东京，今年7月是在日本举办的。而且在各种领域整理韩国学者和日本学者的共同研究成果的论文集也陆续出版面世(如《日韩共同研究总书》高丽大学亚洲问题研究所、庆应义塾大学出版社)。

在上述这类所谓的大众文化和学术领域，韩中日三国的交流非常活跃。

不过这里也有问题。特别是在“知”方面，三国还不能想象面对面的对话。比如，各国的著名知识分子在另外两国知识分子中并不广为人知。(例如，韩国的演员、歌星或足球选手的名字日本人几乎都听说过，可是接触现代韩国知识分子名字的日本人却很少，除非是韩国学专家。)三个国家知识分子对各自的知识、思想情况几乎不怎么感兴趣。

外交上的政治上的关心最终只是作为他人的关心。对于现代普遍的问题或东北亚共同的问题，某个国家提出来，而另外两国知识分子当作自己的问题去讨论并参与的先例至今还没有过。某个国家出版哲学书籍、思想书籍后，另两国的普通老百姓阅读的事情也是非常罕见的。在这一点上，三国在知识、思想方面相互之间相隔遥远，换句话说没有形成知的共同体。

当然，英国、法国、德国这三个国家也分别用各自的语言研究各自的知识、思想问题。即便如此，比如，艾赛亚·伯林(Isaiah Berlin)、米歇尔·福柯(Michel Foucault)、尤根·哈贝马斯(Jurgen Habermas)等人的名字在这些国家都非常熟悉。如果哈贝马斯出版新书，那么另外两国马上会有人写书评。他们即使不开国际会议，即使不进行共同研究项目，即使不去刻意地搞“知共同体”活动，相互之间仍然继续着对话，就像日常生活中的那样，就好像这是理所当然的。我们与欧洲的这种巨大差距是很然否定的。

为什么？为什么我们在知识、思想、哲学方面这么关心对方呢？

(3)

让我们回顾一下历史。

近代之前，东北亚三国和现在一样，语言都各不相同，但有一个共同点，他们都用了古代汉语。儒学和儒教也具有不容忽视的影响力。细读我撰写的《有关儒学的事项对照表》(『東アジアの王權と思想』，东京大学出版社，1997年，142 - 145页，参考资料3)，就不难发现“儒教文化圈”里的三个国家之间也有很多不同之处。但是例如有关朱子学和阳明学的不同点和优劣，三个国家的学者们各自持有各自的意见。因此可以说三国也有一定的共同点。

但是这些都是以中国为中心轴的共同点。因此中国的学者对留学到“东夷”朝鲜国或日本国不感兴趣。朝鲜的学者和德川日本的学者们也并没有互相关注对方，他们最感兴趣的还是中国(由于他们对中国有一种对抗意识，因此他们认为日本是“小中华”、“皇国”，出现了从心底拒绝别的国家的倾向)。虽然清朝的学者刘宝楠(1791 - 1855)在《论语正义》，朝鲜的丁若镛(1762 - 1836)在《论语古今注》援引了日本儒学者荻生徂徠(1666 - 1728)的论语注释，但这是例外。因为思想上和哲学上的共同点是三个国家都关注轴心国中国(不管是憧憬还是反感)，单向性和求新性是最大的特点，毫无双向性和相互性可言。

到了近代，中国失去了文明文化大国的地位。欧美国家成了新“中华”。日本开始认为“文明开化”是人类发展的普遍途径，在这个发展途径中名列前茅的并不是中国而是西方国家，这种思潮很快传开。中国也渐渐地接受了这种世界潮流。以“全盘西化”为目标的五四运动

之外，马克思主义、社会主义和共产主义也是欧美思想。社会主义中国以及“改革开放”中的中国是不是另一种形式的“全盘西化”呢？中国是不是想彻底实现“西化”，然后超过西方呢？

做出不懈的努力之后，现在的东北亚三国比近代以前，增加了很多共同点(沟口雄三，《中国的冲击》，东京大学出版社，参考2004, 5)。因为他们在很多领域西方化了。与近代以前有所不同的是，三个国家的人民拥有同样的发型，穿着同样的衣服，即西方人的发型和服装。

这些又意味着过去“中华”和“东夷”之间的结构在与西方的关系中重现了。中日韩三个国家的许多学者们有没有将类似于韩国和日本的儒学者投向中国的那种视线正在投向欧美呢？他们是不是不停地关注着欧美的学术、思想、哲学思潮，并努力追赶他们呢？这些人对东北亚邻国的学术、思想、哲学思潮毫无兴趣。如果说欧美是中心轴，其他国家就是周边国家。关注中心轴的周边国家无法关注周围的国家。即使对周围有所兴趣，也只会关心他们对欧美的思想或哲学的理解和接受能力达到了什么程度。偶尔也会出现这种现象，即认为在欧美获得博士学位的人比那些在东北亚国家获得博士学位的人更优秀。这种思潮就会挫败正常学术交流的热情。

在这样的情况下，我们能够组成东北亚知识共同体吗？如果能够组织起来，会出现什么样的知识共同体呢？

(4)

首先，我们可以想象一下强调东北亚的共性，拒绝以欧美为中心的世界知识板块。这就是所谓的“亚洲主义”式团结。例如我们可以强调汉字使用或儒学等传统的共同点。但是实际上韩国人正在强调韩文的重要性，汉字水平日益下降。同时，我们在日本几乎无法体会儒学的影响。三个国家都在餐桌上使用筷子，但三国人民像过去那样用古汉文互相交流的可能性几乎是零。光靠强调一些传统，组建一个“共同体”并非易事。

而且这些传统都来自中国。受中国的影响而形成的这些共同的传统，有可能代替欧美中心主义，又回到中国中心主义。韩国或日本并可能接受该路线。

其次，我们可以想象一下“文明开化”、“近代化”、“全球化”、“世界化”等，即以欧美为样板的变化和发展，以这方面的共同点为基础，形成“共同体”。伊斯兰国家在生活方式方面还拒绝西方化。在欧美以外的地区，东北亚的西方化进程最快。由此可见，我们可以组成以英语为共同语言的，包括新加坡等国家在内的“知识共同体”。

但是，这可能促使东北亚慢慢地，自觉地融入以美国为中心、主轴的西方世界。如果想比西方更西方化，比美国更美国化的话，我们最终会成为类似西方、类似美国的国家，无法摆脱周边意识和自卑意识。

第三，我们可以想象不回过去，而是在实现欧美模式“发展”的基础上，以三国的共同点为基础，开诚布公地对共同面临的问题进行讨

论， 创造新的共同点。我们可以讨论与伊斯兰、拉丁美洲、南亚、美洲国家所不同的， 只有东北亚国家独有的各种经验和问题， 同时也承认相互之间的差距。这里所说的问题并不仅仅是地球温暖化、荒漠化、污染等环境问题或人口问题、资源问题， 还有哲学、思想问题。例如， 没有基督教传统的地区里， 哲学反思会帮助已实现西方化的非西方国家解决他们所面临的各种问题。说不定我们能够共同讨论西方叛乱主义“独立的人格”具有的意义；能够基于东北亚拥有的民主政治、自由、人权方面的经验， 研究出更好的发展路线；能够交流理想社会的蓝图。

我们进行交流时也可以用英语。但最好是互相学习对方的语言， 不要光靠英语， 将交流所需的语言多元化。我认为这个方案有可行性。例如， 东京大学的一年级新生除了英语之外， 必须要选择第二外语。对今年4月入学的新生调查结果显示， 德语占33.7%、汉语占27.2%、法语占21.9%、西班牙语占12.4%、韩国语占3.4%、俄语占1.4%。过去我学习汉语的时候， 选修汉语的学生极少。目前汉语已经超过了法语， 几乎快赶上德语了。

与其拒绝西方， 不如学习西方；我们不经过西方， 也不模仿西方， 但相互对话、相互包容、交流空间是不是正在逐渐扩大？这也许正是大众文化领域已经实现的样板。

『東北アジア文化共同体』の可能性

渡辺浩

(1)

本會議の主題として掲げられた「東北アジア」の範囲は、必ずしも明確ではない。地理的にいえば、ロシアの「極東」部分が含まれそうである。サハリンや沿海州は、経済においても、ヨーロッパより韓国・中国・日本との交流の方が遙かに大きいであろう。また、「東北アジア」には、モンゴルを含めることも考えられる。その住民の多くの外見上の類似性や、歴史的な交流から言えば、それにも、十分な根拠があろう、また、いわゆる「漢字文化圏」として考えるならば、逆に、モンゴルは除いてヴェトナムを含めるのが自然であろう。

要するに、「東北アジア」の範囲は、「ヨーロッパ」の範囲以上に曖昧であり、様々に境界線を引くことが出来る。そして、そのどれが絶対的に正しいとも言えないであろう。

しかし、ここでは、この會議の主催者の考えに沿って、一応、韓国・中国・日本の3國を念頭に置いて議論することにしたい。なおこれは私個人の考えであって、東京大學としての意見を述べるものではない。

(2)

東北アジアが経済的に極めて緊密な交流関係にあり、相互に相互を必要としつつ発展してい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観光旅行に相

互を訪れる人の數も、極めて多い。特に近年、従來は少なかった中國の觀光客も増えている。さらに、この地域に住む人々の相互の文化的交流も、既に極めて盛んである。いくつかの意味において、「東北アジア文化共同体」は、既に實現していると言えよう。

例えば、第一に、廣く大衆を享受者とした映畫・TVドラマ・音樂等においてである。中國映畫が日本で廣く見られ、日本の流行の音樂が韓國で聽かれ、韓國のTVドラマが日本で高視聽率を得て、その出演俳優が憧れの對象となるといった現象は、近年ますます多くなり、頻繁になっている。

第二に、食文化でも同様である。三國の都市を訪れれば、他の二國の料理を提供する食堂を容易に見出すことができる。さらに、現在の日本では、韓國・中國の料理、あるいはその影響を受けた料理は、街のレストランにおいてだけでなく、家庭でも作られ、食べ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彼らは我々の食べない奇妙な物を食べる」というのは、民族的偏見の典型である。そのような偏見の成立する基礎が現實によって崩されたのである。

第三に、スポーツでもそうである。スポーツ―即ち、共通の規則に従って、身体と頭腦を用いた競争を眞剣に行う遊び―の多くが、三國で共通に行われている。それらにおいて三國はしばしば好敵手であり、スポーツの國際大會は、その都度、三國が、共通の規則を確認しつつ相互を意識する機會となっている。とりわけサッカーのワールド・カップが韓國と日本で開催され、共に活躍して大成功を収めたことは記憶に新しい。2008年の北京オリンピックは、また、そのような機會となるであろう。

以上の分野は、現にきわめて多くの人の關心事である。したがって巨大な經濟的効果をも有している。これらの活動における交流の

深化と展開の意味を軽視することはできない。

また、學問の分野においても、三國の交流は相当行われている。

例えば、私の勤務する東京大學には、現在、大學院を中心に約2100名の留學生がいるが、その中で最も多いのは中國からの留學生で、約650名に及ぶ。約30%である。日本に駐在する中國の外交官からうかがったところでは、この650名という中國人留學生の数は、全世界の大學の中で最大だということである。東京大學の留學生で2番目に多いのは、韓國からの留學生である。その数は、約450名、21%である。もと留學生で、現在は東京大學の教授・助教授・講師等になっている人も増えている。

また、東京大學には、中國を研究対象とする講座が數多く存在する。自然科学系を含め、何らかの意味で中國の研究をしている教員は、大學全体で約70名に上っている。韓國については、韓國朝鮮文化専門の専攻が大學院に置かれており、それ以外にも韓國研究者がいる。合計で約20名である。中國・韓國からの客員教授・客員研究員の來訪も多い。

三國の學生同士の交流も様々な形で行われている。例えば、本年10月9日には、東京で、ソウル國立大學合唱団・北京大學學生合唱団・ベトナム國立大學合唱団・東京大學音樂部の合同の合唱コンサートが、開催された(参考資料1)。

また、東京大學と限らず、日本の種々の大學・研究所の學者と韓國・中國の學者とが集まった國際學術會議や共同研究も様々な分野で行われている。1997年から2003年まで6年間、「日中、知の共同体」という兩國の知識人の知的交流運動も進められた(参照、溝

口雄三『中國の衝撃』、東京大學出版會、2004年、17-19頁)。中國には、「北京日本學研究中心」という、日本研究者養成を専門とする大學院も設けられ、中國・日本兩國の研究者の交流の場ともなっている。

また、私自身の研究分野を例にとりて見ても、例えば、日本政治學會Japanese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は、毎年の研究會に、アメリカ政治學會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との交流セッションの他に、韓國政治學會との交流セッションを設けている。また、日本の政治思想學會Conference for the Study of Political Thought, Japanは、毎年、韓國政治思想學會と合同の國際會議を行っており、昨年は東京で、今年7月にはソウルで開催された。また、様々な分野での、韓國の學者と日本の學者の共同研究の結果をまとめた論文集も續々刊行されている(例えば、「日韓共同研究叢書」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慶應義塾大學出版會。參考資料2)。

以上のように、いわゆる大衆的な文化においてのみならず、學問の分野でも、韓國・中國・日本の間での交流は、かなり盛んである。

しかし、そこに問題が無いわけではない。それは、そうでありながら、特に知的な面で、三國は、正面から向き合って對話を續けているという實感を、おそらく持ち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例えば、それぞれの國における現代の代表的な知識人の名は、相互の知識人の間で、一般的には知られていないであろう(例えば、韓國の何人かの俳優や歌手やサッカー選手の名は、ほとんどの日本人が知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現代韓國の知識人の名を挙げられる日本人は、韓國研究者を除けば稀であろう)。まして、三國の内のある國での知的思想的な狀況に、他の二國の知識人が日常的な關心を持つことはほとんどない。外交的・政治的な意味での關心はあって

も、あくまで他者としてであって、現代の普遍的な問題や東北アジア共通の問題についての、ある國での問題提起や論争を、他の二國の知識人が自分の問題として論じ、それに加わるというようなことは、おそらく起きたことがない。現に、ある國で出版された哲學書・思想書等が、他の二國でそれぞれの國の専門家を超えて広く讀まれるという現象は稀である。そのような意味で、この三國は、知的・思想的空間としては、相互にかなり隔離しているのである。言い換えれば、一つの知的共同体を構成してはいないのである。

勿論、例えば、イギリス・フランス・ドイツの三國も、それぞれの言語で隔てられ、それぞれに知的・思想的課題を論じているという面はある。しかし、それでも、例えば、Isaiah Berlin、Michel Foucault、Jurgen Habermas等の名は、相互の知識界で知らない人はいないであろう。Habermasが新しく大きな著書を刊行すれば、他の二國でも直ちに書評されるであろう。そのような意味で、彼等は、國際會議をしないでも、敢えて共同研究事業を振興しないでも、そして、わざわざ「知の共同体」などという運動をしないでも、相互に、不斷に日常的に、当然のこととして、知的對話を續けているのである。そのようなヨーロッパの状況との大きな相違は、否定し難い。

何故であろうか。何故、我々は、知的・思想的・哲學的には、案外、相互に関心が薄いのであろうか。

(3)

歴史を遡って考えてみよう。

近代に直接先立つ時代、東北アジアの三國は、今と同じく話す言語では相互に隔てられていたが、古典漢文(『古代漢語』)という共通の文語を有していた。そして、儒學・儒教が、大きな影響力を持っていた。私の作成した『儒學関連事項對照表』(『東アジアの王權と思想』、東京大學出版會、1997年、142-145頁。參考資料3)の示すように、同じ『儒教文化圏』といっても大きな相違はあったが、例えば、朱子學と陽明學の相違とその優劣については、三國のどの知識人も何らかの意見を持っていたであろう。その意味で、ある程度の共同性は存在した。

しかし、それは、あくまで中國を中心とした共同性であった。したがって、中心である『中華』の學者が、『夷狄』である当時の『朝鮮國』や『日本國』の儒學に深い關心を持つようなことは無かった。しかも、『朝鮮國』の學者も、徳川日本の學者も、中國への關心に比べ、相互への關心は遙かに弱かった(中國への對抗意識から、『小中華』、『皇國』などと自國を見なして心理的に他を拒絶する傾向さえ生じた)。日本の儒學者、荻生徂徠(1666-1728)の論語注釋が、清の劉宝楠(1791-1855)の『論語正義』や、丁若鏞(1762-1836)の『論語古今注』に引用されているといった例はあるが、あくまで例外である。つまり、この思想的哲學的共同性は、核としての中國に(憧憬にせよ反發にせよ)關心が集中するという、一方向性と求心性を特色としており、双方向性・相互性は希薄だったのである。

近代になると、中國は、文明・文化の中心としての威信を喪失し

た。歐米が、いわば新しい「中華」となった。日本では、「文明開化」Civilizationを人類の普遍的に歩むべき路程と認め、その路程で先行しているのは中国ではなく、西洋だと考える風潮が、かなり急速に廣まった。そして、中国さえも、徐々にそのような世界像を受け入れた。「全盤西化」を目指した五・四運動だけではない。マルクス主義も社会主義・共産主義も、欧米の思想である。社会主義中国も、また、現在の「改革開放」の中国も、形を変えた「全盤西化」の試みではないだろうか。そして、「西化」を徹底することによって、「西洋」すらも追い越そうとする試みではないだろうか。

そのような努力の結果、現在の東北アジアの三國は、實は、近代以前の三國以上に、相互に似てきたと思われる(参照、前掲、溝口雄三『中國の衝撃』5頁)。それぞれが、相当程度「西洋化」したという面においてである。現に、近代以前と異なり、三國の人々は、現在、同様の髪型をし、同様の服装をしている。皆、西洋人のような髪型をし、西洋人のような服装をしているのである。

しかし、同時に、それは、かつての「中華」と「夷狄」との関係に似た構造が、今度は、西洋との関係で再生産されるに至ったということも意味している。多くの中国・韓国・日本の知識人は、今や、かつての韓国と日本の儒學者が中国に向けていた視線と似た視線を、欧米に注いで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往々、欧米の知的・思想的・哲學的状況に不斷に注目し、その動きに遅れまいと努力し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そのような人々は、東北アジアの隣國の知的・思想的・哲學的状況への關心は薄い。欧米が中心なら、他は周辺である。中心に關心を集中している周辺の者が、他の周辺に關心は向け難い。仮に、關心を持ったとしても、どちらが欧米の思想・哲學を、より正しく理解し、より深く受容しているかを競うような

氣分が、容易にそこには湧いてくるであろう。時には、歐米で博士号を取得した人を、東北アジアの隣國で博士号を取得した人よりも、当然に劣っているように考えるような現象さえ、起きるであろう。それでは、眞摯に知的な交流を進めようという意欲が薄くなるのも当然であろう。

そのような状況にあって、「東北アジア知的共同体」を形成することが可能であろうか。あるいは、可能であるとしても、どのような「知的共同体」が可能なのであろうか。

(4)

第一に考えられるのは、東北アジアの共通性を強調し、他方で、歐米中心の知的世界像を拒否しようという方向である。いわば、「アジア主義」的な團結の方向である。例えば、漢字の使用や儒學の伝統の共通性の強調である。しかし、実際には、現代の韓國ではハングルの使用が中心であって、漢字の知識は希薄になる傾向にある。また、日本では儒學の影響は、もうほとんど感知できない。日常の食事に箸を用いるといった文化的共通性はあっても、東北アジアの人々が古典漢文で筆談する状況に復歸することは、もはや不可能であろう。斷片的に残存する共通の伝統の強調によって「共同体」を構築することは容易ではない。

しかも、それらの伝統は本來中國のものである。中國の影響による共通の伝統の強調は、そのままでは、歐米中心主義に代えて、もう一度中國中心主義をもたらす可能性がある。それは、韓國や日本において、必ずしも快く受け入れられる方向ではないであろう。

第二に考えられるのは、むしろ、「文明開化」「近代化」「全球化」

「世界化」、要するに基本的には歐米を模範とした変化・発展をさらに推進し、その面での共通性を基礎として、「共同体」を形成する方向である。今なお生活様式においても西洋化を拒否する傾向のあるイスラーム圏と異なり、東北アジアは、歐米の外部において最も歐米化した地域となりつつある。その面に着目すれば、シンガポール等も含め、英語を共通語とする「知的共同体」が育っていく可能性は、確かにあるであろう。

しかし、それは、結局は、特にアメリカ合衆国を中心・宗主とする世界に自ら参入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もありうる。西洋より西洋的に、アメリカよりアメリカ的になろうとする結果は、擬似西洋・擬似アメリカとして常に周辺意識・劣等意識を持たざるをえないという可能性もあろう。

第三に考えられるのは、古い伝統に回帰するのではなく、歐米モデルの「発展」を遂げた地域としての共通性を基礎に、そこに生ずる共通の問題を率直に論じつつ、新しい共通性を作っていく方向である。イスラーム圏とも、ラテンアメリカとも、南アジアとも、アフリカとも異なる、東北アジアでの共通の諸経験・諸問題を、相互の相違を認めつつ、共に論じていくという方向である。温暖化・砂漠化・汚染等の環境問題や、人口問題や、資源問題だけではない。哲學的・思想的な共通問題もあるはずである。例えば、キリスト教の伝統の無い地域で半ば西洋化した非西洋世界に生きることの意味について、哲學的な省察がもっとなされてもいいかもしれない。西洋リベラリズムの「自立した人格」の理想の意味を、共通の問題としてもっと論議することもできるかもしれない。民主政や自由や人権について、東北アジアの経験からさらに深い考察を加えることもできるかもしれない。有るべき社會像について、對話することもで

きるであろう。

そのための媒体は、英語でもよい。しかし、東北アジアの人々が相互にさらに相互の言語を學び、地域内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英語経由に限定せず、多元化することも必要であろう。その可能性は、現にあると思われる。例えば、東京大學の新入學生は、英語以外の別の外國語を少なくとも一つ選擇して、新たに學習することを義務づけられている。本年4月の新入學生の統計によれば、彼らの言語選擇は、ドイツ語33.7%、中國語27.2%、フランス語21.9%、スペイン語12.4%、韓國語3.4%、ロシア語1.4%である。かつて、例えば私が學生だった頃には、中國語を選擇する學生は極めて例外的だった。それが、今やフランス語を超え、ドイツ語に並ぶ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また、韓國語學習者は未だ多いとは言えないが、毎年着實に増加し續けている。

西洋を拒否せず、そこからも學びつつ、しかし、西洋経由でもなく、西洋の模倣ではない相互對話、相互の受容と交流の可能性が、現に育ちつつあ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それは、實は、いわゆる大衆文化の領域において、既に實現している在り方に他ならない。

The 2nd BESETOHA Choral Festival 第2回ベセトハ合唱祭



第1回 BESETOHA 合唱祭 (2002.10.13 ソウル)

アジア4大学から集まった合唱団による歌の祭典、それが BESETOHA 合唱祭です。Beijing(北京)、Seoul(ソウル)、Tokyo(東京)、Hanoi(ハノイ)の各々頭2文字を取って「BESETOHA(ベセトハ)」と名づけられた合唱祭は2002年、ソウルにおいてはじまりました。そして2年後の今年、BESETOHA 合唱祭の第2回目が東京にやって来ます。

北京大学、ソウル大学、ベトナム大学、東京大学の学生が主催するこのイベントは、「新しいアジアを考えるきっかけを提供できれば」との願いから生まれました。経済、政治の分野における国際化だけがアジアの関係をつくるのでしょうか。ともに歌い、ともに聴き、ともに楽しむ。そうやって、新しい関係をつくる礎をみなさんと一緒にえられるかもしれません。

BESETOHA 合唱祭では4つの合唱団それぞれの単独ステージに加え、4大学合同ステージとして各国を代表する歌を演奏します。会場にお越しになったみなさんにアジア各国の「今」と「未来」を少しでも感じ取っていただきたいと私達は思ってい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北京大学学生合唱団】

1990年9月に北京大学芸術学部で開講された合唱の講座に由来する。たくさんの合唱曲に取り組み様々な形で演奏活動を行っている。国内外の合唱コンクールで何度も優勝しており、その演奏は非常に評価が高い。1998年、CD「On Wings of Song」が北京大学創立100周年を記念して制作された。

【ソウル国立大学合唱団】

1970年創立。ソウル国立大学の公認混声合唱団。演奏会、コンクールなど幅広い演奏活動を行う。国内の国立大学音楽コンクールでは常にトップクラスの成績を残している。海外の合唱団との交流も積極的に行っており、2002年に行ったコールアカデミーとのジョイントコンサート(於ソウル、東京)は BESETOHA 合唱祭誕生の契機となった。

【ベトナム国立大学合唱団】

同大学の設立と同時に設立された。大学、地方、都市での文化的な活動、テレビ出演などを行っている。大学の創立記念日や重要な行事を祝う時や国内外の政府高官を歓迎する時に演奏を行っている。国内の合唱コンクールでは非常に高い評価を受けている。

【東京大学音楽部コールアカデミー】

1920年創立の東京大学公認の男声学生合唱団。年3回の定期的な演奏会を中心に、東京大学の入学式、卒業式など様々な場で演奏活動を行っている。指揮者に有村祐輔氏、ボイストレーナーに宮下正氏を迎え、中世、ルネサンス期の宗教曲、世俗曲を中心に幅広い演奏を行っている。平成15年度東京大学総長賞受賞。

2004.10.9(土)

開場 16:00 開演 16:30

東京芸術劇場大ホー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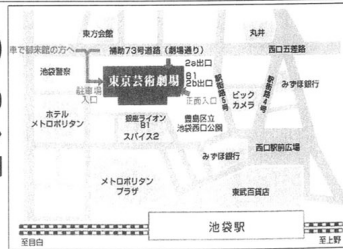
S席 2000円 A席 1500円 B席 1000円

チケットのお求めは

チケットぴあ【Pコード: 177-538】

(電話) 0570-02-9990

(インターネット) <http://pia.jp/t>



連絡先

藤原直弘 (東京大学音楽部コールアカデミー代表)
TEL: 090-2957-9316 E-mail: fujiwara@yahoo.co.jp

BESETOHA 合唱祭公式サイト
<http://www.besetoha.org/>

국가이념과 대외인식

17-19세기

제1판 제1쇄 발행 2002년 2월 20일

지은이 / 박충석 · 와타나베 히로시 외
펴낸이 / 최장집
편 집 / 정민용 · 안중철 · 한지원
펴낸곳 / 아연출판부

등록 / 2000년 5월 24일 제6-376호

주소 /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전화 / (02) 923-8702

팩스 / (02) 923-4661

홈페이지 / www.arc.re.kr

전자우편 / arcku@korea.ac.kr

© 박충석 · 와타나베 히로시

ISBN 89-951522-5-7 93910

89-951522-2-2 (세트)

* 책값은 뒤표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이념과 대외인식: 17~19세기

- 한일공동연구총서 간행에 즈음하여 1

제1부 국가이념과 민중

- 제1장 조선시대 '민본' 의식의 변천과 18세기 '민국' 이념의 대두 이태진 11
- 제2장 근대 일본의 교코케이(行幸啓)에 관한 고찰 하라 다케시 47
- 제3장 19세기 민소(民訴)의 양상과 추이: 순조대 상언·격쟁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상권 81
- 제4장 조선 후기의 짓밟히는 '민의'(民意): 왕족·외척과 관련된 산송사건(山訟事件)에 있어서 왕의 재결(裁決)을 중심으로 후루타 히로시 123

제2부 자국관과 타국관

- 제5장 조선 소중화(小中華)의식의 형성과 전개: 대보단 제사(大報壇 祭祀)의 정비과정을 중심으로 구와노 에이지 153
- 제6장 한·일 국학사상의 중국관과 자국관의 비교: 신채호와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반중화론을 중심으로 유근호 193
- 제7장 '우리'와 '타자': 스테이티즘·내셔널리즘의 형성요인 미타니 히로시 225
- 제8장 『藩論』의 변화 담론 구조 박영재 269

제3부 한국과 일본: 세계인식과 '개국'

- 제9장 사상문제로서의 '개국(開國)': 일본의 경우 와타나베 히로시 295
- 제10장 조선주자학: 그 규범성과 역사성 박충석 349
- 편집후기 420 • 필자소개 423 • 찾아보기 426

| 목 차 |

발간사	i
제1장 교류의 실상	1
1. 스에마쓰 지로(末松二郎)의 필담록에 나타난 ‘근대’: 1881년의 ‘신사유람단’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 아키즈키 노조미(秋月望)	3
2. 1880年代 朝鮮 開化運動의 理念에 對한 檢討: 『漢城旬報』· 『漢城周報』를 中心으로 / 김용덕	43
3.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와 조선-인천까지 / 하라다 다마키(原田環)	71
4. 1890年代 後半 官費留學生의 渡日 留學 / 박찬승	89
제2장 조선측의 일본인식	161
1. 근대조선 일본관의 구조와 성격: 자기·타자·상황의 함수적 표상으로서의 일본관 / 장인성	163
2. 開港期 修信使의 日本認識 / 하우봉	215
3. 東學·農民의 日本認識과 ‘輔國安民’이념 / 이영호	263
4. 韓末 愛國啓蒙言論의 日本認識 / 유영렬	317

제3장 일본측의 조선인식 353

1. 명치기(明治期) 일본 지도자들의 한국인식
 / 모리야마 시게노리(森山茂徳) 355

2. 일본 '국사'의 성립과 한국사에 대한 인식: 봉건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399

3. 명치기(明治期) 일본의 조사보고서에서 보이는 조선인식
 / 기무라 겐지(木村健二) 445

저자역력 491

편집후기 495

한·일공동연구총서 II
 근대 교류사와 상호인식 I

인 쇄 2001년 3月 15日
 발 행 2001年 3月 20日
 편 집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등록번호 제 6-376호
 인 쇄 처 현대인쇄문화사
 발 행 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ISBN 89-951522-06 93910 정가 18,000원

一般に使用された文字	官庁公式文書の用語	『夷録』の作製(その通称、用語)	封建・郡県	中央官制	宮廷音楽	宮廷儀礼	宮廷の構造	首都の構造	曆
漢字	〔古典中国語〕 〔越南式変体あり〕	〔大南寔録〕 〔古典中国語〕	郡県	六部	雅楽(清風)	明風+清風	南面・左右対称	方位に即し、格子状	時憲曆
漢字	〔古典中国語〕 〔満州語〕	〔大清寔録〕 〔古典中国語〕	郡県	六部	雅楽	明風+清風	南面・左右対称	方位に即し、格子状	時憲曆
漢字・ハングル	〔古典中国語〕 〔朝鮮語(ハングル漢字まじり)〕	〔李朝寔録〕〔朝鮮王朝寔録〕 〔古典中国語〕	郡県	六曹	雅楽	明風+朝鮮風	南面	概ね方位に即す	時憲曆
漢字・平仮名・片仮名	候文	『徳川寔紀』(和文)	封建	老中・三奉行等 律令制の変型	〔能・狂言〕 〔雅楽〕	〔武家作法〕 〔唐風(?)〕+和風	〔不整形〕 〔江戸城本丸御殿〕 〔南面・やや不整形〕 〔京都禁裏〕	〔不整形(江戸)〕 〔方位に即し、格子状〕 〔京都〕	寛政曆・天保曆
漢字・平仮名・片仮名	〔古典中国語〕 〔平仮名琉球文〕	『中山世譜』 『球陽』 〔古典中国語〕	ない	撰政・三司官等	琉球音楽	種々の折衷	西面	不整形	

渡辺浩『東アジアの王権と思想』(東京大学出版会、一九九七年)

5 東アジアにおける儒学関連事項対照表

— 十九世紀前半 —

元号	統治者の祖先祭祀	統治者の祭天儀礼	統治者の通称	統治者の対外称号	統治者の公式称号	国号
清の元号 (清に対して) 越南の元号	宗廟(固有信仰を加味)	有	ヴァ (vua)	大南国大皇帝 (清以外に対して) 越南王國 (清に対して)	大皇帝	越南 (大南国 越南(中国より冊封))
清の元号	宗廟	有	万歳爺	皇帝	皇帝	中国
公式には清の元号 (私的には「崇禎」等)	宗廟	無(風雲雷雨壇等の祭りは有)	イムグムニム	朝鮮国王	国王	朝鮮 (明より冊封)
日本の元号	神式・仏式	無	公方様・天下様 禁裏様・禁中様・天子様	日本国大君	征夷大將軍 天皇	日本
清の元号 日本の元号 (日本に対して)	儒式・仏式(崇元寺・円覚寺)	有(但し「天」の内容は独特)	御主加那志前	琉球国中山王	国王	琉球 (明より冊封)

支配層の祖先祭祀	固有信仰(儒式を加味)	儒教式	儒教式	仏式	固有信仰
葬儀の様式	固有信仰 (儒式・仏式を加味)	儒教式・仏式	儒教式	仏式	固有信仰
官吏の親への服喪期間	三年	三年	三年	忌五〇日、服一三ヶ 月	
家系の観念	双系から父系へ徐々に移行	父系	父系	概ね父系	父系
族譜・家譜の作製	有	有	有	有(系図)	有
同姓同本婚	否定	否定	否定	肯定	
財産の相続	男女均分から男子均分へ移行	男子均分	男長子優待均分	単独 (分家も可能)	
異姓養子を嗣子にすること	肯定	否定	否定	肯定	
宗族共有地	有	有	有	無	無
村落共有地	有	無	有	有	有
郷約	有	有	有	無(但し、村掟等あり)	無
対キリスト教政策	禁止	禁止	禁止	禁止	禁止

* この対照表は、はじめ、『思想』七九二号「儒教とアジア社会」特集号、一九九〇年六月に掲載された。作成にあたっては、溝口雄三氏を始めとする同特集号執筆者の方々から教わる所があった。特に、ヴェトナムに関しては、坪井善明氏に学んだ点が多い。豊見山和行「琉球の王権儀礼」(赤坂憲雄編『王権の基層』)、新曜社、一九九二年)により、一部修正(第二刷)。

* 極小のスペースで正確厳密に表現することは難しい。不明な件もあり、やむをえず空欄にした場合もある。諸賢の御教示を待ちたい。

男子髪型	姓名	学派争い	儒学の担い手	民間儒学教育機関	郷学	国学	孔子廟	科挙	主な身分制度	他からの「朝貢」	清以外の「朝貢」	清への朝貢	主な刑法	
総髪	漢族風	ほとんど無	儒士	有	有	有	有	有	貴族・官吏・地主・士夫(儒士)・工商・農	有	無	有	国朝刑律 (一四八三年) 皇越律例 (一八一五年)	越南
辮髪	漢族・満族	有	読書人	有	有	有	有	有	士・民	有	無	/	大清律例	中国
総髪	漢族風	有	両班	有	有	有	有	有	奴婢・両班・中人・常民	(有? 対馬)	無	有	経国大典刑典	朝鮮
丁髷	和風	有	儒者	有	(有、藩学)	(有、昌平黌)	有	無	武士・町人・百姓	有	無	無	公事方御定書	日本
総髪	漢族風・琉球風	無	士	無	有	有	有	有(科)	大名・士(系持)・百姓(無系)	無	有	有	琉球科律 新集科律	琉球

문화공동체 형성

: 유럽-문화적 소통의 통일구축

루드거 퀴하르트

I.

유럽통합에 관하여 여러 가지 전해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유럽 통합의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인 장 모네가 유럽통합으로의 길에 관하여 모색하고 있던 중, 전 과정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문화 분야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사람들은 유럽통합에 관한 생각이 대중적 정당성을 충분히 성취하지 못한 점을 비판하고자 할 때 이 말을 이용하고는 하지만 필자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 필자는 유럽통합에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통합과정이 1950년대에 시작되었다면 그 정당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그 당시에 각 유럽 국가들의 문화와 더불어 통합 작업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회의적이다. 이와 같은 생각의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화라는 요소가 유럽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저 중요하다는 표현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유럽 민족들의 공통점이야말로 그들이 서로 다른 데 있다는 것으로 유럽 민족들의 문화사에 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매일 평균 18,500명의 유럽인들이 다른 유럽인들에 의하여 죽어간 끔찍스러웠던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을 지배한 불신과 문화적 괴리감은 적대적 충돌 관계의 민족주의, 문화적 우월감의 성향, 서로에 대한 문화적 편견이라는 무서운 악순환에 대한 극복의 기대감 만큼이나 큰 것이었다. 필자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로, 그 후에는 유럽공동시장으로, 유럽통합의 작업을 시작한 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믿는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유럽의 문화적 관계들을 변형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유럽의 문화적 관계들을 변형시켜 놓게 된 것은 첫 단추를 끼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초자연적인 공동체 창설에 철저히 입각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국가주권의 전 유럽적

수준으로의 차분한 전이의 개념, 그리고 점차 의회 민주주의로 발전하고 있었던 입헌적 초민족 공동체의 개념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2002년의 공동 화폐 유로화 도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각국에서 비준 과정에 있는 사상 초유의 유럽 헌법이다. 유럽헌법의 채택에 관한 결정은 유럽 통합의 과정이 정치적 목적 성취에 대한 기능적 도구인 경제적 수단에서부터 시작하는 처음부터 하나의 정치적 과정이었다. 유럽헌법 채택에 관한 결정은 또한 유럽 통합 과정이 회원국들의 다양한 문화들을 다원적 형태의 문화에 기초한 정신 상태로 변형시켰음을 보여주는 궁극적 증거이다. 끝으로, 유럽은 상호 신뢰, 문화적 다양성의 상호인식, 그리고 유럽통합이 문화적 다양성을 해침이 없이 공통의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성취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에 입각한 문화 소통의 공동체가 되었다. 사실, 유럽통합의 작업은 공통의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통하여 그 구성 요소들 간에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이 과정은 미완의 상태이며 결점과 모순 투성이다. 그러나 유럽 지배와 유럽 정책 입안의 모든 특징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럽연합은 유럽을 정치적으로 나타내는 존재로 간주되고 있으며 문화적 소통의 계속적이며 꾸준한 진화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유럽이 과연 유럽연합을 통하지 않은 채 다른 방법으로(즉, 문화적 우월성 또는 문화에 입각한 편견이 아직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때에 문화로부터 시작하여)는 이와 같은 것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 반문해 본다.

정치적 통합의 지붕 아래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소통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어 왔으며, 더러는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기도 했지만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제도를 살펴보자. 유럽연합에서는 20개의 공식언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언어들의 통역사들이 유럽의회 및 유럽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유럽의회의 직선 의원들 모두가 각

모국어로 유럽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임한다. 이것은 유럽의 언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통성과 연계된 사항이므로 언제까지나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유럽은 어느 특정인이 에스토니아인이든, 영국인이든, 또는 포르투갈인이든 몰타인이든 관계 없이 모두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안정적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유럽 공동의 여러 기관에서 자기 모국어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유럽위원회, 유럽이사회, 유럽사법재판소에서의 사용언어는 현실적인 목적 상 영어, 불어, 독어로 제한되어 있다. 이 언어들은 유럽의 정치 엘리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이다. 여기에 서반어어와 폴란드어도 포함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필자는 앞에 언급한 기관들의 실무 과정에서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 지에 관하여는 회의적이다. 유럽이사회에서,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리는 의사 결정들은 두 세 개의 언어만 가지고도 전달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모든 회원국들이 처한 법률적 또는 정치적 상황에서 표현 또는 심지어는 단어 하나가 20개의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다. 문화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며, 소외보다는 공동의 협력을 지지하는 공동체의 정신에 입각하여 서로 간의 상이함을 해석하기 시작한다. 불완전한 것이기는 하지만 바로 이러한 것이 유럽 국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험인 것이다. 예를 하나 들면, 필자가 속한 본 대학교의 유럽통합연구소에서는 하나의 유럽법의 해석 방법에 관한 상이한 견해들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이해를 강화하여 가는 인식론적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언어와 법에 관한 선행적 연구들을 발표하여 왔다.

동 연구소에서는 또한 북서유럽, 즉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독

일 북부 라인 웨스트팔리아 지역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상이성에 관한 비교 연구를 행하여왔다. 이 지역은 유럽연합에서 경제력이 가장 강한 지역이자 또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산업지역이기도 하며 유럽연합의 문화 중심지로 간주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간의 문화적 이질성은 놀라울 정도이며 이제는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국경 저편의 상대방이 자기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기업인들은 자기 생각이 틀렸음을 느끼게 되는 일이 많은 것이다. 불어 사용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고급 와인을 마시며 점심 시간을 길게 갖고 천천히 허물없는 분위기로 사업 이야기를 나누지만, 앵글로색슨들은 간단히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우고서 앉아 생수를 마시며 사무실의 정돈된 분위기에서 사업 이야기를 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사업 상대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관행일까 아닐까, 그리고 초대 받은 사람은 그 집의 안주인을 위하여 꽃을 들고 가야 할까 아닐까 하는 차이가 또한 있다. 그리고 초대를 받아 좋은 저녁 시간을 보낸 후 몇 시쯤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까에 관한 차이가 있다. 사고방식에 관하여 동 연구소가 수집한 대답들을 보면 문화적 소통의 통일로서의 유럽의 진화에 대한 근본적 통찰이 가능하다. 가장 인접한 국가들의 국민들 사이에서도, 심지어는 한 국가의 여러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이함이 발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인과 독일인이 공동 사주인 기업의 경영자들은 구성원들 간의 문화 소통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것은 사업 수행의 방법에 관한 사고방식의 차이, 대조적인 기대 그리고 사업절차에 관한 생각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차이는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연유되는 것으로서 원칙, 자긍심, 편견에 대한 논쟁으로 쉽사리 비화하게 되는 아이덴티티의 이질성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것은 통합된 유럽지역과 그 외의 유럽지역 간에 오늘날도

존재하는 놀라운 이질성이다. 룩셈부르크나 암스테르담에서라면 이와 같은 일은 사업 수행에 관한 관습에 대한 이질적 사고방식 정도로 생각할 터이지만, 코소보에서라면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동남부 유럽을 여행해보면 아이덴티티가 사람들의 중대한 관심사를 알 수 있다. 대개 2004년 6월 1일에 유럽연합에 가입한 전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이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들 자신 및 그들의 민족적, 언어적 또는 심지어는 종교적 이웃에 관하여 물어보면 이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이다. 50년 간의 통합 후, 길고도 여전히 미완의 상태인 정치적 변형의 과정(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문화의 변형이다)을 경험한 유럽연합의 각 국가들에서 우리가 듣게 될 대답은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르다” 또는 “우리의 사업 방식은 남들과 다르다” 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다르다” 등일 것이다. 먹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의 인류학적 사실일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다양한 습관, 태도, 규범, 관습에 따라 서로에 대하여 반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유럽인들이 경험으로 터득한 사실인 것이다.

II.

유럽연합은 문화 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해왔을까? 우선 유럽연합을 법의 통합으로 구성하는 조약의 조항들에 의하면 유럽연합이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고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가장 괄목할만한 추이는 문화에 대한 간접적 이해 및 그에 관한 영역 교육의 추이이다. 과거에는 교육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여라는 생각조차 금기시되었다.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교육의 구조 및 내용에 관한 자

치를 각 국가 권리의 성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세계화를 위한 전략을 공들여 준비하고 있던 2000년 국가 수반들의 리스본 유럽이사회 회의에서, 유럽연합은 역시 교육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있었다. 교육의 구조 및 질의 개선은 유럽 사회와 경제를 세계화의 도전과 기회에 적응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되었다. 우리의 자손들이 최선의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것은 교육에 대한 고도의 기능적인 관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유럽연합은 교육의 중요성을 한층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목표 추구의 새로운 구조로서 ‘열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도입하였다. 이것은 개별 회원국들이 엄정히 부과되는 규정들보다 지배의 터치가 훨씬 부드러운 유럽연합의 목표들을 준수하기를 꺼리는 자세를 막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열린 조정’에 입각하여 교육 분야에서의 표준을 세워왔다. 사실, 유럽위원회의 관련 위원장 - 유럽연합의 교육문화 장관에 해당하는 자리 - 은 그 때 이래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다. 전체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교육의 질에 대한 비교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교육 개혁이 확산되어 갈 것이며 세계화 시대에 유럽연합의 교육 구조의 경쟁력을 점차 더욱 강화해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문화 소통의 통일이라는 개념을 강화해 주게 될 것이다.

최초의 유럽 헌법의 초안 작성의 맥락에서, 헌법위원회와 유럽의 여러 대중 미디어들은 유럽의 정치적 장래에 종교가 지녀야 할 의미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것은 유럽에서 이 주제에 관하여 과거 오랜 기간 다루어진 것 가운데 가장 진지한 토의였으며,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세속화의 추이가 얼마나 강하게 진행되었는가에 상관 없이, 냉소주의가 배제된 그

리고 여러 유럽인들의 삶에 있어서 종교가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엿보인 토의였다. 결국, 유럽헌법은 오늘날의 유럽에서의 종교적 신조의 다양성과 신앙의 표현에 관한 강하면서도 통합적인 요소를 지닌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것은 여전히 중요한 주제로 남아 있다. 비단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적 신앙의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에서 우리의 종교적 전통과 신념이 중요한 도덕적 이슈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제인 것이다. 필자는 이것이 인간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줄기세포 연구 또는 의약에서의 기술적 발전이 인간 삶의 시작과 끝에 대한 우리의 정의에 미치는 도덕적 영향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우리 유럽인들은 오늘날 이슬람이 유럽연합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종교 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해 있다.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종교적 경계선을 가로질러 문화적 소통을 쌓아야 할 문제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그 접근의 문제가 결국 어떤 식으로 해결될 것이든 말이다. 어쩌면 이슬람과의 관계 문제보다는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닐지 모르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유럽연합이 동남부 유럽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우리 유럽인들이, 한 가지 비근한 예로서, 상이한 사회적, 경제적 윤리를 간직한 라틴 민족과 기독교 정교 간의 차이를 다시 발견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슬람과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단지 신학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정치 문화의 진화에 관계된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유럽연합의 기치 아래 유럽이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통일의 모습을 변형시켜 놓게 될 다양성의 새로운 요소들을 재발견하여 포용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해석이라는 상대론적 개념에 의존하지 않

고 문화 소통의 포괄적 개념을 유지하여 가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문화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활동들로서 성공한 것들은 특정 이슈에 관련된 것으로서 기능적인 것들이었다. 이 활동들이 정책에 관련하여 도입된 것들이든 시민사회의 선제적 조치에서 비롯된 것들이든 말이다. 여기서 각국의 언어로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에서 시청이 가능한 EURO NEWS TV 채널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는 것도 유용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 TV 프로그램의 시청자들은 가장 중요한 정치, 경제, 문화적 사건들에 관한 유럽연합식 개관에 접하게 된다. 또한 물론 유럽에서 문화 소통 강화의 수단으로서 가장 앞장에서 온 스포츠에 관해서도 접하게 된다. 상업 TV 방송으로서 동시에 독어와 불어로 같은 프로그램들을 내보내는 'ARTE'도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러나 특정한 국가 정치 시스템 지향적인 상태를 견지하고 있는 대개의 미디어들은 유럽인들의 공통의 장을 세우고자 하는 시도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로 남아 있으며 최근에서야 비로소 좀더 강한 전문성으로 유럽연합 발전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고 있다.

문화적 소통 촉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전통적 활동들은 유럽에서 이미 시도된 바 있다. 도시들 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순번제로 흥미로운 대상 도시를 '유럽의 문화적 수도'로 선언하며, 언어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들은 문화관광과도 연계되고 있고 유럽 전역에 유럽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려는 노력과도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보고에서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측면이 있다. 즉, 유럽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시도이다. 유럽 전역의 역사가들 및 지

식인들은 유럽의 복잡다단한 역사를 각 국가의 역사 간에 항구적으로 지속되어 온 상호관계로 설명하려는 흥미로운, 아니 인상적이라고까지 느껴지는 교과서들을 개발해왔다. 이들은 유럽 문명에서 공통성이 유대관계를 있게 한 끈끈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유럽의 다양성, 그리고 국가 간의 적대적 관계 그리고 알력 관계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각국의 건축 양식들을 연구하되 유럽 전체에 걸친 바로크 건축양식 시대가 있었음을 배우는 것, 그리고 유럽 각국의 상이한 예술 표현 양식들을 연구하되, 유럽 전체에 걸친 인상주의 시대가 있었음을 배우는 것, 또한 유럽 각국의 상이한 문학 표현 양식들에 관하여 연구하되 유럽 전체에 걸친 실존주의나 낭만주의 시대가 있었음을 배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유럽의 역사에 대한 전체 유럽인들의 공통적 시각을 형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서의 교과서 편찬 말고도, 각국 정부들은 유럽의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국가들 사이에 있었던 투쟁의 측면을 다루는 교과서의 악의와 편견에 관한 부분들을 제거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물론 이것은 유럽연합이라는 존재를 넘어 동유럽과 서유럽 간에 형성되었던 냉전의 편가름을 잊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독일, 폴란드 그리고 독일, 러시아 역사교과서 편찬위원회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과거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유럽국가 간의 상호 신뢰 구축과 새로운 인간적 유대관계 수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립된 독일의 연구소 게오르그 에케르트 연구소는 현재 편가르기 역사의 기억이 아직도 팽배한 그리고 고도로 정치화된 구(舊) 유고슬라비아의 이(異) 민족 간에 그 전문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III.

이 곳 동아시아에서 문화적 소통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매우 고귀한 탐색 노력에 앞서 언급한 사항들 및 그와 관련된 유럽의 경험이 과연 교훈을 줄 수 있을까? 필자는 이를 판단할 입장이 아니며, 동아시아 지역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한 지역 내의 상호 이해 촉진 및 문화 소통의 증진에 관하여, 성공한 것이든 그렇지 못한 것이든, 이루어진 노력에 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날 중동 및 동아시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걸쳐 지역 내 통합 및 협력 증진의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장 첨예한 지정학적 긴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 내 여러 정치 체제 간의 뿌리 깊은 차이가 존재하는 이 두 지역의 장애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경험을 공유하는 일은 전 세계의 선의의 시민들에게 관심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유럽의 정치적 단위의 새로운 표현 수단으로서 성숙한 모습의 유럽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미완의 오랜 과정의 일환으로서 문화적 소통 구축의 과정에서 유럽인들이 겪은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 출발 시점에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며, 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 문화 소통 구축이라는 매우 고귀한 목표는 점진적 과정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인적, 재정적 자원의 면에서 현실적인, 제한된 그리고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너무나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동반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될 수 있다. 출발점이 지나치게 관념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이라면 그것은 쉽사리 정치화의 방향으로 가거나 관련 과정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

어 반발을 유발할 수도 있다.

2. 문화 소통을 다원적 과정으로 인식하라. 문화의 중심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앙 집권적 문화 소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문화 소통의 과정은 여러 갈래의 길로 흘러야 한다. 그렇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생긴 야망, 호기심, 창의성에 신뢰를 불어넣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치적이며 관료적인 지원의 틀이 필요할지 모르나, 문화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사람들과 시민사회가 그것을 느끼고, 여러 갈래로 표현된 대상들을 쓸모 있고 흥미로운 그리고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3. '동아시아의 희망 -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문화 소통의 의미'라는 주제로 지역 내 모든 국가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예를 들어, 수필대회 같은 비정치적인 기회를 마련하여 출발하라.
4. 문화적인 사항들을 동북아시아에서의 상호 협력 및 안전보장을 위한(안보, 경제협력, 신뢰구축의 시도, 기술교환 및 인적 교류와 같은 사항들도 다루는) 계획 같은 보다 포괄적인 맥락에 포함하도록 시도하라.
5. 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시작할 때까지 눈치를 살피며 기다리지 말고 나름대로 스스로 시작하라. 여러 시민들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 가능한 지원을 촉진하며, 세계 시민들 간에 대화를 촉진하며 모든 다양한 문화에 이익이 되는 정치적 진화를 예견할 그러한 문화적 중심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적 소통에서는 중심과 변방이라는 것이 구별되지 않는다. 문화가 있는 곳에 중심이 있다. 변방이라는 개

넘은 문화에 대하여 이질적인 요소이다. 창의성이 변방으로부터 나올 때가 많음을 우리의 경험이 보여주고는 있지만 말이다.

유럽 및 동아시아 양자 모두에 있어서의 문화 소통의 탐색 연구를 하나로 엮어줄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지침들을 들어볼 수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정치학자 J. S. 밀이 ‘회고의 공동체(communities of recollection)’라고 표현한 사항을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회고의 공동체들은 현재의 세계 상황과 미래의 세계에서의 우리의 임무를 이해하기 위하여 적용할 정신적 지도를 설계해준다. 정신적 지도에 관하여 말하자면, 예를 들어, 역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의 학교 교과서에서 어느 그림들이나 사진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모두 포함한 유럽에서는 - 유럽인들의 자기 아이덴티티에 관한 얼마간의 분명한 이미지에 대하여 확실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학교 교과서들에 잔뜩 사용한 그림들과 사진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존 턴블스의 ‘미국의 독립선언’(1776), 장 루이 다비드의 ‘프랑스 혁명 초기의 선언’(1789), 유진 이 사베이의 ‘비엔나 회의’(1815), 유진 들라크루아의 ‘키오스의 대학살과 미술통기 멸망 시의 그리스’(1826), 안톤 알렉산터 폰 베르너스의 ‘베르사이유 성에서의 독일 제국의 선언’(1871), 윌리엄 오르펜스의 ‘베르사이유 평화 조약 체결’(1919), 붉은 군대에게 이야기를 하는 레닌의 사진(1920),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1937), 알타 회담 장면 사진(1945), 베를린 독일 의회 의사당에 게양된 소련 국기 사진(1945), 베를린 장벽 붕괴 장면 사진(1989) 등. 이 사진들과 그림들 가운데 다수가 유럽 역사의 불행한 순간들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림들과 사진들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이다.

보다 정치적인 원칙들에 관하여 필자는 유럽의 회고 공동체의 목록에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이 공정한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즉, 제국주의 및 종족 우월주의에 대한 거부, 전체주의 및 국수주의에 대한 거부, 모든 파트너 또는 이웃의 패권국가적 성향에 대한 경각심, 법치의 중요성, 인권의 존중, 자유 및 결속에 대한 존중, 우리 자신 간의 초자연적 통합 및 전 세계의 다른 파트너들과의 다변적 과정에 대한 믿음 등. 이와 같은 원칙들은 일부 동남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북부 코카서스 지역에서 지금까지도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유럽 전역의 ‘회고의 공동체’에 입각한 것들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을 하나의 피뢰침으로서의 제2의 원칙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공통의 경험에 문화적 소통의 발전의 뿌리를 두려는 시도가 그 대안이 없는 사항인 채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유럽통합의 역사를 편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외국어에 대한 지식이 크게 퍼져가고 있을 것이다. 1950년에는 유럽인들의 약 10%만이 외국어를 말했다. 오늘날은 유럽인들 거의 절반이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말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의 3분의 2는 영어 외에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공식적으로 모든 유럽인들이 자기 모국어 외에도 두 개의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그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위하여 영어를 지배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앞에 말한 상황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개의치 않는다. 유럽의 비영어권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의 영어와 견줄 만한 영어 구사능력을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서로 간에 대화의 가능성도 배제한 채 무기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좀 서툰 영어라라도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이다. 때때로 그리고 불행하게도,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에도 문화의 소통이 꼭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유럽인 모두가 한반도에 더욱 많은 햇볕 정책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이유인 것이다.

끝으로, 유럽의 공공 영역의 설정을 위하여, 그리고 아마도 문화 소통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 번째의 원칙은 공통의 책무로서 미래를 함께 직면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전투나 승리 어느 것도, 역사에 대한 좋거나 나쁜 해석도, 이웃들과 행동들도 이에 관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로 하여금 진진하게 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미래를 보장할 미래가 오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인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책무에서 유럽과 동아시아가 지역 내의 문화적 소통에 관한 구체적인 표출의 탐색 노력에서 비교 가능한,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Europe:

Building a Union of cultural communication

Ludger Kühnhardt

I.

Among the many legends about European integration you can find the following story: When Jean Monnet, one of the important founding fathers of European integration, was reflecting about the path toward integration, he is said to have argued that if he would do it all over again he would start with culture. I did not find any evidence about the truth of this quotation. Often it is used to criticize European integration for not having achieved a sufficient degree of popular legitimacy. I doubt it, I doubt whether European integration is lacking legitimacy and I doubt that it would have achieved more legitimacy if the integration process in the 1950s would have started with culture. In fact, I doubt that it would have been possible to start European integration at that time with culture altogether. The main reason: culture is so important to Europeans. Aside of being important, one could conclude a cultural history of the people of Europe by way of saying that what they all have in common is the fact that they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Shortly after the horrendous World War II, in which 18.500 Europeans were killed on average per day by other Europeans, mistrust and cultural suspicion were as prevailing in Europe as the hope to overcome the deadly vicious circle of antagonistic and clashing nationalism, inclination of cultural sentiments of superiority and, may be even more so, prejudicial cultural perceptions of one another. I believe that it was the right thing to begin European integration with the Community of Coal and Steel, and subsequ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a Common

Market. It was the right thing because at the end, it also transformed cultural relations in Europe. But it did transform cultural relations in Europe only because the integration process was thoroughly based - from day one - in the creation of a supranational community. It was based in the concept of a steady transfer of national sovereignty to the European level, based on the concept of a supranational community of law that was increasingly growing into a parliamentary democracy. More important than the introduction of a common currency, the euro, in the year 2002 is the current ratification process of the first ever European Constitution. The decision on a European Constitution is the ultimate proof that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was a political process from its very beginning, starting with economic means as a functional tool to achieve political ends. The decision on a European Constitution is also the ultimate proof that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has transformed the diverse cultures of its member states into a pluralistic form of culture based mentalities. Finally, Europe has become a community of cultural communication, based on trust, based on mutual recogni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European integration is a process toward a common political identity without undermining the cultural diversity. In fact, European integration preserves the cultural diversity among its constituent parts through its common political identity. The process has not been completed and it remains full of flaws and contradictions. But in spite of all the idiosyncrasies of European governance and European policy formulation, the European Union is nowadays considered the political expression of Europe. It provides the frame for the further and stable evolution of cultural communication. I doubt whether Europe would have been possible to achieve this the other way around, that is to say by starting with culture, when the notion of cultural primacy or culture based prejudice was still so prevailing across Europe.

Cultural communication under the umbrella of political integration has found different expressions, not all of them logically

consistent. Yet they work. Take the institutions of the European Union. 20 official languages are recognized in the EU, interpreters of all of them find jobs in the European Parliament and in the European Commission. Every directly elected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can contribute to the deliberations in this parliament in his or her mother tongue. This will always remain so because it is the recognition of linguistic cultural diversity in Europe that produces legitimacy. Europe is only stable if an Estonian feels as much at home as a British or a Portuguese or a Maltese. This feeling is by and large deeply enshrined in the ability to speak one's mother tongue in common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the working languages in the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Council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re for practical purposes limited to English, French and German, the three languages spoken by most members of the European political elite. One might contemplate whether this list could or should be enlarged to include Spanish and Polish. But I am doubtful whether this would be of much help as far as the function of working procedures in the mentioned European institutions is concerned. Decisions of the European Council, and more so of the ever more important European Court of Justice might be pronounced in two or three languages only and yet Europe will remain confronted with 20 different interpretations because an argument, a phrase, even a word can have 20 different meanings in the legal or political context of all member states. A community of cultural communication recognizes this fact and starts to interpret the prevailing differences on the basis of a community spirit that supports commonality and not dissociation. That is the European experience, no matter how insufficient it remains to be. At my institute, the Center for European Integration Studies at Bonn, to give you one example, we have published an empirical study on language and law in order to support this epistemological process of strengthening understanding amid prevailing differences of interpreting the one European law..

We have also undertaken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evailing differences of mentalities in North Western Europe that is to say in the region of Belgium, Luxemburg, the Netherlands and Germany's North Rhine Westphalia. This is one of the most powerful economic areas of the European Union. It is also its most densely populated industrial zone and it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cultural centers of the European Union. Yet cultural differences remain startling and business people who tend to think that their counterpart across the no longer existing border behaves in the same way he or she does will often be mistaken. While in French influenced regions, you do informal business negotiations over an extensive lunch with good wine, the Anglo Saxon habit would rather be to grab a sandwich and then sit down formally to talk business in a serene atmosphere with bottled water. Differences also exist - to give you another example as far as invitations among business partners into private homes are concerned and even if you do so, do you bring flowers for the lady of the house or not? And when do you leave again after a nice evening? The answers we have collected in our "mentality guide" demonstrate on fundamental insight into the evolution of Europe as a Union of cultural communication: Differences prevail even among the closest of neighbors and in fact even within single countries. Managers of companies with, let's say joint French and German ownership have to organize retreats to deal with problems of cultural communication among themselves. This relates to mentality differences impacting business behavior and to contrasting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of business procedures. But all these differences have largely become differences in mentality. They are no longer differences in identity, quickly escalating into disputes over principles, pride and prejudice.

This, by the way, is also one of the startling discrepancies that exist to this day between integrated Europe and the remaining regions of Europe. While in Luxemburg or Amsterdam, the matter might be one of different mentalities over business habits, in Kosovo the matter

has escalated into life and death. Identity is prevailing wherever you travel South Eastern Europe. By and large it is still existing in most of the other post communist societies that joined the European Union on June 1, 2004. Wherever you ask people about themselves and their ethnic, linguistic or even religious neighbors, they will tell you “We are different”, meaning “We are special”. After five decades of integration, in those societies of the European Union that have gone through the long and still unfinished process of political transformation - and most importantly that is to say transformation of their political culture - the answer you will get most likely will be “We live different” or “we do business in different ways” or “We eat different food.” Men are what they eat that might be an anthropological fact. But men do not need to antagonize each other and to built walls around their diverse habits and attitudes, norms and traditions, that is a European experience.

II.

What has the European Union actively done to promote cultural communication? First of all, it can do only little, according to the Treaty provisions constituting the European Union as a union of law. The most remarkable trend has been one of indirect appreciation for culture and its related sphere, namely education. In the past, even the idea that the European Union might touch upon matters of education was considered a taboo. Most EU member states see autonomy over education structures and content as one of the holy ingredients of their national rights. When the European Union seriously prepared its strategy for globalization - that is to say in 2000 at the Lisbon European Council meeting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 it also discover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mproving the structures and the quality of education was considered to be a priority in order to adapt European society and economy to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globalization. This might be a highly functional perspective on education as our children deserve the best education for their own sake. But at least it increased the European Union's awareness for education.

As part of the strategy for globalization, the EU introduced also a new mechanism of pursuing her goals: "Open coordination". This is intended to prevent resistance from the side of individual member states of the EU to comply with EU goals as it is a much softer way of governing than the rigid form of strictly imposed EU regulations. Based on the notion of "open coordination", the European Commission has developed standards for benchmarking in the field of education. In fact, the relevant "Directorate General" of the European Commission - sort of a EU Ministry for Education and Culture - has been the center of interest and attention ever since. Comparing the quality of education standards across the European Union has only begun. But it will foster education reforms and make the EU's education structures step by step more competitiv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It also strengthens the concept of the Union as one of cultural communication.

In the context of drafting the first ever European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and many media in Europe discussed the meaning of religion for the political future of Europe. This was one of the most serious debates on the topic in Europe for many years, free of cynicism and with the intention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religion in the life of many Europeans, no matter how strong the overall degree of secularization in Europe might be. At the end, the Constitution did not include a convincing and integrative appreciation of the diversity of religious creeds and expressions of faith in today's Europe. This remains however an important topic, not just for the question of religious faith as such, but most importantly for the question: How do our religious traditions and convictions impact our understanding of critical moral issues in today's world? I

believe this is a matter of universal importance. Think of issues like stem cell research or related questions of the moral impact of technical progress in medicine that effects our definition of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human life.

In Europe, we are confronted with the fact that not only does Islam constitute today the second largest religious community in the European Union. The question of possible Turkish membership in the European Union will increase the importance of building cultural communication across religious borders, no matter how the accession issue will finally be resolved. My be less spectacular than the relationship with Islam, but no less important is the fact that with enlargement of the European Union to South Eastern Europe we are beginning to rediscover the split between Latin and Orthodox Christianity with different implications for social and economic ethics, just to mention one example. As with Islam, this is not just a theological matter, but a question relating to the evolution of our political culture. Time and again we have to rediscover and incorporate new elements of diversity that will transfigure the unity Europe is striving to achieve under the roof of the European Union. The challenge is to maintain an inclusive concept of cultural communication yet not to resort to a relativistic concept of human dignity and the interpretation of human rights.

So far, most successful activities to build cultural communities in Europe were rather issue related and functional, no matter whether or not they were policy induced or originated from civil society initiatives. It is worth mentioning the EURO NEWS TV channel, accessible in all EU member states in the respective national language. This TV program gives you a rather EU oriented overview of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events - and of course sports, which has always been much ahead as a means to strengthen the cultural communication in Europe. It is also worth mentioning the bilateral television channel "ARTE", a commercial

television station broadcasting the same program simultaneously in German and French. However, the media remain the weakest link in the chain to establish a European public sphere as practically all print media and practically all electronic remain oriented toward a specific national political system. They have begun to cover EU developments only recently with more professionalism.

The traditional sequence of activities favorable for the promotion of cultural communication has obviously been practiced in Europe: promoting language studies and student exchanges, twinning cities and declaring an interesting city the “Cultural Capital of Europe”, each year on a rotating system, which is much linked to cultural tourism and turned out to be another source of strengthening “European ness” across the EU.

One important aspect cannot be missing from this report: The effort to establish a European history textbook. Historians and other intellectuals from across the EU have developed interesting, even impressive examples of textbooks, which try to narrate the complex history of Europe as a permanent interplay of national histories. Without understanding that commonality in the European civilization is the binding glue, they argue, one could never understand the diversity, and the antagonisms and conflicts in Europe. It is worth, for instance, to study different national expressions of architecture, but to learn about the only one European period of baroque architecture, to study different European expressions of art, but to learn about the only one European period of impressionism, to study different European expressions of literature, but to learn about the only one European period of existentialism or of romanticism.

Beyond writing textbooks as joint efforts to create a common European view of its own history, governments have also been involved in promoting the elimination of hatred and prejudice in textbooks that deal with the particular contested aspects of European

history. This, of course, has gone way beyond the European Union and originated in the efforts to tame and overcome the Cold War divide between East and West Europe. It began with a German Polish and a German Russian history textbook commission. The German institute, set up to coordinate this process as part of confidence building measure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human bonds among former enemies, the Georg Eckert Institute, is now very active in promoting its expertise among the different people of former Yugoslavia, where the divided memory of history is still all pervasive and highly politicized.

III.

Can any lessons be drawn from these and related European experiences for your most noble search to built cultural communication in East Asia? It is not on me to judge, nor can I pretend to know enough of your region and all the efforts, failed and successful, to promote regional understanding and advancing cultural communication. It is however no secret and striking also to me that all over the world you can find today elements of regional integration and upgraded co operation - except for the Greater Middle East and for East Asia. It must be of concern for all other well meaning citizens in the world to share experiences and engage in the effort to overcome the obvious blockades in these two regions which happen to be the regions with the highest degree of geopolitical tensions and deep differences in the political regimes in the region.

Some conclusions one might draw with all caution from the European experience in building cultural communities as part of long and unfinished processes to built a full fledged European Union as the new expression of the European body politic:

1. Do not start overambitious and under funded. The very noble role of building cultural communication should probably begin with gradual processes and on with a limited, realistic scope, manageable in terms of human resources and of financial resources. It can easily overburden partners if too much shall be achieved at the same time. It could also generate resilience if the starting point is too conceptual and principled as it can easily politicize and derail the process.
2. Do recognize cultural communication as a pluralistic process. As there is no center of culture, there cannot be centralized cultural communication. It ought to flow in manifold ways, putting trust into the ambition, curiosity and creativity of the human mind. This might require a political and bureaucratic frame of support, but cultural communication can only flourish if it will be felt by the people, by civil society and its manifold expressions as useful, stimulating and valuable.
3. Start somewhat non political, for instance with an essay competi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all countries of the region on the question “Hope East Asia: The meaning of cultural communication in our part of the world”.
4. Promote the inclusion of cultural matters in the wider context of a scheme for cooperation and security in North East Asia, which also addresses matters of security, economic cooperation,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technological exchange and human contacts.
5. Go your own way and do not wait until anybody else in the world will start. There is no cultural center in any region of the world that will nurture trust, generate sustainable support among as many citizens as possible and anticipate political evolutions to the benefit of all cultures and the dialogue among the people in the world. Cultural communication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center and

periphery. Where there is culture, there is a center. Periphery is alien to culture although, as we have experienced, creativity often comes in from the fringes.

Three principle guidelines might unite the search for cultural communities both in Europe and in East Asia. First and foremost, it will be essential to develop what political philosopher John Stuart Mill has called “communities of recollection”. They will design the mental map which we apply to understand the current world and our duties in tomorrow’s world. If we reflect about mental maps, it might, for instance, be worth thinking which paintings or photos are most widely used in our school books to underline what history means to us. By now, in Europe - all across Western, Eastern, Northern and Southern Europe! we can observe a certain telling consent among some defining images of European self interpretation. On top of the continent wide list of paintings and photos used in school textbooks are: John Turnbulls “Americ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 Jacques Louis Davids “Oath at the Beginning of the French Revolution” (1789), Eugene Isabeys “Session of the Congress of Vienna”(1815), Eugene Delacroix’ “Massacre of Chios and Greece on the Ruins of Missolonghi”(1826), Anton Alexander von Werners “Proclamation of the German Empire in the Versailles Castle” (1871), William Orpens “Signing of the Versailles Peace Treaty” (1919), a photo of Lenin talking to Red Army soldiers (1920), Pablo Picassos “Bombardment of Guernica” (1937), a photo of the Yalta Conference (1945), a photo of the Soviet flag over the German parliament in Berlin(1945) and a photo of the fall of the Berlin Wall (1989). As a good number of paintings and photos from this list do not represent happy moments of European history, one has to conclude: It is not the content of paintings and photos that matter, but how we interpret them with hindsight knowledge and try to learn from past failures.

As far as more political principles are concerned, I think it would be fair to include in the list of a European community of

recollections: the rejection of imperialism and racism, the rejection of totalitarianism and nationalism, sensitivity toward hegemonic inclinations of any partner or neighbor, primacy of rule of law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ppreciation of freedom and solidarity, confidence in supranational integration among ourselves and multilateral processes with all other partners in the world. These principles are based in a Europe wide “community of recollections” which is still weak in certain regions of South Eastern Europe and contested to this day in the Northern Caucasus. Yet, and this would be the second principle I suggest as a lightning rod, it will remain without alternative to root the further development of cultural communication in the success of common experience. This is why it has become important to write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This is why it is also indicative how much the knowledge of foreign languages has spread: In 1950, about ten per cent of Europeans were able to speak a foreign language. Today, about half of all Europeans speak foreign languages; in the young generation even two third speak another language. The European Union is officially propagating that every European should learn two foreign languages beside his or her mother tongue. I simply don’t mind whether this trend is somewhat handicapped by the dominant use of English only as long as people can communicate and do so. Hardly any of us in Europe would qualify to compete with Shakespeare’s English, but it is better to communicate in some pidgin English than to maintain rivalry in arms production without the ability to talk to each other. Sometimes and very unfortunately, even the use of the same mother tongue does not necessarily facilitate cultural communication. This is why we all in Europe hope for more sunshine over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the third principle that is relevant for the constitution of a European public sphere and probably for any formation of cultural communication is the willingness to face the future as a common task. Neither battles or victories of the past, nor good or bad interpretations of history, neighbors and actions do help us in this

regard. It is only the unwavering commitment to address the challenges that the future brings to our doorsteps that will bring us forward and guarantee a good future for our children. In this task, I firmly believe, Europe and East Asia find common and comparable ground in search of the specific expression of our regional cultural communication.

제 1 회의 First Session

동북아문화공동체에 관한 각국의 현황과 전망

Nations' Response to the Prospect of
a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동북아문화공동체와 한국의 역할

전 영 평

I.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의 배경과 필요성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 번영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많은 학자와 실무자를 통해서 오래 전부터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과거의 동북아 공동체 구상은 대부분 국가간 불평등을 전제로 한 주장이거나, 동북아지역의 배타적 지배의 구실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런데 최근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국가 간 연합을 통한 평등하고 민주적인 지역 공동체가 형성됨으로 인하여 국가경계 중심의 생활환경에 익숙한 동북아 국가들에게도 새로운 형태의 생활 방식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 이미 서유럽과 동유럽 25개 국가들이 유럽연합으로 통합 하였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북·미공동체를 추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동북아 국가들이 서로의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생활공동체를 구상하여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동북아 공동체 구상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실제로 어렵다. 동북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삼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이라는 원칙적 사안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동북아 공동체가 과연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며, 누가 주도하며, 어떤 명분과 실익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동북아 공동체는 상상의 공동체로서 의미가 더 강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서로의 이익과 갈등이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⁵ 특히 동북아 3국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어 상호 반목하는 상황에 놓여있었으며, 이념적으로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분류되어 냉전

⁵ 김광역 (2004).

의 대리자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까지 계속된 이러한 불안한 역사적 상황은 동북아 3국의 평화 정착은커녕 경제적 협력조차 어렵게 해 왔다. 해방 이후 서구 자본주의에 편입된 한국은 자본주의적 발전을 위해 일본과 한·일협정을 체결한 이래 경제적 관계를 활성화시켜 왔으나 정치 문화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안한 갈등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중국의 경우 자본주의식 개방정책이 도입되고 한국과의 수교 관계를 맺은 이후 한국과의 경제적 거래 관계를 잘 유지한 관계로 이제는 경제적 분야에서 서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치 이념과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경제적 거래관계 이외의 분야에서 그 성과가 크게 진척되고 있지 못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과거 침략에 대한 국가적·정치적 차원에서의 진정한 반성이 매우 미흡하고, 2차 대전 당시 전범에 대한 연속된 참배 강행으로 인해 중국과 한국의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일본은 과학기술과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한국, 중국과 매우 건조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동북아 삼국의 협동이 각국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상호 평화와 번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엄연한 판단이 섬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이 크게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구상이 단지 경제 협력 공동체 수준에 머문다면 이는 경제 관계의 속성상 불평등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경제적 갈등의 소지가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인간 행위와 문명 형성의 근저에 놓여 있는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동북아 삼국의 문화적 동질성을 토대로 한 문화적 교류를 통한 ‘문화공동체’의 구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당위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2)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의미, 기대효과, 범위, 효과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며, 3)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당위성과 비전

동북아 문화공동체구상은 동북아국가의 협력적 정서와 선의의 경쟁 요구를 조성하여 한국은 물론 동북아를 세계적인 문화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실익의 측면에서도 동북아국가들은 각자 수준 있는 고유한 문화 영역을 토대로 상호협력을 통한 WIN-WIN 상황을 창출할 수 있다. 경제적 이익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적 협력은 인간사회의 바람직한 질서와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높은 문화에 대한 존경심과 자기 발전 노력을 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문화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는 달리 상호 공유될수록 그 가치가 커지며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문화적 가치에 대한 수용력은 더욱 커지게 되며, 그로 인하여 상호 존중과 협력의 기회가 열리게 된다.

한편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 프로젝트는 국내적으로는 고품질 문화가치 형성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문화혁신운동을 통하여 형성된 고급문화 가치를 동북아국가들과 공유하여 동북아가 세계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지향해야 한다. 동북아문화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동북아문화공동체

동북아 지역의 갈등은 군비 증가 및 상호 불신을 초래하여 동북아 지역을 지속적으로 세계적 불안 지역으로 남게 할 것이며, 이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이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

여 서로의 삶의 방식을 공유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평화 정착의 반석을 형성하는 일은 분명히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아울러 문화적 삶의 공유는 동북아 지역의 공동 번영은 물론 다른 공동체 및 국가와의 공동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동북아 문화가치 창출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은 동북아 삼국의 지속적인 삶의 방식 교류를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문화 가치를 창출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과거 수천년 동안 동북아 지역의 문화가 세계를 주도하는 경쟁력을 가진 문화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근세에 들어 외세의 침략에 의해 서구적 문화 가치가 유입되고 이를 추종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의 문화는 자타가 서로 무시하는 가운데 구태의연하고 비속한 것으로 왜곡되었다. 그러나 이제 동북아 문화권의 저력은 서구문명 자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문화의 창조력과 우수성을 추가하여 새롭고 수준 높은 문화적 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문화공동체는 유럽연합 등 세계적 지역 공동체를 압도할 수 있는 고품질의 문화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비전을 추구해야 한다.

3.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공동체 건설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은 무엇보다도 동북아 지역의 평화적 선린 관계를 형성하여 다시는 침략과 보복, 억압과 저항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엄정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문화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비전이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문화가치를 산출하겠다는 것도 동북아 지역의 안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의 동질적 문화를 토대로 한 공동체의 형성 노력이 요청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당연히 상호 번영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문화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

III.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의미, 기대효과, 범위

1.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의미

동북아문화공동체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이 문화적 동질성을 공통분모로 하여 보다 밀접한 상호 이해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연대 체제’를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북아문화공동체는 동북아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상당 정도의 정신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고 현시대에 나타나는 서로의 문화적 개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세계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가치관을 모색하면서 보다 밀접한 상호 이해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연대 체제를 의미한다.⁶

동북아는 세계적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한 지역이면서도 경제규모가 세계무역의 30%를 상회하는 지역이다. 동북아는 유교, 불교, 도교 등의 영향으로 가치관과 가족관계, 생활습관 등이 매우 유사한 관계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견고한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세에 들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냉전 상황에서의 국제적 분열, 한반도의 분단 등으로 인하여 동북아 국가들의 관계는 최근까지 상호 긴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게다가 여전히 폐쇄된 체제

⁶ 전영평·박경하, 2004: 36-37.

안에서 주변국에 대한 불신에 갇힌 북한의 처신과 미국의 견제 사이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 관계는 자신들의 운명을 바람직하게 주도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나서서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 작업을 창도하는 일은 동북아 3국 및 남북관계를 회복시켜 동북아 평화는 물론 상호 번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헌팅톤도 지적한 바 있듯이 문명의 충돌보다는 문명간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문명 간 대화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제에 동의할 때, 우리는 문화간 동질성을 확인하면서 서로의 문화적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화합과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조성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필수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실제로 유럽 연합의 경우 역사적으로 확보된 문화적 공통성의 기반 위에 각 나라의 문화적 개성을 유럽 대륙 차원에서 다양하게 발휘하도록 이해와 관용의 장을 마련한 것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역통합에 큰 기여를 하였다. 헌팅톤의 “문화적 동질성에 바탕을 두었을 때 경제통합이 더욱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며, 이는 의미있는 경제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 경제는 문화에 종속되는 것이다”라는 언급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이 향후 가져올 좋은 성과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데 충분하다.

2.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긍정적 효과

동북아 국가들은 근세에 들어 불행한 역사적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행한 역사는 동북아 국가들의 문화적 동질성이 우리의 운명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리라는 자각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 불행하게도 동북아 국가들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상호 협력을

도외시한 채 제국주의나 지역 패권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더 강했다. 이 때문에 기왕의 문화적 공통성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동북아 국가들 모두가 비극으로 내몰렸다. 이런 역사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얻은 역사적 교훈이다

지난 50년간 제 2차 세계 대전에 승리한 미국과 영국, 러시아가 전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을 장악해 나갈 동안 중국, 일본, 한국은 이념의 좌우와 경제의 득실로 나뉘어 상호 질시와 갈등의 나날을 보냈다. 이런 와중에서 유럽은 프랑스와 독일의 화합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을 창설하는 데 성공하여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역 국가연합 형성을 통하여 세계화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또한 북·미지역과 태평양지역을 아우르는 정치, 경제 연합을 형성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동북아 3국은 변변한 지역 통합체 하나도 결성하지 못한 채 서로 자기 주도의 발전 계획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착 국면을 돌파하고 동북아 3국이 평화를 바탕으로 상호 번영하는 길을 찾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일은 절실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북아국가 중 가장 피해가 많은 한국이 동북아의 문화동질성을 기초로 하여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건설하자는 주장은 대외적 명분 확립과 동시에 대내적 문화 혁신을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의 수립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와 지역통합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아무런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동북아지역의 문화 공동체 추진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경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신적 초석이 구축될 수 있다.

둘째, 동북아지역의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용서와 관용, 화해와 협력

을 위한 평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문화공동체 형성 노력은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민간중심의 실질적 교류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북아 국가간 화해, 협력, 평화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동북아경제중심은 일국 중심의 발전 계획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치열한 경제적 이득을 앞세우는 발전주의 선언보다는 동북아가 문화적으로 함께 발전하고, 각국에 고품질의 문화적 혁신이 일어나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문화혁신을 위한 국가적 전략 구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넷째, 최근 문화적 동질성을 토대로 한 대중문화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르는 문화산업이 상호 교류되면서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은 동북아 국가간 상호 이익과 협력의 좋은 기반이 된다.

다섯째,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은 동북아국가의 집단적 문화 혁신을 통한 세계적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과 각 국의 국내적 문화 혁신을 동시에 수반하는 실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동북아 국가의 합의에 의한 상호 번영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

3.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성과 범위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어떤 국가들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물리적 지형을 고려할 때 넓게는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 몽골, 대만,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포함하는 많은 국가를 포함시킬 수도 있으며, 좁게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만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또한 문화지형을 고려할 경우 문화적 동질성에 따라 한정된 국가만을 포함시킬 수도 있으며, 문화적 이질성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국가의 선택

도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건설 구상이 종래의 일상적인 국가 간 문화협력 및 교류 행사 수준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할 때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성 국가의 선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동북아 문화공동체 국가를 동북아 주요 경제 교류권과 일치시키는 방안이며 둘째, 전략적 특성에 따른 문화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현재 동북아 경제교류 안이 상정하고 있는 주요 경제협력 대상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러시아에 관한 입장은 모호함-인데 이러한 범주 선택의 기저에는 3국이 차지하는 경제규모가 세계의 5분의 1에 해당되며, 유럽연합의 4배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또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 중심 추진과 보조를 맞출 경우, 전략상으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중추(Hub)가 된다는 3국 협동 전략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은 동북아 경제 교류권과 동일한 국가 군을 상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문화공동체 형성 작업은 동북아경제중심 구상의 전략적 선택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즉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통해서 공동체 참여 구성 국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1세기는 정보화 및 지식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의 영역에 정보와 지식사회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국가-일본, 중국, 한국-들을 문화 허브로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IV. 동북아문화공동체구상과 한국의 역할

1. 참여 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시대’의 구상이 국정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연설 내용의 거의 절반 가량이 동북아시대의 구상에 관한 것이며, 연설 내용 전반을 꿰뚫는 코드도 단연 동북아시대였다. 취임사에 나타난 ‘동북아중심’, ‘동북아시대’, ‘번영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동북아시대의 중심국가’ 라는 표현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 국정 운영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인식시키는 데는 충분하였다.

우리 앞에는 동북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세계의 변방에 머물던 동북아가, 이제 세계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떠올랐습니다. 21세기는 동북아 시대가 될 것이라는 세계 석학들의 예측이 착착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경제규모는 세계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한·중·일 3국에만 유럽연합의 4배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지난날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노대통령의 동북아시대 구상은 취임사에서 비로소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 - 20대 과제 - 에서 6번째 과제로 ‘동북아 중심국으로의 도약’을 천명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1) 동북아중심국 프로젝트 전담 기구 설치, 2) 동북아 평화 및 경제협력체의 창설 및 동북아 개발은

행의 설립, 3) 동북아 철도공사의 설립, 4)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창설, 5) 동북아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강화, 동북아 표준화 사업 주도, 6) 인천, 부산, 광양항의 동북아 물류 허브(hub) 기지 개발을 제시한 바 있다(노무현 공약집 자료). 또한 노무현 후보는 8대 핵심전략 중 8번째로 한반도의 냉전 해소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번영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서는 동북아시대 구상이 다른 공약에 비해 덜 중요한 순위에 있었으나,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각별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발전’과 더불어 3대 국정 목표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또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건설’은 12대 국정 과제로서 설정되었으며, 지난 2003년 4월 16일에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위원장: 배순훈)를 구성하여 경제 분야로부터 동북아 정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이라는 과제는 참여정부의 동북아 정책의 근간이 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이 주제를 중심으로 정책토론, 학술세미나, 정책과제 수행 등이 활발히 전개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참여정부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 구상을 수정하여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문정인)로 변경하여,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동북아시대의 구상을 추구하는 새로운 노력을 보이고 있다.

2. 동북아시대구상의 한계와 동북아문화공동체

그런데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에서 - 특히 초기 1년 동안에는 - 동북아문화협력이나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과 같은 정책은 거의 발전하기 힘들다. 실제로 참여 정부의 동북아정책은 대부분 경제 협력 분야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동북아 시대는 경제에서 출발합니다. 동북아에 ‘번영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번영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평화의 공동체로 발전해야 합니다. 지금의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아에도 구축되게 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동북아시대는 완성됩니다. 그런 날이 가까워 지도록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그러나 동북아경제중심의 구상도 문화적 협력 인식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래관계 및 이윤추구 중심의 관계는 경제적 실익이 없을 경우 지속되기 힘든 반면, 문화적 교류 관계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계속 지속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진된 상호이해를 통해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의 내용이 수월성을 갖출 경우 문화가 갖는 영향력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최근 시민사회가 동북아시아민포럼을 창립하고 그 선언문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며 동북아 전체의 ‘평화공동체’를 구축하는 일, 글로벌 경제가 가져오는 기회와 위협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동북아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일, 그리고 침략과 저항, 반목과 오해의 역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은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필수요건”임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은 물론 평화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구상이 문화공동체 구상과 연결되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당화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인문사회연구회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동북아중심은 경제중심은 물론 인문사회분야를 포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는 경제중심의 구축은 공동체 문화기반을 바탕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공동체와 문화공동체는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

다. 또한 국가 경쟁력이 높은 ‘작지만 강한’ 국가들(싱가폴, 핀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은 문화축적과 창조적 지식기반의 구축을 통한 국가발전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분야의 창조적 역량과 지식정보사회를 향한 지식기반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참여정부의 12대 과제 중 -비록 동북아시대 구상과 관련된 과제는 아니지만- ‘지식문화강국 실현’의 사상과도 간접적으로 관련을 갖는 것이다. 문제는 참여정부의 지식문화강국 계획이 국내라는 지형에 한정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다분히 문화산업, 기술인력 개발, 문화유통시장을 주요 컨셉으로 하는 경제성 확대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문화 창달의 수단으로 문화산업 및 문화인력의 양성이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북아시대의 문화교류를 염두에 둘 경우에, 문화정책은 보다 다양한 문화와 주제를 포함해야 하며, 문화의 전파와 확산의 방식도 공동체구성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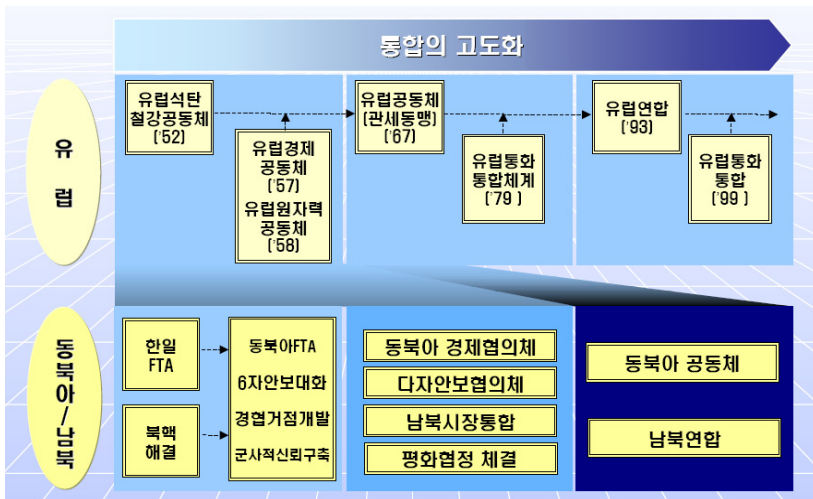
3.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 추진 계획 고찰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 추진 구상은 거시적으로는 동북아통합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동북아통합시제), 이를 위한 동북아 공동체 건설의 전략과 한국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의 구상의 특성은 경제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상호 번영과, 이를 발전시킨 형태의 상호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상호 이익의 추구 과정은 상호 갈등적 요소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제 중심적 상호 이익 추구가 평

화적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성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경제 이외의 다른 요소, 즉 상호 이해에 대한 문화적 요소의 검토가 필요하며 문화적 교류와 소통을 위한 작업이 선행 혹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다행인 것은 참여정부의 동북아시아위원회회의 ‘동북아 공동체 건설’ 분야를 보면 사회문화교류 분야가 있어 그 세부과제로 1) 동북아 문화정체성 모색, 2) 동북아 NGO 연계망 구축, 3) 동북아 미래 지도자 양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거의 선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문화교류에 적합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여태까지 동북아문화를 주제로 한 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 방안이 공식적으로 개최된 바도 없으며, 동북아시아위원회회의의 구성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적, 제도적, 재정적 인프라가 마련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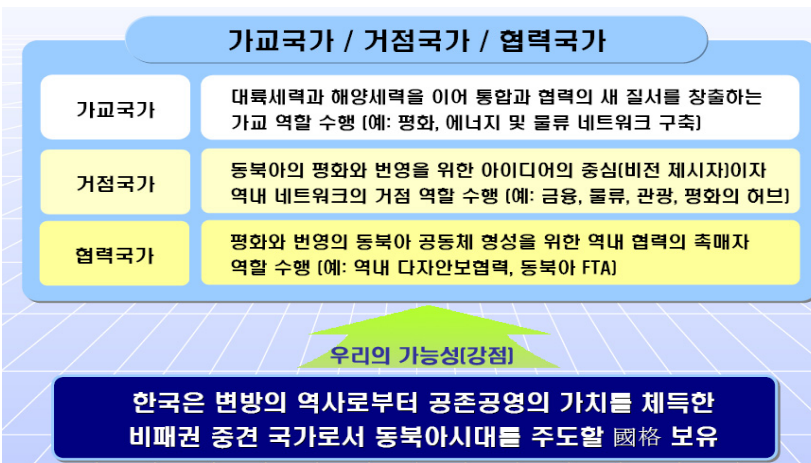
◎ 동북아의 ‘통합시계’ <자료출처: 동북아시아위원회>



◎ 동북아 공동체 건설 <자료출처: 동북아시대위원회>



◎ 한국의 역할 <자료출처: 동북아시대위원회>



한국 정부의 이러한 소극적 자세는 근본적으로는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을 동북아시대 구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동

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동북아국가의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의 상호이해를 통해서 이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바도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연구는 동북아 3국의 진정한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이 추구하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대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을 국가정책적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권고하며, 이러한 작업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언론 및 일반 시민들의 지극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시적 작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인식한 지식인과 정책연구자들이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장에서는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의 비전, 추진체계, 한국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V.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을 위한 한국의 역할

1. 협력의 틀과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

동북아 문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합리적이며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제약조건하에서 이 연구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을 큰 틀에서 체계화하면서 가능한 전략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은 크게 동북아 국가와의 공동작업 부분과 국내작업 부분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성은 참여 국가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비전과 논리의 개발, 상호 명분과 이익이 보전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주로 한국,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문화 Hub 구상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3국이 중추가 되는 문화공동체 구상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대안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는 한, 중, 일 3국이 동북아문화혁신 Hub가 되어 동북아문화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EU 등 다른 세계지역 블럭과의 문화협력 및 교류를 통한 세계평화와 번영에 이바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커다란 구상으로 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물론 동북아문화혁신 클러스터의 외관이 갖추어 질 수 있을 때까지의 역할은 동북아구상을 제안한 바 있는 한국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국내적으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대비하는 전략적 목표와 대안 마련에 치중할 필요가 있으며, 동북아 공동체 내에서 품질경쟁력을 갖는 문화가치를 생산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방안으로는 국내의 주요 대학, 산업, 문화인 등이 결합된 국내문화혁신 클러스터를 조직해 보는 것도 하나의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정지역에 모여 있는 수직적, 수평적으로 긴밀한 상호관련을 갖는 클러스터가 발달하게 되면 경제성은 물론 정보와 지식의 전파효과가 커지게 된다.

한, 중, 일 3국을 문화공동체의 공동주역으로 하고,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세계화 시대의 문화 Hub로 설정하는 방식은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문화 Hub는 특정국가의 특정 지역에 국한될 필요는 없으며 각자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를 Hub로 지정하되, 각 Hub들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공동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참여국가들은 각자 문화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국내도시와

기업, 전문가들을 아우르는 문화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고품질의 문화창출 노력을 시도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실질적인 내용이 결국은 각국의 문화인프라의 구축에 의존한다는 평범한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적 문화혁신 클러스터의 구축과 이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이 앞으로 각국의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거시적 구도를 토대로 연구자는 향후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 틀과 전략적 추진체계를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제시하였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 협력 틀과 전략적 추진체계>

<비 전>

1.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동북아문화공동체 건설
2.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동북아문화가치 창출
3.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공동체 건설



<목 표>

1. 동북아문화 Hub 구축
2. 고유문화의 계승발전 및 문화 수용 및 상호교류
3. 고품질 문화의 창출
4. 문화협력과 경쟁
5. 동북아 문화시민 정신 고취
6.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과 연계된 자국내 지역 문화혁신 추진



<동북아 문화네트워크 구축>

- 정부 간 정책지원 네트워크
- 문화기업 및 산업의 네트워크
- NGO 및 민간 문화교류 네트워크

<동북아 문화혁신 클러스터 구축>

- 한, 중, 일 3국의 동북아 문화 혁신클러스터
- 지방정부, 기업, 단체, NGO등 협력 클러스터
- 클러스터의 공동투자 및 상호 발전 추구



<국내 동북아 문화 공동체 추진 전략>

1. 국가차원의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정책적 지원 체제 구축
2. 국내적 문화혁신 클러스터 구성: 문화의 연구, 생산, 공유, 소비
3. 국가균형발전 및 정부혁신, 지방분권, 지역혁신과의 연계 추진
4. 남북 간 평화문화혁신 클러스터 구축

2.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국가 의제화와 실행기구 형성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을 현실 세계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이 국가적 의제로 선정되어야 한다. 즉 참여 정부의 동북아시대위원회가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을 국가적 사업으로 선택하고 이를 경제적 사안과 동등한 위상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은 자국의 중심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자기 국가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는 공동체 사상이기 때문에 한, 중, 일 3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조속히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문화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 학자, 기업인, 언론인, 시민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민간 차원에서의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과 교류 협력을 증진 시키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정부의 역할은 동북아문화공동체 실천을 위한 정책적 기획, 자원 마련, 제도의 형성이 될 것이다. 또한 민간의 문화 교류와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동북아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동북아 문화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의 동북아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전략적 추진 체계를 작성하고 전략적 과제 도출의 기준 혹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며, 정부 부서별 문화공동체 관련 국가의제를 발굴하고, 문화 관련 정책의 분야별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동북아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정책 및 연구과제 개발

가.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을 위한 정책개발의 의미와 전개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이 참여정부의 공식적인 정책과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공동체 구성의 당위성과 유용성은 향후 중요한 정책과제로서의 위상을 정당화해주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동북아경제중심 추진과는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공동체 구상은 지금부터라도 구체화를 위한 논의와 정책구상 작업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여타 정부기관에 앞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한국의 인문사회연구회이다. 한국의 인문사회연구회는 통일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교육평가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산하 조직으로 두고 있는데, 이들 연구기관의 인력과 업무는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위한 정책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연구원들이 각자 자신들의 분야에서 동북아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창의적이며 전략적인 정책 개발을 할 경우 국가 발전을 위한 커다란 기여와 동시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 협력틀의 구상과 전략적 추진체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주제를 각자의 성격에 맞는 정책적인 연구로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예컨대, 동북아문화공동체 추진을 위한 국내외적 제도 정비는 법제연구원 이 수행하고, 동북아문화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정부간 정책지원 연구는 행정연구원이 수행할 수 있으며, 동북아 범죄문화의 연구는 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인문사회연구회는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거시적 비전과 목표, 국가 간 문화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정책주도자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국내의 지역 간 문화격차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연구할 수도 있다. 여성개발원의 경우 동북아국가 및 국내의 여성과 남성간의 문화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혁신클러스터의 조성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연구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클러스터 구성과 내용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은 동북아문화공동체의 Hub화를 위한 정책구상과 아울러, 이를 지지하기 위한 국내적 문화 혁신 정책 구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과 아울러 국내의 문화혁신을 동북아의 문화혁신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장점을 가진 구상이기 때문에, 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각 연구소들에게 풍부한 정책 연구 소재를 제공하는 ‘지식·문화의 바다’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나.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 실천을 위한 연구과제 설정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이 갖는 중요성과 유용성은 국가적 정책과제 개발로 이어질 때 그 생명력을 갖는다. 당연히 국가 주요 정책 과제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 think-tank인 국책연구기관들은 문화공동체 구상의 실천과제 개발을 통해 연구소의 외연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별 연구소 단위로는 거시적 국가 정책의 수립을 주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9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국가 조직인 「인문사회연구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인문사회연구회가 주도하는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은 특정 정권의 주문 차원이 아닌 주체적인 기획의 선택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저품질 문화를 혁신하여 고품질 선진 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전지구적으로 추진되는 시대라는 점에서 동북

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문사회연구회의 작업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 프로젝트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인문사회연구회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 논의 전개와 산하 국책연구소의 협력은 2003년도 6월 초에 본격화되었으며 그 결과 각 연구소 별로 2004년도 정책 추진 과제를 발굴하는데 이르게 되었다. 즉, 동북아문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세부 정책 과제는 1)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동북아 협력방안, 2) 동북아 공동체 범죄 예방 전략, 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부정책간 교류 협력, 4) 역사교과서 개선을 통한 동북아국가 상호이해, 5) 동북아 공동체 형성과 협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6)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제도 구축, 7)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성인적자원교류, 8)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교류, 9)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교육정책의 과제, 10) 동북아의 동양적 가치와 문화적 동질성 추진, 1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산업 교류, 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광 교류 전략 등으로 제시되었다.

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소기관간에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협동연구사업은 현재까지는 기초 논의 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향후 심층적인 담론과 성찰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유용한 정책과제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 계획은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 계획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제와 밀접하고도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현재 경제사회연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중심국가건설을 위한 세부 정책 분야는 1)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 2) 동북아 항만허브화 전략, 3) 동북아 금융중심지화 전략, 4) 동북아 에너지협력 전략, 5) 동북아 정보통신 허브화 전략, 6) 동북아 교통망 구축 전략, 7) 동북아 자유무역허브화 전략, 8) 동북아 산업협력 전략, 9) 동북아 농업협력 전략, 10) 동북아 환경

협력 전략, 11) 동북아 지역협력 전략, 12) 동북아 노동협력 전략, 13) 동북아 R&D 허브구축 방안, 14)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 15)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전략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 개발 주제들은 주로 한국을 경제 기지화하는 전략을 핵심으로 하거나 동북아 경제 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 주제들은 나름대로 의욕적이고 바람직한 비전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한 무한 경쟁 시대에 이미 돌입하였으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 패권주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경제력과 정치적 위상으로 볼 때 일본과 중국을 리드할 수 있는 경제 중심의 역할을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전략은 경제일변도로 추진하기보다는 동북아의 문화 동질성 회복, 이질성 극복, 문화 다양성의 확산, 문화 고품질화 운동과 연계되어 진행될 때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문사회연구회가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제와 경제사회연구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제간의 상호연결성 강화 논의와 동북아문화 및 경제 중심국가 형성을 위한 공동 전략 개발의 담론이 이제 곧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동북아 공동체의 문화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한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모임인 유럽연합(EU)도 현재와 같은 정치, 경제, 문화 블록이 되는 데 60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구성원리가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복지 등에서 기본적인 동질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도 동북아 공동체의 향후 실천 방안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다.

한국이 구상하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계획은 시간적으로는 장기적 관점을, 지형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로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략상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전세계적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 동북아 국가간 상호공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동북아 국가 군을 문화 Hub로 활용하는 전략과 아울러 국내 문화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및 활용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문화공동체 건설 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는 남북 간의 문화공동체 및 문화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화해와 협력의 노력이다. 동북아에 관련된 어떠한 정책 주제도 남북한의 극한적 대립상태에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간의 경제력의 차이는 매우 커도 문화적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현실을 볼 때 문화적 주제 선택을 통한 고급 문화 가치 형성을 위한 노력은 협동과 상호존중의 가능성이 가장 큰 부문이다. 남북 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적 공동체의식회복과 문화가치의 상호 경쟁을 통해 고급 품질의 문화를 창출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가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문화 선진국의 위상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억. 동북아문화공동체 토론회. 2003.
- 김광억. “동북아시아의 존재 양식: 현실과 상상의 사이.” 최송화, 권영설 편저. 『21세기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구상』. 법문사. 2004.
- 김 구. 『백범일지』. 2002.

- 김석진. “동북아중심국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LG주간경제』, 11-17. 2003.
- 인문사회연구회. 『<동북아중심형성을 위한 인문사회분야 정책과제>(초안)』. 2003.
- 전영평·박경하. “동북아 상호이익과 갈등극복을 위한 방안.” 최송화·권영설 편저. 『21세기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구상』. 법문사. 2004.
- 헌팅톤. 『문명의 충돌』. 2003.
- 동북아시대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 경제사회연구회. 『동북아중심국가건설연구』. 2003.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활동계획(안)』. 2002.
- 『동북아시아민사회포럼 창립세미나 자료집』 2003.
- 인문사회연구회. 『동북아중심형성을 인문사회분야 정책과제(안)』. 2003.
- 『노무현 대통령 후보 공약집』. 2002.
- 『노무현 대통령 제16대 대통령 취임사-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로-』

东北亚文化共同体和韩国的作用<摘要>

全永评

I. 东北亚文化共同体构想的背景和意义

基于东北亚三国的和平, 寻求共同发展的道路是迫切的时代命题。尤其是在东北亚国家中受害最深的韩国, 主张在东北亚文化同质性的基础上为和平与繁荣构筑东北亚共同体, 这在为获得对外名分, 在国内进行文化革新而制定国家发展战略时将会做出很大的贡献。

东北亚三国的合作不仅有利于各国的经济发展, 也有利于和平与繁荣, 这是我们公认的事实。尽管如此, 还没有具体的行动去促进东北亚共同体的形成, 这对各国都应该是很遗憾的事情。如果东北亚共同体构想只停留在经济合作共同体的层面, 那么由于经济关系的属性, 很可能发展成不平等的关系, 演化出经济矛盾。因此我们有必要认识到渗透在大部分人的行为背后和文明形成过程的文化因素, 探讨通过基于三国文化同质性的文化交流构筑文化共同体的问题。

II. 东北亚文化共同体的意义和预期效果

东北亚文化共同体是韩国、中国、日本等东北亚国家以文化同质性和精神上的共同点为基础, 以尊重在现代社会所出现的各国文化个性为前提, 探索人类普遍认同的价值观, 力求深入理解对方, 谋求共同利益的正式、非正式合作机制。

通过东北亚文化共同体我们可以预期以下效果：

第一，在世界化和区域一体化时代潮流中，东北亚地区还没有形成任何地区共同体，为促进东北亚地区文化共同体的形成所作出的努力如果能得到成果，将会为东北亚的和平与稳定打下精神上的基础。

第二，为了东北亚地区的一体化首先需要为相互饶恕和宽容、和解和合作形成和平的氛围。而为形成文化共同体做出的努力将能使各国在文化同质性的基础上以民间为中心进行交流和合作，进而为东北亚国家之间的和解、合作、和平做出贡献。

第三，各国提出的东北亚经济主导计划受到是以单一国家为中心的发展计划的批评。我们需要的不是追求经济利益的发展至上的宣言，而是一场文化革新，以使东北亚在文化上共同发展，在各国掀起高水平的文化革新，从而让各国均衡地享受这一革新带来的利益。而文化共同体恰好能成为这一革新的基石。

第四，最近，基于文化同质性的大众文化交流非常活跃，互相交流文化内容。有鉴于此，可以说东北亚文化共同体构想将是东北亚各国相互理解和合作的坚实的基础。

第五，东北亚文化共同体构想有着通过东北亚国家集体文化的革新确保世界竞争力的名分，追求各国文化革新所带来的实际利益的战略是这一共同体的基础，因此可以为各国的繁荣和和平做出贡献。

Ⅲ. 参与政府的东北亚时代构想和东北亚文化合作

提倡参与政府的卢武铉总统当选总统后，“志向和平与繁荣的东北亚时代”构想浮出水面，提升到国政议题。但参与政府的东北亚时代构想中，尤其是在执政第一年，几乎找不到东北亚文化合作或东北亚文化共同体构想等政策。纵观参与政府东北亚时代委员会的“构建东北亚共同体”在社会文化交流方面提出了以下具体课题：

1. 探讨东北亚文化特性；
2. 构筑东北亚非政府组织联络网；
3. 培养东北亚未来领导人，等等。

但人们批评这些提案只不过是口头上的宣言，并不包括适合文化交流的丰富的内容。实际上，参与政府从上台至今，还没有正式提出以东北亚文化为主题的政府的交流合作方案，东北亚时代委员会的组织也缺乏有组织的，制度上的，财政上的基础设施。但我们要认识到，如果忽视文化合作的重要性，东北亚经济中心构想很难获得效果。交易关系以及追求利润为主的关系如果没有经济利益很难持续下去，相反，文化交流关系通过各种渠道可以继续维持下去，而且可以增进相互理解，有助于消除相互之间的隔阂。特别是当一个文化的内容先进优越，这种文化所具有的影响力会在政治、经济、社会等所有领域表现出其价值。

IV. 韩国在东北亚文化共同体构想中能够起到的作用

1. 构筑合作框架和战略性推进机制

东北亚文化共同体构想大致可分为东北亚国家之间的共同合作部分和国内的部分。构筑东北亚文化共同体最重要的是吸引各国参与，因此探讨可以说服他们的前景和理论，摸索可保护各自名分和利益的方案非常重要。这些工作最好通过以韩国、中国、日本为中心的东北亚文化中心构想来实现。

也就是说，不是韩国一个国家成为轴心，东北亚文化共同体构想应以东北亚三国为主轴，共同研究具体的战略和对策。

这样，可以证明通过这一构想，韩中日三国作为东北亚文化革新的中心，可以提高东北亚文化的竞争力，而且能够与欧盟等其他地区的文化合作和交流为全世界和平和繁荣做出贡献。当然，截至东北亚文化革新集群具备雏形，应由提倡东北亚构想的韩国主导所需工作。

另外，韩国需要制定应对东北亚文化共同体的战略目标和对策，创造出在东北亚共同体具有竞争力的文化价值。而作为战略方案，组织联合国内主要大学、产业、文化界人士的国内文化革新集群也是可行的方法。聚集在特定地区的，直线或横向联系的集群发达的话，不只是在经济方面，信息和知识的传播效果也会扩大。韩中日三国成为文化共同体的主体，将东北亚文化共同体定位为世界划时代的文化中心，这在带动东北亚国家的合作方面起到很大作用。

同时，参与国家应各自形成覆盖有文化竞争力的国能城市、企业

以及专家的文化革新集群，积极搞活创造高水平文化的项目。因为东北亚文化共同体的实质内容是以各国的文化基础设施为基础的。

2. 将东北亚文化共同体提升到国家议题并建立执行机构

为实现和实践东北亚文化共同体构想，首先要把这个构想选为国家议题。为了使参与政府的东北亚时代委员会将东北亚文化共同体构想选为国家事业，将它提升到与经济议案同等的高度，我们要创造相应的条件。东北亚文化共同体构想不提倡以本国为中心，这是引导周围国家合作和参与的共同体思想，可以带动韩中日三国的合作。因此，需要尽快把它定为国家议题，并设立执行机构去推进。另外，要设置和支援由从事各种文化领域工作的专家、学者、企业家、舆论界人士、市民等组成的合作组织，促进民间的交流合作，搜集有创意的好意见。

3. 开发实现东北亚文化共同体的政策和研究课题

最早认识到东北亚文化同通体的重要性，并且限于其他政府机构钻研探讨的是韩国人文社会研究会。

韩国人文社会研究会下属机构有统一研究院、韩国行政研究院、韩国教育开发院、韩国女性开发院、韩国青少年开发院、韩国法制研究院、韩国刑事政策研究院、韩国教育评价院、韩国职业能力开发院。这些研究机构的人力和工作为东北亚文化共同体政策开发提供了直接或间接的有利环境。如果人文社会研究院属下的研究员在各自的领域为建设东北亚文化共同体进行更具创意的战略性政策开发，将会为国家发展做出很大贡献，同时也为找到

正当性创造好机会。

尤其重要的是将《东北亚文化共同体构想：合作框架的构想和战略性推进体系》所提出的各种主题连接到符合各自研究特点的政策研究。

当东北亚文化共同体构想所具有的重要性和实用性延续到国家政策课题的挖掘，那么这一构想就会被注入生命力。当然，为了开发国家主要政策课题而设立的智库 国策研究机关需要通过开发文化共同体构想的实践课题，着手确定研究所的工作范围和存在的意义。人文社会研究会从2003年6月初开始讨论构筑东北亚文化共同体的问题，并和国策研究所进行合作。此后2004年两个研究所分别发掘了可推进政策的课题。

为了构筑东北亚文化共同体需要解决以下政策课题：

- 1) 普及和平文化的东北亚合作方案；
- 2) 东北亚共同体预防犯罪战略；
- 3) 未形成东北亚文化共同体政府之间进行政策交流与合作；
- 4) 通过修改历史教科书促进相互理解；
- 5) 为东北亚共同体的形成和合作开发人力资源；
- 6) 为东北亚共同体的形成构筑法律制度；
- 7) 为东北亚共同体的形成进行妇女人力资源交流；
- 8) 为东北亚文化共同体的形成进行青少年交流；
- 9) 为东北亚和平共同体的形成制定教育政策；
- 10) 寻求东北亚的东方价值和文化的同质性；
- 11) 为东北亚文化共同体的形成进行文化产业交流；
- 12) 为东北亚文化共同体的形成进行旅游交流。

社会研究会和其管辖的研究所机构进行的这些协同研究事业，尽管到目前还停留在讨论阶段，但今后通过更深入的探讨和研究可以发展成很现实的有用的政策课题。

这些人文社会研究会的努力不仅为东北亚三国真正的和平与繁荣提供文化合作的机会，也有助于国家课题——东北亚时代构想。今后如果东北亚文化共同体的构想成为国家议题，并且集中外交努力和国内力量，那么东北亚文化共同体的构想将会通过韩中日三国政府、文化机构和文化团体、研究机构、大学、舆论、城市、非政府团体等各方面的合作发挥真正的价值。

最后，在构建和平与繁荣的东北亚文化共同体的构想中不可或缺的主题就是通过南北韩文化合作努力实现和解与合作。因为，在南北韩尖锐对峙的情况下，任何有关东北亚的政策主题都不可能实现。为了南北韩的和平与繁荣，恢复文化共同体意识，在文化价值方面互相竞争，通过这些过程创造高水平的文化，这会为韩半岛占据在东北亚以及全世界具备竞争力的文化先进国地位打下基础。

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と韓国の役割 <要約>

全永評

I. 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構想の背景と意義

北東アジア三国が平和に基づき、相互繁栄の道を見つけ出すことは、待ったなしの時代的な課題である。特に、北東アジア諸国のうち最も大きな被害を受けている韓国にとって、北東アジアの文化における同質性に基づいて平和と繁栄に向けた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を築こうという主張は大義名分の確立や国内文化の革新に向けた国家発展戦略づくりにおいても大きく貢献するだろう。北東アジア三国による協力は各国の経済的な利益をはじめ、相互平和や繁栄にも大きく役立つということのはっきりとわか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北東アジア共同体づくりに向けた努力はそれほど目に見える成果を上げていないということは互いにとって不幸なことになりかねない。しかし、北東アジア共同体構想が経済協力共同体にとどまってしまうのは、経済関係の性格上、不公平な関係になり、経済的なトラブルの原因ともなり得る。従って、北東アジア三国はほとんどの人間行為や文明形成の底にある文化的な要因の重要性を確かめ、文化の同質性に基づく文化交流を通じて「文化共同体づくり」についての話し合いを行うべきである。

II. 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の意味と期待効果

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は韓国、日本、中国をはじめとする北東ア

ジア諸国が文化の同質性や精神の共通性に基づいて、現代における互いの文化的な個性を尊重しつつ、世界の人々に共感してもらえる普遍的な価値観を模索しながら、より密接な相互理解や共同利益をはかる公式・非公式の連帯体制を意味する。

それによる期待効果としては、以下のようなことが挙げられる。

第一に、グローバル化と地域統合が進んでいる今日の状況を見ると、まだ地域共同体のない北東アジアにおいて文化共同体に向けた努力が実を結べば、それは北東アジアの平和や繁栄につながる精神的な礎となるだろう。

第二に、北東アジアの統合のためには、先ず容赦と寛容、和解と協力を目指す平和的なムードづくりが欠かせない。文化共同体づくりに向けた努力は文化の同質性に基づいて民間中心の実質的な交流・協力を可能にし、北東アジア諸国の和解や協力、平和づくりにも貢献するだろう。

第三に、各国が打ち出している北東アジアの経済におけるリーダー役計画は一国中心の発展計画であるという批判に直面している。激しく展開される経済利益中心の発展主義的な宣言より、北東アジアが文化の面で共に発展していき、高いレベルの文化的革新という形で各国がその恩恵を享受することができる文化革新が必要である。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はそのすばらしい礎となるだろう。

第四に、最近、文化の同質性に基づく大衆文化の交流が活発になり、文化コンテンツの交流も拡大している現状をみると、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構想は北東アジア諸国の相互理解や協力においてすばらしい礎となるだろう。

第五に、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構想は北東アジア諸国の集団的な文化革新による世界競争力の確保という大義名分と共に、各国の国

内的な文化革新を実現するという実益追求の戦略に基づいているため、北東アジア諸国の合意による相互繁栄や平和に貢献できるだろう。

III. 参与政府の北東アジア時代構想と北東アジア文化協力

いわゆる「参与政府」を唱えた盧武鉉大統領の当選によって「平和と繁栄に向けた北東アジア時代構想」は国政の全面に浮かび上がった。しかし、この構想では(特に1年間は)北東アジア文化協力や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構想といった政策がほとんど見当たらない。参与政府の北東アジア時代委員会の「北東アジア共同体構築」分野をみると、社会文化交流の分野があり、その細かい課題としては1)北東アジアにおける文化アイデンティティの模索2).北東アジアNGO連携網の構築3)北東アジア未来指導者の養成などを挙げている。

しかし、この提案は宣言的なレベルにとどまっており、文化交流に適した、豊富な中身はないと批判されている。実際に、参与政府がスタートしてから今まで、一回も北東アジアの文化をテーマにした政府レベルでの交流・協力策が公式的に打ち出されたことはない。さらに、北東アジア時代委員会の構成をみてもこれを下支える組織、財政、インフラは見当たらないのが現状である。しかし、北東アジア経済中心構想も文化協力という認識に欠けていては、大きな効果は期待できない。取引による関係や利益指向の関係は経済的な実益が得られないと継続できない。しかし、文化交流による関係は様々なチャンネルから継続できるだけでなく、より一層の相互理解を通じてギクシャクしている関係を解消することにおいても役立つ。特に、文化の内容が優秀であれば、その文化のもつ影響力は政治、経済、社会の全ての領域で真価を発揮するだろう。

IV. 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構想における韓国の役割

1. 協力の枠組みと戦略的な推進システムの構築

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構想には、大きく分けて北東アジア諸国との共同作業が必要な部分と国内作業がある。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の構成は参加国を確保することがもっとも重要であるため、彼らを説得できるビジョンや論理づくり、相互の大義名分や利益が保てる方策を模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は主に韓国、日本、中国を中心とする北東アジア文化HUB構想を活用した方が望ましいと考えられる。

つまり、韓国だけが中心となるのではなく、北東アジア三国が共同軸となる文化共同体構想として位置づけ、具体的な戦略や代案を共同開発した方が望ましいということである。これによって、韓国、日本、中国は北東アジア文化の革新的なHUBとして北東アジア文化に世界競争力をもたせることはもちろん、欧州連合などの他地域のブロックと文化協力および交流を進め、世界平和と繁栄に貢献するということを世界に示す大掛かりな構想としてのスタンスも確保できる。言うまでもなく、北東アジア文化革新クラスターの形作りが終了するまでの役割は北東アジア構想を提案した韓国が担うべきであろう。

一方、韓国は国内的に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の構築に備えた戦略的目標と代案づくりに重きをおき、取り組んでいく必要がある。北東アジア共同体内では質の高い競争力をもつ文化価値を作り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に向けた具体的な戦略策としては、韓国の主な大学、産業、文化人からなる国内文化革新クラスターを組織するのも一つの有効な方法になるだろう。ある地域に横割り・縦割りの

緊密な関連性をもつクラスターが発達するようになれば、経済はもちろん、情報や知識の普及効果も一層高まる。韓国、日本、中国を文化共同体の共同主役とし、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をグローバル化時代における文化HUBと位置づけるという方法は北東アジア諸国の協力を導き出すのに大きく貢献するだろう。

一方、参加国においては、それぞれの文化競争力のある国内都市や企業、専門家を網羅した文化革新クラスターを組織し、高いレベルの文化づくりにつながる努力を試みるプロジェクトの運用が必要となってくる。これは「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の中身というものは結局それぞれの文化インフラづくりによるものである」という平凡な事実に基づいている。

2. 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の国論化と実行機構の組織

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構想の実現においては、何よりもこの構想の国論化が重要である。つまり、参与政府の北東アジア時代委員会が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構想に対して、これは国家レベルで取り組むべき事業だと位置づけ、経済的な事業と同じような進め方ができるよう、その環境づくりに取り組まなければならない。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構想は、自国が中心となることを強調するためではなく、自国を取り巻く周辺国の協力や参加を導き出すという共同体思想であるため、韓国、日本、中国による三国協力が重要である。従って、これを早期に国家レベルでの議論テーマに取り上げ、推進を担当する実行機構を設立しなければならない。一方では、多様な文化領域に携わる専門家、学者、企業家、マスコミ関係者、市民などからなる協議機構を発足させ、民間レベルで創意的なアイデアや交流・協力が発展できるよう、支援する必要がある。

3. 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の実現に向けた政策および研究課題の開発

韓国で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構想の重要性をいち早く認識し、他の政府機構に先立って議論を始めたのは韓国人文社会研究会である。韓国の人文社会研究会は統一研究院、韓国行政研究院、韓国教育開発院、韓国女性開発院、韓国青少年開発院、韓国法制研究院、韓国刑事政策研究院、韓国教育評価研究院、韓国職業能力開発院などの傘下機関をもっており、これらの研究機関の人材や業務は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に向けた政策開発に直接的かつ間接的に活用できる関わりをもっている。これらの傘下機関に属する研究員がそれぞれの分野で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の実現に役立つ創意的かつ戦略的な政策を開発することは、国の発展に大きく貢献するだけでなく、正当性の確保にも良きチャンスを与えるだろう。特に、「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構想：協力の枠組み構想と戦略的な推進システム」で提案された様々なテーマについて、それぞれの業務に合わせた政策研究を発展させていくことも重要である。

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構想の重要性と有効性は国家レベルでの政策課題開発につながってこそ、働きはじめる。当然ながら、国の主な政策課題を開発するために設立された政策think-tankの国策研究機関は文化共同体構想の実践課題を開発し、研究所の外延や正当性の確保に取り組むべきである。人文社会研究会議による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の構築に向けた議論展開と傘下国策研究所の協力は2003年6月初から本格化し、その結果、それぞれの研究所ごとに2004年度の政策推進課題が開発された。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の構築に向けた細かい政策課題としては 1) 平和文化の定着に向けた北東アジアの協力方策 2) 北東アジア共同体の犯罪防止戦略 3) 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の構築に向けた政府政策間の交流・協力 4) 歴史教科書の改善に

よる北東アジア諸国の相互理解 5)北東アジア共同体の構築と協力に向けた人材開発 6)北東アジア共同体の構築に向けた法・制度づくり 7)北東アジア共同体の構築に向けた女性人材の交流 8)北東アジア共同体の構築に向けた青少年の交流 9)北東アジア平和共同体の構築に向けた教育政策の課題 10)北東アジアにおける東洋の価値と文化の同質性推進 11)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の構築に向けた文化産業の交流 12)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の構築に向けた観光交流戦略などが提案された。人文社会研究会と担当研究機関の間で進んでいるこのような共同研究事業は、まだ基本的な議論段階にすぎないが、今後、より深みのある話し合いや見直しによって現実味のある有効な政策課題として発展できると考えられる。

このような人文社会研究会の努力は、北東アジア三国の真の平和と繁栄に向けた文化協力を可能にする場をもうけるものであると同時に、国家課題である北東アジア時代構想にも役立つものである。今後、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構想が国策のテーマとなって、外交的な努力や国内的な力量が集中できれば、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構想は韓国、日本、中国の政府や文化機関および文化産業体、研究機関、大学、マスコミ、都市、NGOなど、様々な分野での協力によって真価を発揮するようになるだろう。

最後に、平和と繁栄の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構想において欠かせないテーマは、韓国と北朝鮮の文化協力による和解と協力への努力である。北東アジアにおいて韓国と北朝鮮が鋭く対立している中では、いかなる政策テーマも可能性を失ってしまう。韓国と北朝鮮による平和と繁栄に向けた文化共同体意識の回復や文化価値の相互競争を通じての質の高い文化づくりは、今後、朝鮮半島が北東アジアを越え、世界を舞台に競争力を発揮する文化先進国になる上で確固たる礎となるだろう。

발전에 대한 인간적 접근
: 중국측 견해

황 핑

커뮤니티 재건에 대한 인간적 접근법

1. 사고의 전환

- A. 예를 들어 지리적이거나 또는 경제적이거나 한 가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1차원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인 접근법으로 전환
- C. 이슈/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문화적인 접근법으로 전환
- D. 상부 하달식의 행정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전환

2. 커뮤니티란 무엇인가?

- A. 사회적 또는 문화적 공간으로서 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함
- B. 자연 지리학적인 위치, 사회 정치학적인 상황, 그리고 언어, 삶의 방식 또는 사고 방식과 같은 문화적 유대감을 이유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함
- C. 커뮤니티는 반드시 가시적인 것만은 아님
- D. 어떤 기본 합의에 따라 커뮤니티를 설립할 수도 있고 재건할 수도 있음

3. 현대에도 커뮤니티가 가능한가?

- A. 다른 수단을 통해 서로를 알고 있음
- B. 서로 다르지만 함께 공존함
- C.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관계를 수립함
- D. 다양한 선을 넘어서 불가능한 것을 상상함

4. 커뮤니티의 “지표”

- A. 서로 공유하는 아이덴티티, 대부분의 경우 다수가 있음
- B. 안전하다는 느낌, 꼭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안보를 말하는 것은 아님
- C. 최소한의 연대의식, 일상생활에서는 연대의식이 별로 드러나보이지 않지만 위기나 힘든 상황이 닥치면 집단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함

5. 왜 재건해야 하는가?

- A. 근대: 커뮤니티에서 사회로
- B. 포스트모더니티(탈 근대): 민족국가에서 “지구촌”으로
- C. 사회적 배척의 문제: 저개발국, 가난한 사람, 소수민족, 여성, 장애인, 기타 등등

6. 난관

- A. 시장 근본주의
- B. 시공간 거리화
- C. “테러와의 전쟁”

7. 신뢰의 커뮤니티

- A. 경제적 성장/경쟁 그리고 사회적 응집력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 B.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 C. 사회/문화 안전 망의 분열 또는 최악의 경우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 D. 환경 친화적인 삶의 방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8. 아시아에 있는 커뮤니티, 또는 아시아 커뮤니티?

- A. 역사적인 이유와 제약들: 과거와 미래
- B. 미래 지향적인 시각
- C. 타인으로부터 배우기 (타산지석)
- D. 다수의 커뮤니티, 평화로운 차이 (서로의 차이점 이해)
- E. 도시-국가-지역-지구촌 네트워크/링크

A humane approach to community-rebuilding 共同体重建的人文视角

Huang Ping 黄平

CASS, China
中国社会科学院

October, 2004

1. Paradigm Shift 范式转换

- **A. from one-dimensional, for instance, geographical or economic, to a more multi-dimensional approach** 从单一的(例如,地理的或经济的)视角转向多维视角
- **B. from “scientific” to a more cultural approach to issues/problems** 从“科学的”转向文化的视角
- **C. from administrative, in many cases top-down, to communicative, usually, people-to-people** 从至上而下的管理转向人与人的沟通

2. What is the community?

何谓共同体?

- A. A social /cultural space by which people organize themselves as a group;**
- B. A group of people can be formed as a community because of natural geographical location, of socio-political settings, or of cultural ties –language, way of living and thinking , etc;**
- C. A community does not necessarily be visible**
- D. A community can be built, or rebuilt, according to some basic consensus**

3. Is a community possible in modern time?

现代社会共同体还有可能吗?

- A. Knowing one another by different means;**
- B. Being together, while remaining differences;**
- C. Building up a relationship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such differences;**
- D. Imagining the impossibility, beyond various boundaries**

4. “indicators” of the community 怎样“测量”共同体?

- A. A shared identity(身份认同), which in most cases is multiple
- B. A sense of security(安全保障), which does not have to be political, nor even military
- C. A minimal solidarity(有机团结), which in daily life does not seem obvious but whenever there is a challenge or crisis, there is a collective interaction

5

5. Why re-build? 为什么是“重建”?

- A. Modernity: from community to society(原来的共同体演变为有组织的社会)
- B. Post-modernity: from Nation-state to the “Global Village” (后现代的挑战: 民族国家建设与地球村)
- C. Problem of social exclusion: the south, the poor, minority, women, the disable, et al (社会排斥问题)

6

6. Challenges 挑战

- A. Market Fundamentalism
- B. Time-Space Distanciation
- C. “War on Terrorism”

?

7. A Community with trust 互信的共同体

- A. To balance economic growth/competition and social coherence (协调经济发展 / 竞争与社会整合)
- B. To maintain daily life under whatever conditions (在极度困难时维系社会日常生活)
- C. To prevent disintegrations or even collapse of social/cultural safety net (防止社会的解体与崩溃)
- D. To ensure an environmentally friendly life-style (确保有利于环境的生活方式)

8

8. A Community in Asia or The Asian Community?

- A. Historical reasons and constraints: The past as the future(以史为鉴)
- B. Future-oriented perspective(向前看)
- C. Learning from others(他山之石)
- D. Multiple community, Peaceful differences (多元一体, 和而不同)
- E. City-State-region-the global network/links
城市—国家—区域—全球网络与互联

9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가능성

니시카와 나가오

이와 같은 뜻깊은 국제학회에 초대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명예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동아시아 협동체나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이름으로 동북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 대하여 침략을 자행해 왔던 역사의 기억이 있는 저희 일본인들에게 동북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문화적이라는 형용사가 붙는 다하더라도 복잡하고 미묘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피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현실을 직시하여 무엇인가 구체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는 오늘날 이 말을 피해 지나가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에서의 다양한 제언에 호응하는 형태로 지난 몇 년 동안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어, 강상중(姜尙中)의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목표로』(평범사, 2001년)나 와다 하루키(和田春樹)의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평범사, 2003년) 등 진지하고 성실한 그러면서도 동시에 복잡한 문제를 내포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언은 주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만약 동일한 문제를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발언에 입각하여,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로부터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회의 테마를 보고 제가 떠올린 것은, 『지중해』의 저작으로 알려진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역사가 페르낭 블로델(Fernand Braudel)의 최후의 작품 『프랑스의 동일성(identity)』(Fernand Braudel, L'identité de la France, 1990)의 서문에 기록한 다음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블로델은, 이것도 저명한 프랑스의 중세사가 마르크 블록(Marc Bloch)의 “프랑스의 역사란 없다, 존재하는 것은 유럽의 역사뿐이다”를 인용한 것입니다만, “유럽의 역사 등은 없다, 존재하는 것은 세계의 역사뿐이다”라고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블록이나 블로델의 이러한 말은 유럽연합의 전개나 글로벌화의 진전을 볼 때, 대단히 설득력있는 호소력을 갖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것을 모방하여, 예를 들면 “일본사나 한국사 등은 없다, 존재하는 것은 동아시아사 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고대사가들 중에는 그와 같이 여기고 있는 사람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근대에 있어서는 어떠할까요? 또 한 걸음 나아가, “동아시아사 등은 없다, 존재하는 것은 세계사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블로그나 블로그텔이 자국의 역사에 대하여 던진 이 질문이 우리들이 오늘 여기에서 논하려고 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에 가까운 또는 오늘날 우리들이 피해 지나갈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역사적 또는 지정학적인 차이를 들어, 이 질문에 대한 회답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확실히 중세의 유럽은 기독교의 지배하에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확대 EU로부터 이슬람교국의 터키(Turco)를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면, 기독교가 유럽통일에 기여한 역할의 중대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의 문화권이라고 한다면, 동아시아는 이미 오래전에, 고대로부터 광대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동아시아나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명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북아시아든 동남아시아든, 또는 아시아나 유럽이든, 특정한 지역에 부여된 명칭은 많은 경우, 정치적 경제적 의도를 배후에 숨긴 이데올로기적 명칭입니다.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만약 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우선,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의 여러 나라가 인접하여 고대로부터 긴 교류와 투쟁의 역사가 새겨져 있는 지역이고, 거기에서는 한반도가 여러 나라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을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부가하자면 부친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강계(江界)에서 태어나 일본 제국주의의 발전과 함께 조선—만주의 각지를 전전하며 유소년기를 보내고, 패전후에는 소련군의 점령하에 있던 북한에서 1년 가까이 억류되

어, 지금으로 말하자면 난민신분으로 철수되어 왔던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생애에 직접적으로 얽혀왔던 지역입니다.

블록이나 블로텔의 이 말은 단지 한나라의 역사와 지역사 또는 지역사와 세계사의 관계를 문제로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근대에 형성된 역사 개념 또는 역사학의 본래 모습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대적인 역사의 개념은 국민국가의 산물입니다. 역사의 기본은 일국(一國)의 역사(national history)입니다. 그것은 근대 역사학의 형성 과정을 보거나 또는 실제로 출판된 역사 작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1991년에 출판한 『상상의 공동체』(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1983) 증보판의 마지막 장에서 근대의 역사를, ‘국민의 전기(傳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이나 블로텔의 이 말은, 이와 같은 일국사(일(一國史)적 역사개념의 부정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지중해』로 출발한 블로텔의 최후의 저작이 『프랑스의 동일성(identity)』이라는 것은 흥미로운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문화공동체를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 역사를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반론도 예상됩니다만, 이에 대한 재반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대적인 문화 개념은 국민국가 형성기인 18세기의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 국민이나 민족 또는 역사와 일체의 개념으로서 형성되어, 대부분 주권국가의 구조를 베끼고 있다고 말해도 좋기 때문입니다. 즉 백여개라고 하는 문화의 정의에서 공통점을 추출해 보면, 특정한 집단의 독자적인 생활 양식에 역점을 두건, 또는 가치나 심볼체계에 역점을 두건 간에 문화란 특정한 영역 내의 공통성과 다른 영역과의 이질성(배타성)을 전제로 하고, 경계내의 균질성과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 경계외와의 이질성과 커뮤니케이션의 불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렇듯 문화란, 국민문

화를 의미하고 국가명 다음에 문화를 붙입니다. 중국문화, 한국문화, 일본문화, 러시아문화, 미국문화, 프랑스문화라고 하는 표현이 일반화 되고 외국인은 일본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언설이 당연한 것처럼 널리 퍼지는 것입니다. 문화공동체의 모델은 민족(국민) 국가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에 입각하여, 민족이란 문화의 담당자이고, 문화란 민족과 모습이라고 하는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국민과 문명이 지배적인 선진 여러 나라(프랑스, 영국, 미국)에 있어서는 국민이란 문명의 담당자이고, 문명이란 국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쓰여진 문화, 문명, 민족, 국민 등의 말은 다른 과학 기술이나 철학의 용어와 마찬가지로 근대화에 즈음하여 19세기 중반, 주로 에도 막부시대의 말기·메이지(明治)기의 일본에서, 유럽어에 대한 번역어로 만들어져, 한자권의 여러 나라에 역수입된 역사를 갖는 용어라는 점을 부가해 두고 싶습니다(서구의 문명과 문화, 국민과 민족 등의 국민 국가에 관계된 용어와 개념의 형성, 그러한 용어의 일본에서의 번역과 한자 문화권에 보급된 경위에 관해서는 다음의 저작을 참조 하여 주십시오. 이 중 처음의 것은 이미 한국판이 나와 있고, 나머지 2권도 곧 출판된다고 들었습니다).

- (1) 『國民國家論の射程,あるいは 國民という怪物について』柏書房, 1998年.
- (2) 『地球時代の民族=文化理論一脱『國民文化』のために』新曜社, 1995年.
- (3) 『増補・國境の越え方—國民國家論序說』平凡社ライブラリー, 2001年.)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에 관한 세 개의 고찰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에서 말씀드린 고전적인 문화개념의 재검토입니다. 문화개념이 그 형성기에 들어온 자기 중심적, 고립적, 배타적인 경향은 극복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일 민족신화가 뿌리 깊은 일본이나 한국에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이것이 강하다고 한다면, 이 경향은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에 공통된, 세계의 제 지역 가운데에서 두드러지는 특색일지도 모릅니다.

원래 저는 문화상대주의나 다문화주의에 찬동하지 않습니다. 문화상대주의는 개별적인 문화에 고유의 가치를 주장함으로써 타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는 효과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권국가의 이미지를 투사하고 있고, 배타적, 고립적인 문화 개념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저는 문화상대주의가 문화의 교류나 혼합 또는 이 문화 이해의 이론화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국시가 되었고 아메리카에서도 계속 정착하고 있는 다문화주의는 역사의 대전환기(서구 중심주의의 종말)를 나타내는 대변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심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다문화주의는 문화상대주의와 마찬가지로 문화개념의 배타적 고립주의적 경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론대로라면 무수한 미니(mini) 국가(nation)의 형성이라는 길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문화주의는, 구(舊)대영제국의 식민지에서 지배적이었던 이민집단(백인)이 이미 지배적일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한 개혁입니다만, 선주민의 토지를 빼앗은 그들이 여전히 그 토지에서 계속하여 살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 어떠한 권리에서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충분히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는 문화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참조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진행 중이고 공통교과서의 시도나 대학의 단위 교환성, 각국의 학생들에게도 개방된 대학의 설립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역 내에서의 이동의 자유는 시간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 형태나 가족형태 또는 동일성과 같은 의식 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문화주의나 다언어주의가 강

조되어 소수 언어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한편으로, 복지제도의 후퇴나 빈부 격차의 증대가 우려됩니다. 또 지역 외로부터의 이민에 있어서 조건이 개선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역 내의 각국의 국경이 낮아진 부분만큼, 지역 밖과의 국경은 높아집니다. EU와 유럽각국의 이민 정책을 보면, 이들 구(舊)종주국은 EU를 구실로 여전히 옛식민지 잔제로부터 고통받는 구 식민지를 잊으려고 하는 인상을 줍니다.

이렇게 세계의 다양한 지역을 둘러보면 참고해야 할 점이 많지만, 단일모델이 없다고 하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은, 그 지역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찾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화주의를 논할 때에, 저는 지금까지 몇 번인가,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훨씬 풍부하고 역사적으로도 긴 다문화주의적 실천을 이루어 온 아시아나 아프리카가 화제가 되지 않는 것은 왜인가라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 질문에는 다문화주의에 얽힌 언설의 이데올로기 성을 문제로 하는 동시에, 서구적인 문화개념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이기도 합니다. 민족이나 국민성, 전통이나 국민문화로 귀착하는 고정적, 배타적 문화개념이 아니라 이동과 교류를 축으로 하는 문화개념을 생각해볼 수는 없겠습니까? 실제로 역사학자나 문화인류학자는 이미 눈치챈 일입니다만, 문화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고 발전한 것은 고립된 깊은 산속이기보다는, 이질적인 것이 만나고 교류하는 열려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또는 깊은 산속이라 하더라도 여러 인간이 생활하고 외부에서의 방문객이 있었던 곳입니다.

두 번째는 전후(post war)와 식민지후(post colonial)의 문제입니다. 현 시점에서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경우, 이 문제는 지나쳐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 8월 15일을 일본인은 패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를 전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이 승리이고 해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 전후가 아니라 그 이후도 전쟁이 계속되고, 게다가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이 상황의 차이와 의식의 단절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의 9·11 이후, 특히 전쟁과 전후를 다소라도 경험한 우리 세대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제 2차세계대전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 아프가니스탄 공중 폭격이나 이라크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9·11의 테러가 아메리카에서는 일본군에 의한 진주만 공격을 떠올리게 하여 ‘진주만(Pearl Harbor)을 기억하라’는 구호가 널리 퍼지고 또한 일본에서는 이라크점령이 이전의 일본점령을 모델로 하여 행해졌다는 것이 알려짐으로써 전후란 무엇이었는가를 되묻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해인 2001년 3월에 번역이 나와 큰 화제가 된 존 도어의 『패배를 안고』(John W. Dower, *Embracing Defeat*, 1999)나 9·11 이후의 도어의 발언이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합니다.

존 도어는 이 책에서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 하에서 행해진 전후 일본의 민주적 재개혁은 모두 일·미합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미합작이란, 거기에 일본측의 자발적 협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그것은 또 일종의 식민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도어는 대군 맥아더의 부하들을 식민지 총독이라고 이름 짓고, 전후의 개혁을 신(新)식민지주의적 개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모델로 행해진 이라크점령을 이라크사람은 확실히 식민지화라고 의식하고 있는(예를 들면, 프랑스 신문, 3월 19일자 『리베라시옹』지와의 인터뷰 기사) 것에 대하여, 당사자인 일본인은 그것을 식민지화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유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일본인이 천황이나 권력자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맥아더 총사령관의 권위를 받아들인 점(긴 역사에 의하여 배양되었던 권위주의의 귀결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화를 대의(大義)로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식민지화를 식민지화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식민지화된 일본, 일본점령은 그 정도까지 성공한 점령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측에 그 성공을 확신시킨 것은, 그 후 고이즈미(小泉) 정권까지

계속된 일본정부의 자발적 협력이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냉전 체제와 아메리카주도의 한국전쟁에 의하여 일본 경제를 부흥시켰다고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베트남참전에 의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이, 이라크참전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관계인지도 모릅니다.

전후 일본은 연합군(실질적으로는 미군)의 점령하에서 권력과 정치적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아메리카에 맡기고, 구식민지의 전부를 포기하였으며 나아가 전쟁 포기를 명기한 평화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전쟁에 의하여(즉 한반도 주민의 희생 위에) 경제 부흥을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식민지의 기억을 잊었습니다.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의한 아시아 제 지역에서의 만행이나 주민의 피해를 잊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역에서의 관심이나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지역의 주민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소홀히 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이러한 경향은 지금도 계속되어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을 막는 중대한 요인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이나 그 밖의 나라들의 전후를 분석할 능력도 자격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유일하게 제안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 또는 그 밖의 동북아시아의 나라들과 일본과의 관계를 단지 대립적인 관계라고 보는 것만이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로서 보는 통일적인 관점과 넓은 시야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요소로 대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메리카에 의한 이라크전쟁과 일본점령 모델에 의한 이라크점령은 아메리카의 전후 정책을 새롭게 밝히는 계기가 되어 아메리카가 동일한 군사령관하에 일본-오키나와(沖縄)-한국에서는 각각 다른 점령 형태를 취한 것에 대한 의미를 되묻고 있습니다. 일본 본토에는 리버럴(liberal)한 민주화를, 오키나와에는 보다 식민지적인 군사기지화를, 한국에는 군사·독재적

인 꼭두각시 정권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점령이 대의명분이나 하나의 이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고, 아메리카의 세계정책의 일환으로써 현실적인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세 곳의 다른 형태의 점령은 각각의 역할을 갖고 서로 보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은 그것이 대미 관계 가운데에서 어떻게 주체적으로 스스로의 위치를 결정지을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식민지후(post colonial)라는 개념에 대하여 재고해볼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처음 포스트(post) 콜로니얼(colonial)이라는 용어는 제 2차세계대전 후 많은 식민지가 독립하고 국민국가 형성이 이루어진 역사적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쓰여졌습니다만, 현재는 식민지라고 하는 체제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식민주의적인 지배나 심성 또는 문화적 상황이 잔존하고, 형태를 바꾼 식민주의가 때로는 한층 강화되고 있는 사태를 가리키는 데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일본은 포스트 콜로니얼의 상태에 있다, 즉 장기간의 일본의 전후는 식민지후(post colonial)의 상태는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포스트 콜로니얼이론의 선구적 존재였던 에드워드 사이드는 『문화와 제국주의』(Edward W.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1993) 중, 아마도 가장 래디칼(radical)한 부분인, 「협력, 독립, 해방」에서 구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이 걸어왔던 길을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동아시아도 그 시야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이드에 의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협력」이란 제국주의의 존속은 그 희생자들의 협력 또는 비협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에 관한 사이드의 비판은 매서운데, 백인을 대신한 유색의 엘리트들이 식민지에서의 국가 체제와 권위를 그대로 계승하고, 그 모순이 강력한 내셔널리즘에 의하여 감추어진 것에 대하여 분노를 담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드는 파논의 최후의 저작 『땅에 주술을 부리는 자』(Frantz Fanon, *Les damnés de la terre*, 1961)를 인용하면서 “문화가 내셔널리즘(nationalism)의 독립투쟁의 영역으로부터 해방을 목표로 하는 이론구축의 영역으로 크게 이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해방을 목표로 하는 이론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후 세대의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사이드의 설을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의 이러한 포스트 콜로니얼적 상황속에서 자기존재를 자리매김하는 것은, 다음에서 말하는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글로벌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또는 미래에 하나의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려면 글로벌화에 대한 고찰과 대응이 불가결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글로벌화에 관하여 몇 개인가의 시론을 발표했습니다만, 이 복잡하고 복합적인 현상을 짧은 시간에 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서 동북 아시아 문화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글로벌화가 제2의(또는 새로운) 식민주의가 되지 않기 위한 궁리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제안을 하는 것으로 논의는 마무리하고, 한두 가지 정도 에피소드적인 화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중 하나는 금년 3월, 조사 여행차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장벽의 철거지를 따라서 걸었습니다만, 벽 양측으로 이어지던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지는 깨끗하게 제거되고, 선진 여러 나라의 자본이 북적거리는 거대한 개발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를린의 벽을 붕괴시킨 것이 무엇이었던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결국 자본의 힘이고 글로벌화가 아니었는가하는 것이 제 스스로 이끌어 낸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터키인의 거주지인 구(舊) 동독지역도 방문했습니다만, 독일의 통일이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9월 초 몇 사람의 건축가 그리고 주거의 연구자들과 중국의 요동반도에 있는 대련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련은 1898년에 러시아가 조차하였고 러일전쟁 후는 일본의 조차지가 되었습니다. 구(舊) 시가지에는 러시아 거리가 있고, 또 만철(滿鐵) 등이 지었던 일본인 거주지도 있습니다. 패전 후 대련에서 철수한 일본인의 수는 20만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러시아인이 지었던 러시아 거리나, 일본인이 지었던 일본인 거리 모두 노후화되어 거의 대부분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러시아거리는 큰 길은 관광용으로 남겨져 있었지만, 뒷 골목으로 들어가니 무너져 내린 건물에서 알몸으로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폐품 줍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인거리 쪽은 대정기(大正期, 1912~1926)의 일본식 양옥이 많았지만, 아직 골조가 분명하여 중국인들이 중국풍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후화하여 붕괴직전인 예전의 고급주택가는 건물 내측이 제거되고 정원이 쓰레기터가 되어 부패물의 강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중국의 대련에서 러시아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무참한 말로를 그 고약한 냄새로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련 교외에는, 새로운 집합주택군이 나란히 늘어서고(그것은 일본의 어떤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대규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광대한 개발 지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집합주택군에서 흥미 깊었던 점은, 건물의 중간부분은 대부분 세계 공통의 집합주택을 생각하게 합니다만, 건물 상부는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상점이 나란히 늘어선 하부는 우리들 일본인의 눈으로 보면 바로 중국풍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것은 단독주택의 정원이었습니다. 정원에는 장미나 맨드라미 등 서양풍의 화단이 있고 연못에는 수련이 피어 있었지만 그

한편으로, 호리병박덩쿨이나 수세미덩쿨을 올리는 선반이 놓여 있어, 이(異)문화 혼합의 심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광대한 경제개발지구는 차로 둘러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일본 기업이 200사(社) 정도 들어가 있는 그 중의 한구역인, 중·일공업 단지를 방문하여 일본인과 중국인 두 사람의 관리책임자와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은 노동력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여직공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주로 내륙부의 농촌출신으로 고향에 호적을 둔 채 우리들이 보았던 집합단지에서 몇 해 혹은 그 이상도 체재하는데, 그 사이 번 돈은 시골의 가족에게 생활비나 학비로 보내고 결혼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가족에게 생활비나 학비를 계속하여 보냅니다. 드물게는 결혼을 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의 고급 단지를 살 수 있으면, 도시호적을 얻고 시골의 양친을 불러올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동거는 아니고 다른 단지에 살며 아이들을 돌보아준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제도화된 외지근무입니다만 이렇게 도시와 농촌의 또는 도시에 있어서 빈부의 격차는 점점 확대해 가는 것은 아닐까요? 일본이나 한국을 비롯하여 각국의 기업이 개발구에 참가하는 것은 다양한 우대 조치 외에 어쨌든 싼 임금 때문입니다만, 싼 임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일까요?

이 밖에도 대련에는 구시가지에 일본의 IT산업을 받아들여 제후를 도모하고 있는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일본어가 능숙한 기술자나 작업원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메리카의 IT기업이 노임이 1/5인, 인도로 이전하여 실리콘 밸리 기술자들의 대량 실업사태를 낳은 사례로 보고되었습니다만, 글로벌화에 의하여 세계적으로 되어 가는 움직임의 한 획을 대련은 짚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로서는 거의 백년 남짓의 역사밖에 갖고 있지 않은 대련시는, 새로운 타입의 글로벌도시로서 큰 매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문득 하나의 모델로 대련을 생각했습니다.

대련시의 시도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들의 문화공동체의 구상은 형성도상에 있는 이 매력적인 도시의 미래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东别亚文化共同体的形成可能性

西川长夫

1.

这次国际学术会议意义深远，能够应邀参加这次会议感到非常荣幸，再次表示感谢。对于日本人来说，因为过去在“东亚协同体”或“大东亚共荣圈”的名义下对东北亚和东南亚发动过侵略战争，就因为这段历史，“东北亚共同体”这个词，即使前面加上“文化”两个字，也是一个能带来复杂而微妙的反映的话题，让人心情沉重，想尽可能回避。但是今天，我们需要面对历史事实，需要寻找具体的解决方法，东北亚共同体是我们无法回避的问题。

关于这个问题韩国提出了很多提案，日本也积极响应，最近几年在日本成了热门话题。比如姜尚中的《走向东北亚共同之家》（平凡社，2001年）和田春树的《东北亚共同之家》（平凡社，2003年）等都提出了包含严肃、诚恳，同时复杂的问题的提案。这些主张主要是从政治或经济的角度提出的，那么从文化的角度思考又会如何？今天，我想以他们的主张为基础，从另一个角度探讨这个问题。

看到这学术会议的主题后，我想到了《地中海史》的作家，法国著名的史学家费尔南·布罗岱尔最后的作品《法兰西的特性》中他写的序言，他说“没有什么欧洲历史，存在的只是世界历史”。他的这番话引用了同样是著名的法国中世纪史学家马·布洛克的话，即“没有什么法国历史，存在的只是欧洲历史”。纵观欧盟的发展和全球化进程，布洛克和布罗岱尔的这些话无疑极具说服力和号召力。

可是我们能不能模仿他？能不能说“没有什么日本历史或韩国历史，存在的只是东亚历史”？不知道韩国和其他国家怎么样，但日本的古代史学家中有很多是这么认为的。那么在近代又如何？能不能进一步说“没有什么东亚历史，存在的只是世界历史”？

我认为布洛克和布罗岱尔对自己国家的历史的质问，提出了接近我们今天要讨论的问题的本质，而且是我们无法回避的问题。也许，我们不能以欧洲和亚洲的历史、地缘差异为理由，回避这个问题。但中世纪的欧洲确实在基督教的支配下连结成了一个世界。而且今天，基督教试图从欧盟排挤伊斯兰教国家土耳其的举动，使我们不难想象基督教在欧洲的统一上起到重要作用的中世纪。但是，如果把它当作是一个文化圈，那么是否应该说东亚早在这之前，在古代就形成了庞大的文化圈呢？但东亚或东北亚的地理界线或文化界线很难划分。因为不管是东北亚或东南亚，亦或亚洲和欧洲，很多特定地区的名称都是潜藏着政治或经济目的的受到意识形态影响的名称。不过为了讨论，如果一定需要界定，那么首先我要强调这个地区是中国、俄罗斯、韩国、日本等国聚集的地区，从古至今留下了悠久的交流历史和斗争历史，而韩国连接着各个国家，扮演了非常重要的角色。

说到我个人，因为我父亲是军人，我出生在北韩的江界，日本帝国主义兴起后，辗转朝鲜-满洲各地度过了我的少年时期。战败后在苏联占领的北韩被扣留了将近1年，后来以今天所说的难民身份回到了日本。所以对我个人来说，这个地区又是和我的人生直接相关的地方。

我认为布洛克和布罗岱尔的话不只是指一个国家的历史和地区历史的关系或地区历史和世界历史的关系，还对近代形成的历史概念或史

学的本来面貌提出了根本的问题。众所周知，近代的历史概念是国民国家的产物。历史的基本是一国历史。纵观近代史学的形成过程，或者已经出版的历史书籍就能知道。如安德森在1991年出版的《想象的共同体》(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1983)修订版的最后一章把近代历史叫做“国民的传记”。我认为这种说法不论是在理论上，还是在实际上都是正确的。布洛克和布罗岱尔的话与否定“一国史”历史概念也有着联系。(但有趣的是从《地中海史》出发的布罗岱尔最后的著作竟是《法兰西的特性》。)

可能有些人会反对，说我们研究的是文化共同体问题，不是历史问题。不过我要反驳他，近代文化概念是在国民国家形成时期，即18世纪后期到19世纪，作为与国民、民族或历史一致的概念形成的，可以说抄袭了大部分主权国家的结构。从一百多个所谓对文化的定义找出的共同点就是，不管重点放在某个集体的独立的生活方式上还是放在价值或象征体系上，文化是以特定领域内的共同点和与其他领域的排他性为前提，以界线内的同质性和沟通可能性与界线外的排他性和无法沟通的特点为前提的概念。

总之，文化意味着国民文化，所以文化两个字往往写在国名后面。因此中国文化、韩国文化、日本文化、俄罗斯文化、美国文化、法国文化这种说法非常普遍，人们理所当然地说什么外国人不能理解日本文化云云。文化共同体的模型是民族(国民)国家。过去我从这种历史现象出发，将民族定义为文化的主体，将文化定义为民族的形象。在国民和文明占支配地位的发达国家(法国、英国、美国)，可以说国民主导文明，文明就是国民表现出的形象。而且这里所说的文化、文明、民

族、国民等词汇象其他科学技术或哲学术语一样，是在近代化开始的19世纪中叶，在江户幕府时代末期到明治时代的日本，将西语翻译过来的，是汉字文化圈重新借用的术语。（关于西方文明和文化，国民和民族等国民国家方面的术语和概念的形成，以及这些术语在日本翻译并普及到汉字文化圈的背景，可以参考以下书籍，其中第一个已经有韩文版，另外两本书的韩文版也即将出版。

- (1) 『國民國家論の射程，あるいは 国民という怪物について』柏書房，1998年.
- (2) 『地球時代の民族＝文化理論一脱 「國民文化」 のために』新曜社，1995年.
- (3) 『増補國境の越え方—國民國家論序説』平凡社ライブラリー，2001年.)

2.

序论稍长了些。由于时间关系，下面我想从三个方面探讨东北亚共同体形成的可能性，并提出我的建议。

第一，重新检讨在前面说到的古典意义上的文化概念。我认为文化概念必须克服在形成过程中参杂的自我中心、孤立、排他倾向。尤其是单一民族神话根深蒂固的日本和韩国，这是很重要的问题。如果说中国和俄罗斯这种倾向也比较强，那么这也许是东北亚文化共同体共同的特点，在全世界都比较突出。

我不赞同文化相对主义或多文化主义。文化相对主义主张个别文化的固有价值，打破了对其他民族或人中的偏见。不过，在另一方面，它透射主权国家的形象，不能超越排他和孤立的文化概念。我认为文化相对主义与文化交流、文化交融或文化理解的理论化背道而驰。

我认为在加拿大和澳大利亚成为基本方针，并且在美国继续扎根的多文化主义，是象征历史大转变(以西欧为中心的格局告终)的大变革。但也有很多疑问。多文化主义与文化相对主义一样，没有克服文化概念的排他和孤立主义倾向，按照理论我想其最后结果是出现很多袖珍国家。而且多文化主义是在大英帝国的殖民地原本占支配地位的移民集团(白人)因为不能继续拥有支配权，所以进行的改革产物。多文化主义对于霸占原住民土地的白人“为什么，以什么权利一直居住在那里”这根本性问题还没有做出令人满意的回答。

我认为欧盟的各种尝试在文化领域有很多东西需要参考。目前这种尝试在进行当中，如共同教科书、大学的单位交换性、设立为各国大学生开放的大学等尝试仍将继续。区域内的移动自由可以缩短时间，而且会对居民的生活形态或家族形态以及同一性等意识形态带来很大的变化。但是，在强调多文化主义或多语言主义，保护小语种的同时，福利制度退步，贫富差距拉大令人担忧。而且我认为从地区外部移居到此的条件并没有得到改善。区域内各国之间的国境变矮了，但同时与区域外部世界的边境更高了。纵观欧盟和欧洲各国的移民政策，这些过去的主流国家给人留下他们在以欧盟为借口极力想忘却在旧殖民残骸中受到苦难的旧殖民地。

环顾世界各个角落就能发现很多可以借鉴的地方，可是没有单一模型。东北文化共同体的形成可能性只能从这个地区的历史现实中寻找答案。讨论多文化主义时，我多次提出疑问，为什么语言和文化更丰富，有着更悠久的多文化主义实践历史的亚洲和非洲没能引起关注？这个问题涉及到有关多文化主义的讨论之意识形态问题，同时也是对西方文化概念本身提出了疑问。我们能不能研

究以移动和交流为核心的文化概念，而不是归结为民族或国民性的，传统或国民文化的固定的、排他的文化概念。实际上，史学家和文化人类学家早就看出了这一点，文化这种东西不是在封闭的深山密林中产生和发展的，而是在各种不同的东西碰撞交流的开放的地方产生和发展的。即便是深山密林，也应该是很多人居住，并且有外部来访者的地方。

第二，战后和后殖民问题。我认为今天考虑东北亚文化共同体形成的可能性时，这个问题决不能忽略。日本人认为1945年8月15日日本战败，把以后的时期叫做战后时期。对于东北亚其他国家来说那是胜利那是解放，不过不都是战后时期。此后战争仍然继续，韩半岛分裂成了南北两个国家。我认为各自情况非常不同，意识差距也非常大。

2001年9·11事件发生后，接连发生了阿富汗空袭和伊拉克战争，让我们这些多少经历过战争和战后时代的一代人联想到第二次世界大战。尤其是911恐怖袭击使美国人联想到了珍珠港袭击，一时传开了“记住珍珠港”的口号。而在日本，人们获知这次占领伊拉克的军事行动是以占领日本的先例为模型之后，谈论开了什么是“战后”。同年3月在日本出版并成为热门话题的约翰·道尔的《拥抱失败：战后的日本》，还有9·11之后道尔的一些发言无疑给人们起到了影响。道尔在这本书上说在麦克阿瑟领导下进行的日本民主改革都是“日美合作”完成的。“日美合作”指的是日方自发地合作，这其实也是一种殖民化。事实上，道尔将麦克阿瑟的手下称作“殖民地总督”，将战后改革叫做“新殖民主义改革”。

可是虽然美国按照“日本模型”占领伊拉克，而且伊拉克人也断然认为这是殖民化(如法国报纸，3月19日 法国解放报Liberation的采访

新闻)，但当事人日本人并不认为这是殖民化。在这里我不具体分析为什么会这样，只想提两个问题。

第一，日本人就像接受天皇或执掌权力者的权威那样，接受了麦克阿瑟的权威。（这可以归结到在悠久的历史进程中形成的权威主义。）

第二，日本人将民主化当作大义接受的事实。日本被殖民化，却没有发觉这是殖民化，对日本的占领是这么的成功！让美国确信自己成功的是，此后直到小泉政府，日本一直在“自发地合作”的事实。当然我们不能否认冷战体制和美国主导的韩国战争恢复了日本经济。这可能类似于通过参加越南战争振兴经济的韩国受到向伊派兵压力的情况。

战后的日本在联合国（实际上是美军）的占领下将政治决策权（initiative）交给美国，放弃了所有旧殖民地，进而制定了放弃战争的和平宪法。尽管日本通过朝鲜战争（以韩半岛人民的牺牲为代价）发展了经济，但忘掉了旧殖民地的记忆，忘掉了在侵略战争和殖民统治过程中对亚洲各国犯下的野蛮行为和带给人们的伤害，也失去了对这些地区的关心和想象力。而且疏忽了和这些地区的人民建立正常的关系。尽管有例外，不过这是一般的倾向，这种倾向延续到至今，成了阻碍东北亚文化共同体形成可能性的重要因素。

那么韩国呢？我没有能力也没有资格去分析韩国或其他国家的战后情况。我在这里想提出的唯一建议就是，看待韩国和日本的关系，或其他东北亚国家和日本的关系时，是不是需要一个统一的观点和更开阔的视野，不把它看作是对立的关系，而是看成相互作用的关系。

美国的伊拉克战争和参考日本模式的对伊拉克的占领，使我们重新去思考美国的战后政策，对于同样处于美军司令下的日本冲绳和韩国采取另一种占领形态的意义。日本本土实施自由的(liberal)民主化，

在冲绳实现了更象殖民地的军事基地化，而在韩国设立了军事独裁傀儡政权。表明占领不是出于大义名分或某种理念，而是作为美国的世界政策的一环，出于现实目的进行的。三个地区不同形态的占领是不是意味着他们有着各自的作用，形成了互补关系。东北亚文化共同体形成可能性取决于在对美关系中怎样自主定位。

下面我提议，重新研究在东亚地区的后殖民这个概念。首先，后殖民指的是二战后很多殖民地独立，建立国民国家的历史状况。但现在指的是，殖民地体制终结后仍然残留着殖民主义支配或精神上的文化上的残骸，而且改变形态的殖民主义愈演愈烈的现象。在这个意义上今天的日本正处于后殖民状况，我想战后的日本是不是长期以来一直处于后殖民状况。

后殖民理论的先驱爱德华·赛义德的《文化和帝国主义》(Edward W.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1993)中最主要的部分“合作、独立、解放”，批评性地写出了从旧殖民地独立的国家走过来的路。主要的对象是中东和非洲的国家，但东亚也包括在里面。赛义德说，这里所说的“合作”是指，帝国主义的存亡与其牺牲者的合作或不合作。

对于“独立”赛义德做出了犀利的批评。他愤怒地谴责有色人种接替白人，在殖民地继承了国家体制和权威，而矛盾不会因强烈的国家主义而隐藏。

赛义德引用法农的最后著作《在土地施展魔法的人》(Frantz Fanon, Les damnés de la terre, 1961)，写道“文化从国家主义的独立斗争的领域转移到了建立将解放当目标的理论的领域”。至于将“解放”当作目标的理论都有哪些我就不细讲了，这时后人应该做的事。我不想全盘接受萨伊德的理论。但是在全球的后殖民情况下，为自己的存在定位，

对于提出全球化对应方针非常重要

第三，全球化。如果要在今天或未来构筑一个地区共同体，那么必须考察和因应全球化。关于全球化我已经发表了几个论文，这个复杂和综合性的现象很难在短时间内谈论，所以在这里我只想提个建议，为了构筑东北亚文化共同体，是不是应该先研究可以预防全球化成为第二(或者新的)殖民主义的对策。

我想提两个花絮作为我们考虑的话题，一个是今年三月，我为了调查和旅游访问柏林的时候看到的。当时我们沿着柏林墙拆除的遗迹漫步，墙的两侧穷人家的住宅都搬迁了，那里正由各国公司热火朝天地大搞开发。我不禁想到推倒柏林墙的是什么，那是不是资本的力量？是不是全球化？我们还访问了土耳其人居住的东德地区，在那里谁都可以看出德国的统一并没有成功。我们不得不又联想到了韩半岛的分裂和统一。

第二是9月初我和几位建筑家和居住文化研究人员访问中国的大连时看到的情形。1898年俄罗斯租借了大连，日俄战争之后大连成了日本的租借地。旧市区有俄罗斯街，还有满铁(南满铁道株式会社)修建的日本人居住区。战败后从大连撤走的日本人据说多达20万。俄罗斯人修建的俄罗斯街和日本人的日本人街都已经老化，破烂不堪。俄罗斯街作为旅游商品还保留着，但走进大街后面，发现在坍塌的旧楼里有人在光着身子睡觉，这里成了捡垃圾的人避风遮雨的地方。日本人街保留了很多大正期(1912 - 1926)的日式洋房，还比较坚固，有中国人居住。不过快要倒塌的高级住宅区内部已经拆除，院子变成了垃圾场，发出腐烂的恶臭。我们在中国大连看到俄罗斯帝国主义和

日本帝国主义的下场就如同这对垃圾场的恶臭。

不过大连郊区林立着新建的住宅区(那规模在日本任何一个城市都是找不到的),后面是广阔的开发区。在住宅区最让人感兴趣的是,建筑中间部分和其他国家的公寓一样,但最上层的设计和日本或欧洲都不一样,还有一层全是商店,在日本人眼里这就是中国特色。最有意思的是那些独门独院的住宅,院子里有养着蔷薇等花草的西式花园,水池里开着荷花,可是旁边却立着葫芦架。真是异国文化混合的象征。

经济开发区面积太大,我们只能坐着车参观。我们到其中的有将近200家公司入住的中日工业基地,用将近一个半小时采访了一位日本管理人和一位中国管理人。我最想了解的是那些占劳动力大部分的女工。她们大部分来自内地农村,户口放在故乡,在我们参观的开发区工作了几年。他们挣的钱寄给农村的家,补贴生活费或学费,结婚后也继续寄钱给家。极少数成功的劳工结婚后还购置高级公寓,申请城市户口,接她的父母住到城市。可他们不一起住,父母住在别的公寓,帮她看孩子。尽管这是制度化的在外打工,不过城市和农村,或者在城市里贫富差距是不是越来越拉大?包括日本和韩国在内的各国企业来到开发区,是因为这里提供各种优惠条件,还有,这里工资很低。那么低工资又意味着什么呢?

此外,大连的旧市区有一个吸引日本IT产业谋求合作发展的区,在那里有很多会讲一口流利的日语的技术人员和职工。过去我们看到很多报道,说美国的IT企业转移到薪水只有1/5的印度,导致很多硅谷的技术人员失业。而大连正是在全球化潮流中变成国际化城市的一个例子。这个成为城市只有一百多年的历史的城市,

具备着新型全球化城市的巨大魅力。听到东北亚文化共同体这个主题，我猛然想到大连就是一种模型。我们可以从大连市的尝试学到很多，我们的文化共同体构想是否可以与这座正在成长的美丽城市联系在一起呢？

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の可能性

西川長夫

1.

このような意義深い国際學會にお招きいただいたことは私にとってたいへんな名譽であり、心から感謝の氣持を述べさせていただきます。「東北アジア共同体」という言葉は、たとえそれに「文化的」という形容詞が付されていても、かつて「東亞協同体」や「大東亞共榮圈」の名の下に、東北アジアや東南アジアへの侵略を行ってきた歴史の記憶を持つ多くの日本人にとっては、できれば回避したい、複雑で微妙な反応を呼び起こす、重たい言葉です。しかしながら歴史の現實を直視し、何らかの具体的な解決策が求められている現在、この言葉を避けて通ることはもはやできないというのも事實です。この問題は韓國におけるさまざまな提言に呼応する形で、この數年日本でも話題となり、姜尙中の『東北アジア共同の家をめざして』(平凡社、2001年)、や和田春樹の『東北アジア共同の家』(平凡社、2003年)など眞摯で誠實な、だが同時に複雑な問題をはらんだ提案がなされています。これらの提言は主として政治的あるいは經濟的觀點からなされていますが、もし同じ問題を文化的觀點から見たらどうなるのか。私は今日はこの二人の發言をふまえた上で、少し違う角度から問題を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今回の學會のテーマを見て私がとっさに思い出したのは、『地中海』の著作で知られ20世紀を代表するフランスの歴史家フェルナン・ブローデルが、その最後の作品『フランスのアイデンティティ』

(Fernand Braudel, L'identité de la France, 1990)の序文に記した次の言葉です。そこでブローデルはこれも著名なフランスの中世史家マルク・ブロック(Marc Bloch)の「フランスの歴史などはない、存在するのはヨーロッパの歴史のみである」を引用し、それを受けて「ヨーロッパの歴史などはない、存在するのは世界の歴史のみである」とつけ加えています。ブロックやブローデルのこうした言葉は、ヨーロッパ連合の展開や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の進展を目にするとき、きわめて説得的な響きをもっていることは否定できません。

だが、われわれはこれに倣って、例えば「日本史や韓国史などはない、存在するのは東アジア史のみである」と言う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韓国や他の国々の場合は知りませんが、日本の古代史家のなかにはそのように考えている人がかなり多いと思います。だが近代においてはどうでしょうか。またさらに一步進めて、「東アジア史などはない、存在するのは世界史のみである」と言う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私はブロックやブローデルが自國の歴史に對して發したこの問いは、私たちが今日ここで論じようとしている問題の本質に迫る、あるいは私たちが今日避けて通れない問題を提起し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おそらくここでヨーロッパとアジアの歴史的あるいは地政學的な違いを持ち出して、この問いかけに對する回答を拒否することはできないでしょう。たしかに中世のヨーロッパはキリスト教の支配下に一つの世界をなしていました。そして今日、擴大EUからイスラム教國のトルコを排除しようとする動きを見れば、キリスト教がヨーロッパ統一に果した役割の大きさ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だがもしこれを一つの文化圏と呼ぶならば、東アジアはさらに古く、

古代から廣大な文化圏をなしていた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もっとも東アジアや東北アジアの地理的文化的境界を明記することは不可能です。東北アジアにせよ東南アジアにせよ、あるいはアジアやヨーロッパにせよ、特定の地域に与えられた名称は、多くの場合、政治的経済的意図を背後に秘めたイデオロギー的名称です。議論を進めるためにもし限定が必要であるとすれば、ここではとりあえず、それは中ソ韓日の諸國が隣接し、古代からの長い交流と闘争の歴史が刻まれている地域であり、そこでは朝鮮半島が諸國をつなぐ重要な役割を果していることを強調し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個人的なことをつけ加えさせていただくと、北朝鮮(江界)に生まれ、父親が軍人だったので日本帝國主義の發展とともに、朝鮮—滿州の各地を轉々としてそこで幼少期をすごし、敗戦後はソ連軍の占領下にあった北朝鮮で1年近く抑留されて、今で言えば難民として引き揚げてきた私にとっては、私の生涯に直接かかわった地域です。

ブロックやブローデルのこの言葉は、単に一國史と地域史、あるいは地域史と世界史の關係を問題にしているだけではなく、近代において形成された歴史の概念、あるいは歴史學のあり方に對しても、根本的な疑問をつきつけているように私には思えます。周知の通り、近代的な歴史の概念は國民國家の産物です。歴史の基本は一國史(national history)でした。そのことは近代歴史學の形成過程を見ても、あるいは現實に出版された歴史作品を見ても明らかです。ベネディクト・アンダーソンは1991年に出版された『想像の共同体』(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1983)の増補版の最終章で、近代の歴史を「國民の伝記」と読んでいますが、これは原理的にも實際

的にも正しいと思います。ブロックやブローデルのこの言葉は、このような一國史的歴史概念の否定にもつながるでしょう。(もっとも『地中海』で出発したブローデルの最後の著作が『フランスのアイデンティティ』であったのは興味深い事実です。)

これに對して、われわれは文化共同体を問題にしているのであって歴史を問題にしているのではない、という反論も予想されますが、これに對する再反論は容易でしょう。なぜなら近代的な文化概念は18世紀の後半から19世紀にかけて、國民國家の形成期に、國民や民族あるいは歴史と一体の概念として形成され、ほとんど主權國家の構造を寫していると言ってよいからです。つまり幾百とある文化の定義の共通点を取りだしてみると、特定の集團の獨自な生活様式に力点を置くにせよ、あるいは価値やシンボル体系に力点を置くにせよ、文化は特定の領域内の共通性と他の領域との異質性(排他性)を前提とし、境界内の均質性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可能性、境界外との異質性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不可能性を前提とする概念でした。こうして、文化とは國民文化を意味し、國名の後に文化を付した、中國文化、韓國文化、日本文化、ロシア文化、アメリカ文化、フランス文化といった表現が一般化し、日本文化は外國人には理解できない、といった言説が当然のこのようにはびこるのです。文化共同体のモデルは民族(國民)國家です。私はかつてこのような歴史的狀況をふまえて、民族とは文化の担い手であり、文化とは民族とあり様であるという定義を記したことがあります。國民と文明が支配的な先進諸國(仏英米)においては、國民とは文明の担い手であり、文明とは國民のあり様である、ということが可能でしょう。なおここで使われた文化、文明、民族、國民、等々の言葉は、

他の科學技術や哲學の用語と同様、近代化に際して主として幕末・明治期の日本で、漢字を用いたヨーロッパの言語の翻譯語として作られ、漢字圏の諸國に逆輸入された歴史をもつ用語であることをつけ加え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西歐における文明と文化、國民と民族、等々の國民國家にかかわる用語と概念の形成、そうした用語の日本における翻譯と漢字文化圏における普及については私の以下の著作を参照下さい。このうち最初のものはずでに韓國版が出ていますが、残りの二冊も近日中に翻譯が出ると聞いています。(1)『國民國家論の射程、あるいは國民という怪物について』柏書房、1998年。(2)『地球時代の民族=文化理論一脱「國民文化」のために』新曜社、1995年。(3)『増補・國境の越え方—國民國家論序説』平凡社ライブラリー、2001年。)

2.

前置きが長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時間が限られているので以下、東北アジア共同体の可能性について三つの考察と提案をしたいと思います。

第一は、上に述べたような古典的の文化概念の再検討です。文化概念がその形成期に持ちこんでしまった自己中心的、孤立的、排他的な傾向は克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とりわけ單一民族神話の根強い日本や韓國にとってこれは重要な問題だと思えます。中國やロシアにもそれは根強いとすれば、この傾向は東北アジア文化共同体に共通した、世界の諸地域のなかで際立つ特色であるかもしれません。

もっとも私は文化相對主義や多文化主義に直ちに賛同する者では

ありません。文化相對主義は個々の文化に固有の価値を主張することによって、たしかに他民族や人種に對する偏見を打破する効果はあったかもしれませんが、他方では主權國家のイメージを引き寫しており、排他的孤立的な文化概念を越えることができていない。文化相對主義は文化の交流や混交、あるいは異文化理解の理論化には背を向けているように私には思われます。

カナダやオーストラリアで國是となり、アメリカでも定着しつつある多文化主義は、歴史の大轉換(西歐中心主義の終り)を示す大変革だと思えます。だが疑わしい点も多い。多文化主義は、文化相對主義と同様、文化概念の排他的孤立主義的傾向を克服できていない。理論通りに行けば、無数のミニ・ネーションの形成ということになりかねないと思えます。また多文化主義は、旧大英帝國の植民地において支配的であった移民集団(白人)がもはや支配的ではありえない状況に對応した改革ですが、先住民の土地を奪った彼らが、いぜんとしてその土地に住み續けることができるのはいかなる理由、いかなる權利においてか、という根底的な問いに十分答えるものにはなっていません。

歐州連合におけるさまざまな試みは、文化的な領域においても参照すべきものが多いと思えます。全ては進行中であって、共通教科書の試みや大學の單位交換性、各國の學生に開かれた大學の設立も續くことでしょう。域内における移動の自由は、時間とともに住民たちの生活形態や家族形態、あるいはアイデンティティのような意識形態に大きな変化をもたらすはずですが、多文化主義や多言語主義が強調され、少數言語の保護が行われる一方で、福祉制度の後退や貧富の擴差の増大が懸念される。また域外からの移民にとって條件が改善されたとは思えない。域内の諸國の國境が低くなった

分、域外との國境が高くなる。EUとヨーロッパ各國の移民政策を見ればこれら旧宗主國はEUを口實に、いぜんとして植民地遺制に苦しむ旧植民地を忘れようとしている印象を与えます。

こうして世界のさまざまな地域を見てくると参考にすべきものは多いが、単一のモデルはないということがはっきりすると思えます。東北文化共同体の可能性は、その地域の歴史的現實のなかから探り出す以外にはない。多文化主義を論じる際に、私はこれまで幾度か、言語的にも文化的にもはるかに豊かで歴史的にも長い多文化主義的實踐を行ってきたアジアやアフリカが話題にならないのは何故か、という問いを提出してきました。この問いは多文化主義にかかわる言説のイデオロギー性を問題にすると同時に、西歐的な文化概念そのものに對する疑問でもあります。民族や國民性、伝統や國民文化に歸着する固定的排他的文化概念ではなく、移動と交流を軸にした文化概念が考えられないでしょうか。じっさい歴史學者や文化人類學者はすでに氣付いていることですが、文化と呼ばれるものが發生し發展するのは孤立した山奥であるよりは、異質なものが出会い交流する開かれた場であったはずです。あるいは山奥であっても複数の人間が生活し、外部からの訪問客があったはずです。

第二は戦後(post war)と植民地後(post colonial)の問題です。現時点で東北アジア文化共同体の可能性を考える場合に、この問題は避けて通れないと思えます。1945年8月15日を日本人は敗戦ととらえ、それ以後を戦後と呼んでいます。東北アジアの他の地域では、それは勝利であり解放と呼ばれましたが、戦後ではなくそれ以後も戦争が續き、しかも朝鮮半島は南北に分斷されました。この狀況の違いと意識の斷絶は大きいと思えます。

2001年の9・11以後、アフガン空爆やイラク戦争は、とりわけ私た

ち戦争と戦後を多少とも経験した世代の人間にとっては第二次世界大戦を思い出させる事件が相次ぎました。とりわけ9・11のテロがアメリカでは、日本軍による真珠湾攻撃に比較され、リメンバー・パールハーバーの聲がひろまったことによって、またイラク占領がかつての日本占領をモデルにして行われるということが知れわたることによって、日本では戦後とは何であったかを問い直す動きが出てきました。同じ2001年の3月に翻譯が出て大きな話題となったジョン・ダワーの『敗北を抱きしめて』(John W. Dower, Embracing Defeat, 1999)や9・11以後のダワーの発言が、この動きに影響を与えたことは確かです。

ジョン・ダワーはこの書物で、マッカーサー元帥の下で行われた戦後日本の民主的諸改革はすべて「日米合作」であったと述べています。「日米合作」とは、そこに日本側の自発的協力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り、それはまた一種の植民地化が進行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もあります。じっさいダワーは「大君」マッカーサーの部下たちを「植民地總督」と名付け、戦後の改革を「新植民地主義的改革」と呼んでいます。

ところで「日本モデル」で行われたイラク占領をイラク人ははっきり「植民地化」と意識している(例えばフランスの新聞、3月19日付けの『リベラシオン』(Libération)紙のインタビュー記事)のに對して、当の日本人はそれを植民地化とは感じなかった。その理由のくわしい分析をここで言うことはできませんが二点だけあげておきます。第一は日本人が天皇や権力者の權威を受け入れるのと同様にマッカーサー總司令官の權威を受け入れたこと(長い歴史によって培われた權威主義の歸結です)。第二は、民主化を大義として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たこと。植民地化を植民地化と感しないほどに植民地

化された日本、日本占領はそれほどまでに成功した占領でした。さらにアメリカ側にその成功を確信させたのは、その後の小泉政権にまで続く日本政府の「自發的協力」でした。その背後には冷戦体制とアメリカ主導の朝鮮戦争によって日本経済が復興しえたということがあったことは否定できない。そこにはベトナム参戦によって経済成長を實現した韓国が、イラク参戦を余儀なくされているのと類似の関係があるのかもしれませんが。

戦後日本は、連合軍(實質的には米軍)の占領下にあつて、権力と政治的イニシアティブをアメリカに委ね、旧植民地のすべてを放棄し、さらには戦争放棄を明記した平和憲法を制定することによって、朝鮮戦争によって(つまり朝鮮半島の住民の犠牲の上に)経済復興を實現したにもかかわらず、旧植民地の記憶を忘れました。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によるアジアの諸地域における蛮行や住民の被害を忘れただけでなく、それらの地域への關心や想像力を失い、それらの地域の住民たちと正常な関係を構築する努力を怠りました。もちろん例外はあるが、それが一般的な傾向であり、その傾向は今も續いており、東北アジア文化共同体の可能性を阻む重大な要因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韓国の場合はどうでしょうか。韓国やその他の國々の戦後を分析する能力も資格も私にはありません。私がここで唯一提案したいと思うのは、韓国と日本の関係、あるいはその他の東北アジアの國々と日本との関係を単に對立的な関係と見るのではなく、相互的な関係としてみる統一的な観点と廣い視野をどのようにして作りあげるかという問題です。その場合に忘れてはならない一つの要素として對米関係があると思います。アメリカによるイラク戦争と日本占領モデルによるイラク占領は、アメリカの戦後政策に改めて照明をあ

ることになり、アメリカが同じ軍司令官の下に、日本—沖縄—韓国ではそれぞれ異なった占領形態をとったことの意味が改めて問われています。日本本土にはリベラルな民主化を、沖縄にはより植民地的な軍事基地化を、韓国には軍事・獨裁的な傀儡政權が与えられました。そのことは占領が大義名分や一つの理念によって行われたのではなく、アメリカの世界政策の一環として現実的な目的で行われており、三つの占領の異なる形態はそれぞれの役目をもち相互補完的であったことを意味す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東北アジア文化共同体の可能性は、それが對米関係のなかでいかに主体的に自らの位置づけを行うことができるかにかかっていると思います。

次に私はこの東アジアの地域で植民地後(post colonial)の概念の再考を提案したいと思います。ポストコロニアルという用語は初めは第二次世界大戦後に多くの植民地が獨立して國民國家形成が行われた歴史的狀況を指して使われましたが、現在は植民地という体制が終わった後にも依然として植民地主義的な支配や心性や文化的狀況が残存し、形を変えた植民地主義が時には一層強化されている事態を指して使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の意味で現在の日本はポストコロニアルな状態にある、つまり長期の日本の戦後post warは植民地後post colonialではなかったか、というのが私の考えです。

ポストコロニアル理論の先驅的存在であったエドワード・サイードは『文化と帝國主義』(Edward W.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1993)の中のおそらくは最もラジカルな章「協力、獨立、解放」で、旧植民地の獨立國した諸國家がたどった道を批判的に描きだしています。これは主として中東やアフリカの諸國を対象にしていますが東アジアも視野の中に入っています。ここでいう「協力」とは、サイードによれば、帝國主義の存續はその犠牲者たちの協

力または非協力にかかわっていたということ。「獨立」に関するサイドの批判は強烈で、植民地における國家の体制と權威を白人に代わって有色のエリートたちがそのまま受け継ぎ、その矛盾を強力なナショナリズムによって覆い隠したことを怒りをこめて告發しています。さらにサイドはファノンの最後の著作『地に呪われた者』(Frantz Fanon, Les damnés de la terre, 1961)を援用しつつ「文化がナショナリズムの獨立闘争の領域から、解放をめざす理論構築の領域へと大きく移行した」と記していますが、「解放」をめざす理論がいかなるものであるかについてはくわしくのべられてはいません。それは後の世代の仕事になるでしょう。私はサイドの説をそのまま受け入れようとは思いません。だが世界のポストコロニアル的状況の中で、自己の存在を位置づけることは、次に述べる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に対する対応策を見出す上でも重要なことだと思います。

第三に、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について。現在あるいは未来において、一つの地域共同体を構築するとすれば、グローバル化に対する考察と対応が不可欠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ありません。私は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に関してすでにいくつかの試論を發表していますが、この複雑で複合的な現象を短い時間で論じることは不可能でしょう。私はここでは唯一、東北アジア文化共同体を構築するのであれば、グローバル化が第二の(あるいは新しい)植民地主義にならないための工夫や対策が必要ではないかという提案をするだけに止め、論議は止めにして後は二つほどエピソード的な話題を提供したいと思います。

その一つは今年の3月に調査旅行でベルリンを訪れたときのことです。私たちは壁の跡地をめぐって歩いたのですが、壁の

両側にあったはずの貧しい人々の住居はきれいに取り拂われ、先進諸國の資本がひしめく巨大な開發が進行していました。そこで私は改めてベルリンの壁を崩壊させたものがなんであったのかを考えたのですが、それは結局は資本の力であり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ではなかったか、というのが私のたどりついた結論です。私たちはまたトルコ人の居住区や旧東ドイツの地域にも足を踏み入れたのですが、ドイツの統一が決して成功していないことは誰の目にも明らかなようです。当然、私たちは朝鮮半島の分斷と統一について改めて考えざるをえなかった。

第二は、これは最近のことですが、この9月の初めに、數人の建築家や住居の研究者たちとともに中國遼東半島の大連を訪れました。ご承知のように大連は、1898年にロシアが租借し、日露戦争後は日本の租借地となりました。旧市街にはロシア街があり、また滿鐵などが建てた日本人居住区もあります。敗戦後大連から引き揚げた日本人の數は20万人とききました。ロシア人が建てたロシア街も、日本人が建てた日本人街も老朽化が進みほとんど廢屋寸前です。ロシア街は表通りは觀光用に残してあるが、裏に入ると崩れかけた建物に裸で寝ている人がいたり、廢品回収の人たちの溜り場になっています。日本人街の方は、大正期の日本的洋館が多いのですが、まだ骨組がしっかりしていて、そこで中國の人が中國風の暮しをしている。だが老朽化が進み崩壊寸前のかつてのお屋敷町では、建物の内側は取り拂われ、庭はごみ捨て場になって腐敗物の強烈な臭いがただよっていました。私たちは大連で、ロシア帝國主義と日本帝國主義の無殘な末路をその臭いとともに見にしたわけです。

だが大連の郊外には、新しい集合住宅群が立ち並び(それは日本の

いかなる都市にもみられないような大規模なものでした)、さらにその彼方には廣大な開發地區がひろがっている。集合住宅群で興味深かったのは、建物の中間部分はほとんど世界共通の集合住宅を思わせますが、建物の上部は日本やヨーロッパでは見られない独自のデザインがあり、そして商店の立ち並ぶ下部はわれわれ日本人から見ればまさに中國風です。特に面白かったのは一戸建住宅の庭で、そこにはバラや鶏頭など西洋風の花壇があり、池には睡蓮の花が咲いている一方で、ひょうたんやへちまの棚があったり、異文化混交のシンボルのように思われました。

廣大な經濟開發地區は車で通りすぎるしかないのですが、その中の一畫を占め、日本企業が200社ほど入っている中日工業団地を訪れて日本人と中國人のお二人の管理責任者が、1時間半ほどもインタビューに応じてくれました。私が一番知りたかったのは労働力の大半を占める女工さんたちのことです。彼女たちは主として内陸部の農村からやってきて、私たちが目にした集合団地に住み、數年あるいはそれ以上農村戸籍のまま滞在するが、その間、彼女たちは全員田舎の両親に仕送りを続け、もし結婚した場合にも、それぞれの家族に仕送りをする。まれに結婚して一定の金額以上の高級団地を買うことができれば、都市戸籍を得て田舎の両親を呼び寄せることも可能であるが、その場合も同居ではなく別の団地に住んで子供たちの世話をする、等々。制度化された出稼ぎですが、こうして都市と農村の、あるいは都市における貧富の格差はますます擴大してゆく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日本や韓國をはじめ各國の企業が開發區に參入するのは、さまざまな優遇處置の他になんといっても安い賃金のせいですが、安い賃金とは何を意味するのでしょうか。

大連にはこの他、旧市内に日本のIT産業を受け入れて提携を図っ

ている区域があって、そこでは日本語に熟達した技術者や作業員が働いている。その先例はすでにアメリカのIT企業が労賃が五分の一のインドに移轉し、シリコンバレーの技術者たちの大量失業者を生み出すような事例として報告されていますが、グローバル化によって世界的になりつつある動きの一畫を大連は担っている。都市としてはほぼ百年あまりの歴史しかもたい大連市は、新しいタイプのグローバル都市として大きな魅力を備えています。東北アジア文化共同体という言葉を目にしたときに私は一つのモデルとして大連を思い浮かべました。大連市の試みに學ぶことは多いと思いますが、私たちの文化共同体の構想は形成途上のこの魅力的な都市の未來にどのようにかかわるのでしょうか。

제 1 회의

토 론

1. 김 창 호 (중앙일보 학술전문기자)

동북아 공동체는 참여정부 들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김대중 정부시절에도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지만 이 논의를 접하면서 받은 인상은 철학의 빈곤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동북아 중심 또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맥락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 담론이 등장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없이 너무 쉽게 동북아 공동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 경제공동체에서 지금은 동북아 정치 외교적 공동체로 이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철학의 빈곤이 느껴진다.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과연 그러한 철학의 빈곤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함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황핑, 니시카와 나가오 선생님의 새로운 공동체 건설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황핑의 언급이나, 문화적 상대주의나 다문화주의, 문화공동체에서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설명한 두 분의 설명에 공감하며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왜 동북아 공동체인가, 둘째 이 동북아 문화공동체에 왜 하필이면 문화이어야 하는가, 셋째, 누구에 의한 누구의 공동체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개념적 구조가 명확치 않고 개념적 모호성 속에 숨어 있으면서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북아 공동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미국중심의 패권이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세계질서 재편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재편이 또 다른 패권주의에 의해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가 있다. 만약 미국 중심의 패권과 유럽 중심의 패권에 더해 동북아 중심의 또 다른 패권 축을 만든다면 과연 그것이 동북아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이념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다시 말해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가 아닐까 한다. 이는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문화의 영역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문화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문화가 무엇인가 하는 개념규정도 하지 않은 채 출발하고 있지만 통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휴먼테크를 다루는 하나의 인간적 행위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즉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으로 나눌 수 있다. 문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휴머니즘이며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문화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동북아 공동체 속에서 휴머니즘이 무엇을 의미하며, 문화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동북아 공동체 담론의 배경이 세계화(globalization)와 미국 중심의 패권이라고 언급했고 그것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추구라는 것이 동북아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이라고 언급 했는데 오늘날 문화와 휴머니즘이 세계화에 대해서 휴머니즘을 실현할 수 있는 비전은 다양성과 공존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기본적으로 세계화(globalization)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획일성과 동질성이다. 그 동질성과 획일성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차별하고 있으며 소수자를 억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화에 대해서 휴머니즘을 실현한다는 것은 차별을 차이로 뛰어넘는 것이고, 그 차이가 공존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오늘날 휴머니즘의 비전이고 세계화속에서 동북아 공동체에서의 문화가 지향해야 할 휴머니

증적 목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민족성, 문화다양성 등을 보존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닐까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3국이 대부분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경험했다. 일본 동경제대를 나온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나 만남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비전 있는 교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 것인지 하는 점이다.

동북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역사분쟁 지역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되기도 한다. 이 문제 역시 다양성과 공존, 차이와 공존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은 영토 주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극대화시키고 세계적 차원에서 패권주의 경쟁 속에 말려들기보다는 우리의 공동체가 공존과 평화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화적 기초를 갖추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 유교적 공통성을 얘기했는데, 유교적 공통성은 개인적으로 차이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 유교를 새로운 방식인 차이와 공존의 연대로 재해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2. 친 홍 상 (베이징대 교수)

세미나를 통해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와 같이 분야별로 공동체를 따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 문화 등 다른 분야의 공동체를 함께 추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전영평 교수님의 발표에서 문화공동체의 개념이 아직도 상당히 모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EU의 경제통합에서도 문화의 동질성이 경제협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공동체의 개념을 놓고 전략적 비전을 구상해 볼 때 역시

기능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동북아시아 고유의 문화 전통을 지키면서 세계화의 현실과 결부하는 시야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북아의 경제협력이나 동북아의 문화협력은 동북아 국민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이나 동북아 문화공동체는 참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정적 관념에 대한 극복과 우리의 현실에서 세계화와 지역주의를 확산시킨다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동북아시아 지역은 아직도 뭉쳐 있지 않고, 경제협력체와 같은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역할과 리더십을 가질 만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동북아의 역사와 현실로부터 출발해서 본다면 본인은 나무형 모델을 제의해 본다. 나무형 모델은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모델인데, 같은 문화뿌리에서 생긴 한·중·일이므로 주도적인 국가 없이 수평적인 관계로 동북아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어장벽의 문제가 중요하며, 문화정체, 심층적인 문화교류가 필요하다고 본다. 동북아 지역이 평화, 화해,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미야지마 히로시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 교수)

이러한 주제로 많은 토론이 시도되어 왔는데, 아직까지는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 이상 진전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러한 문화공동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진정한 논의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문화공동체라고 할 때, 특히 동북아에서는 역사문제가 중요한 문제이다. 몇 년 전부터, 동아시아의 역사를 만드는 작업을 6~7년 간 해왔는데 실제로 어려운 작업이었다. 예를 들어 12세기의 역사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에 대하여 보통 12세기 중국대륙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묘사하며 그리고 그 세 지역에서 어떤 교류가 있었다고 서술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진정 동아시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이다. 정말 동아시아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12세기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시대였다고 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중국대륙에서는 어떻게 나타났고 한반도, 일본열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다고 서술해야만 하는 것이다.

19세기 이후라면 몰라도 그 이전까지 올라가서 연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동아시아사 목차를 만들기 위해 5년이나 걸렸고 마지막 집필단계에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동아시아 사학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학생들과 교수들도 애매해하고 시행착오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학이란 것은 동아시아 연구라든가 지역 연구로서 동아시아를 연구하는 것이 동아시아 연구가 아니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지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헤게모니를 극복해서 동아시아의 독특한 방법론부터 제대로 개척해야 진정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근대 들어오면서부터 서양화를 지상과제로 삼으면서 전통이 다 버려진 것이다. 유교도 내적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고 버림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근대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도 유럽을 기준으로 역사를 보게 된다. 전통을 제대로 극복할 과제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본다.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야 의미 있는 공동체를 형성할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다.

답변: 전 영 평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철학보다는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합의가 중요하며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제3자가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문화공동체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방향표시를 제시하는 것도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는 데 도움이 된다.

기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EU가 기능적 통합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보완적인 형태로서의 문화적 협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능적 접근과 문화적 접근을 통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제 2 회의 First Session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위한 각국의 과제

Issues Facing Participating Nations
in Establishing a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국가적 프로젝트로서의 국제적
문화공동체
: 유럽적 경험의 함의를 중심으로

김 명 섭

I. 서론

문화는 단순히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나 가치관, 사유체계 등을 규정하는 협의적 개념과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매개하는 유·무형의 광의적 개념으로서 국가 간 협력이나 공동체를 구성하는 중요 요인이다. 따라서 국가 간 통합이나 공동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문화적 요인은 이미 부차적 차원이 아니라 필수적 차원으로 부상하였다. 더 나아가 문화는 단순히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힘(Soft Power, Joseph Nye)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일 수 있다. 문화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개개인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고, 삶의 질을 결정한다. 개인의 평화와 번영은 궁극적으로 문화를 통해 실현된다.

문화는 특정한 시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피레네산맥의 한편에서 문명인 것이 다른 한편에서는 야만이다 (Blaise Pascal, *Pensée*, 1670). 이런 의미에서 월러스타인(I. Wallerstein)이 말하는 지문화(Geoculture)란 동어반복(tautology)이다. 문화는 공간적으로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동리(洞里), 지방, 국가, 국제적 지역 등의 다층적 동심원적 구조(多層的 同心圓的 構造)와 결부된다. 시간적으로 문화는 개인의 수명, 세대, 기억, 역사, 교육 등과 밀접히 관련된다. 모든 문화는 변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변화와 시간의 관계이다. 한 개인의 수명과 비교하여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지나치게 빠르게 변화할 때, 그것은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물리적 공간의 인위적 압축을 동반한 세계화는 이러한 문화적 차원의 문제를 더욱 첨예화시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세계화를 주도하는 국가들보다 세계화에 적응해야 하는 국가들 안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북아공동체란 세계화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세계화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글은 선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공동체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동북아 문화공동체 수립과 관련한 몇 가지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함의들을 도출해내고 있다.

II. 문화공동체의 동심원적 구조

유럽의 사례에 비추어 문화공동체의 형성과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유럽 내의 개인, 장원, 도시, 연맹, 국가 등이 상호 연관성을 빚어내며 안으로부터 유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 외적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럽의 외적 경계선이 분명해지고, 타자성(othersness)에 대한 인식을 통해 유럽이라는 시공간이 확정되는 과정이다. 그 동안 많은 유럽학자들은 첫 번째 측면에 주목하여 유럽의 시공간적 개념을 분석해 왔다. 따라서 유럽 외적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럽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중세유럽에 있어서 한 개인은 그 탄생과 더불어 여러 층위의 표준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것은 유럽연합을 지탱하고 있는 보충성(subsidiarity) 원리의 연원이다. 우선 가족적 표준이 있었고, 자신이 속해 있던 장원의 표준이 있었으며, 기독교세계(Christendom)의 표준이 있었다. 가족적 표준을 대표하는 존재가 가부장이었다면, 장원적 표준은 봉건영주에 의해, 기독교세계의 표준은 교황에 의해 각각 대표된다.

중세유럽이 근대유럽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국가주권은 일 개인을 둘러싼 동심원적 표준구조의 외원(外圓)수축동학(shrinking dynamics of outer circle)과 내원(內圓)팽창동학(expanding dynamics of inner circle)의 상호 길항관계 속에서 탄생하였다. 외원(外圓)수축동학이란 교황적 표준이 관철되던 공간(sacerdotium)의 수축

에 관한 것이었으며, 내원(內圓)팽창동학이란 봉건영주적 표준이 관철되었던 공간(regnum)의 팽창에 관한 것이었다.

현재 발전하고 있는 유럽문화공동체도 이와 유사하다. 유럽문화공동체는 과거의 교황적 지위에 버금가는 미국중심적 세계화의 힘과 국가주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힘 사이에 위치한다. 세계를 외원(外圓)으로 보고, 국가주권을 내원(內圓)으로 본다면 유럽문화공동체는 외원(外圓)수축동학(shrinking dynamics of outer circle)과 내원(內圓)팽창동학(expanding dynamics of inner circle)의 창출과 접합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II. 유산(遺産)으로서의 문화공동체와 프로젝트로서의 문화공동체

문화공동체의 개념을 유산으로서의 문화공동체와 프로젝트로서의 문화공동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가 공동의 문화적 유산에 기초한다면, 후자는 유산의 총량(總量) 보다 유산의 활용(活用)에 주목한다. 유럽의 경험은 이러한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유럽공동체는 고대 그리이스유산과 기독교유산에 기초하지만, 이러한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프랑스와 독일에 의해 주도되었다. 유산의 원천인 그리스가 주도하지 못했으며, 한때 유럽질서를 주도했던 영국은 뒤처져 있다. 동북아의 경우, 유산의 총량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지위를 부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그리스나 바티칸과 달리 중국은 현재의 역학관계에서도 압도적 지위를 구가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산으로서의 문화공동체에 대한 집착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탐원공정, 동북공정을 연상시키고, 세계적으로 중화질서(Sinocentric order)의 부활

이라는 모습으로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의 문화공동체는 유산의 총량보다 유산의 활용에 주목해야 한다.

유럽 문화공동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타자성에 대한 인식은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첫째, 이베리아 반도 방면에서는 수백 년에 걸친 레콩퀴스타(reconquista)를 통해 이루어진 이슬람 문명과 의 조우가 유럽의 외적 경계선을 확정하고, 유럽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둘째, 지중해 방면에서 벌어진 십자군 전쟁(Crusade)을 통해 유럽은 하나의 종교적 표준에 따른 단합을 과시할 수 있었고, 유럽이라는 지역적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 유럽인들은 보다 선진적 타자(otherness)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었고, 타자에 대한 정복을 통해 자기(selfness)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 교황은 전기독교세계를 통합하는 상징으로 떠올랐지만, 점차 그 권위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십자군운동이란 교회에 의해 고무된 중세적인 식민운동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십자군과 후일 이베리아 반도의 레콩퀴스타(재수복), 나아가서 콜럼버스를 선봉으로 하는 아메리카의 콩퀴스타도르는 모두 하나의 연장선 위에 있었다. 셋째, 이슬람 문명과의 대결 속에서 파생된 대서양으로의 진출은 유럽적 정체성 확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서양으로의 팽창은 유럽 내적인 정체성의 확립과정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지중해가 도시들의 바다였다면, 대서양은 국가에 적합한 바다였다. 대서양을 향해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도시적 수준 보다는 국가적 수준에 적합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프로젝트가 다시 국가를 만들었다.

찰스 틸리(Charles Tilly)의 언급과 같이 “도시가 자본을 담은 그릇으로서 자본의 배분장소로 봉사”하였다면, 국가는 여러 개의 도시들을 담아낸 그릇이었다. 유럽에서 광대한 대서양을 배경으로 벌어진 치열한 경

주는 이들 도시들에 의해 뒷받침되었고, 몇몇 도시들 간의 연대를 강화시켜 주었다. 대서양 세계의 팽창하는 외연과 함께 심화되는 내포의 상징처럼 대서양에 조우한 각각의 국가들 내부에서는 새로운 도시들이 만발하였다. 각국이 대서양을 지배하고 또 대서양을 배경으로 번창시킨 문화는 이들 도시들에 잘 응축되었다. 대서양의 역사는 각기 바다를 개척했다고 자부하는 항구도시들이 새로운 국가적 표준에 의해 통합되는 과정의 역사였다. 유럽의 국가가 이들의 배후에 있기도 했지만, 역으로 유럽의 국가적 표준이 이 항구도시들이 주도하는 대서양 개척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다. 지역적 표준들이 국가적 표준으로 통합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국가적 표준들이 다시 국제지역적 표준으로 통합된 것은 역사적 유산인 동시에 국가적 프로젝트의 산물이었다. 프로젝트로서의 국제문화공동체란 한 개인의 국가에 대한 상상(想像)을 뛰어넘는 지역에 대한 상상(想像)을 통해 이루어진다. 요컨대 상상의 공동체에서 현실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만들기’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선택의 갈래기’들 중 하나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는 현재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문화공동체 수립을 위해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근거를 1993년 11월 1일 에 체결된 마스트리트(Maastricht) 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조약은 모두 3개 조항에서 문화정책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 3조에는 “회원국의 문화를 꽃피우는데 기여하기 위해 …(to contribute to the flowering of the cultures of the member states)”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조약 제 151조에는 ‘문화 2000’(Culture 2000), ‘유럽문화도시’(ECC: European City of Culture), ‘유럽 문화의 달 활동(European Cultural Month Actions)’ 등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들을 집행할 수 있음이 명기되어 있다. 또한 제 87조 3-d항에는 유럽공동체의 경쟁과 공정교역에 관한 원칙을 위

반하지 않는 한 회원국들이 문화 및 문화유적 보존에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자에게 원조를 지원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문화공동체 수립을 위해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사례를 ‘문화 2000’ 프로그램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문화 관련 프로그램인 라파엘(Raphael), 칼레이도스코프(Kaleidoscope), 아리안(Ariane) 프로그램 등을 계승·발전시켜 통합한 것으로서 문화적 대화 촉진, 역사적 지식 축적, 유럽문화의 창조 및 전파, 예술가들과 작품들의 교류 촉진, 유럽적 문화 유적의 발굴 및 보존, 새로운 문화적 표현방식의 창조, 그리고 문화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관한 연구들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와 더불어 예술가, 문화사업자, 문화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국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교육영역에서도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보 네트워크’(ERUDYCE: Education Information Network) 사업은 고등교육기관 차원에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프로젝트이다. 교육정보 네트워크 사업은 개별국가 단위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브뤼셀에 소재한 본부에서 처리하고 분석하여 ‘EURYBASE’의 형태로 저장하고, 참가국들의 교육 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지표들을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매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소크라테스(Socrates) 사업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국민들이 외국어 습득을 유도하고,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며, 그리고 유럽 차원의 협력을 제고하여 평생교육을 유도하고 지식 유럽의 창달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소크라테스 사업은 ① 평생교육의 촉진 및 지식 유럽의 발전, ② 모든 수준의 교육에 있어서 유럽적 특성을 강화, ③ 외국어 구사능력의 제고, ④ 교육 분야에서 협력 및 이동의 촉진, ⑤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의 적용, ⑥ 교육

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의 제공 등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소크라테스 사업은 각 연령 및 교육 수준별로 하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① Comenius: 학교교육 (유아원, 초등 및 중등교육), ② Erasmus: 고등, 대학, 대학원 교육, ③ Grundtvig: 성인교육, ④ Lingua: 언어중심교육, ⑤ Minerva: 교육에 있어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적용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템퍼스’(Tempus) 사업은 대학교육의 초 유럽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교육 강의계획서(syllabus)의 개발 및 개선, 고등교육기관의 개혁, 자격증 중심의 교육을 통한 산학협동 제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민주주의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템퍼스 사업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대학들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네트워킹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넷째, ‘에라스무스’(Erasmus mundus) 사업은 유럽 이외 제 3국가들의 고등교육기관들과 협력을 제고하여 유럽 고등교육기관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 3국가 학생들로 하여금 유럽에서 교육의 기회를 찾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에라스무스 사업은 전 세계의 자질 있는 인재들이 유럽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럽연합과 제 3국들 사이의 보다 제도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유럽의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럽적 부가가치를 겸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에라스무스 사업은 별도의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장학금제도를 확충하며, 제 3세계 교육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기술지원을 확장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다섯째, 유럽 공동의 고등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유럽대학연구소(EUI: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와 로버트 슈만 센터(Robert Schuman Center)가 운영되고 있다.

여섯째, 청소년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유럽은 청소년활동 지원 프로그램(Youth Action Program 2000~2006)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교류사업은 18~25세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모국을 제외한 여타 회원국이나 비회원국에서 최장 12개월 동안 비영리 무보수의 자원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European Voluntary Service,’ 15~25세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그룹단위로 교류하는 것을 지원하는 ‘Youth for Europe,’ 청소년들에 의해 진행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Initiative for Youth,’ 지식 정책분야에서 다른 지역 공동체와 공동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하는 ‘Joint Actions,’ 기타 협력, 교육, 정보에 관한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IV. 국제적 문화공동체의 추진주체와 추진전략

국제적(international) 문화공동체와 초국적(transnational) 문화공동체를 국가주권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구별한다면, 샐러드 모델(Salad Bowl-Type Model)과 스파게티 모델(Spaghetti Bowl-Type Model)로 단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스파게티 모델(Spaghetti Bowl-Type Model)이 초국적(transnational) 문화공동체에 가깝다면, 국제적(international) 문화공동체는 샐러드그릇모델(Salad Bowl-Type)에 가깝다. 국가에 대한 특정종교문화의 우위를 전제하는 이슬람근본주의적 공동체의 예를 든다면 이 경우는 국제적 문화공동체라기 보다는 초국적(transnational) 문화공동체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스�파게티 모델은 거미집 모델(Cobweb Model)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와 시장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실물치처럼 얽히지면서 새로운 초국가적 실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샐러드 모델이라 함

은 개별국가의 주권이라는 고정체가 존중되는 가운데 국제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부 간 협력(intergovernmental cooperation)이 강화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스파게티 모델과 샐러드 모델이 반드시 대립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럽적 공주(共主; pooled sovereignty)의 사례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단단한 주권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가는 샐러드 모델은 궁극적으로 시민과 기업을 연결하는 스파게티 모델이 보다 견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는 스파게티 모델(Spaghetti Bowl-Type Model)과 샐러드 모델(Salad Bowl-Type Model)을 구별하되, 두 모델이 병존하는 중첩적 추진이 바람직하다.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위해서는 국가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일본시민사회의 주장과 흡사한 스파게티 모델(Spaghetti Bowl-Type Model)이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1.5 Track) 스파게티 모델(Spaghetti Bowl-Type Model)에 입각한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을 정식화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 선민후국(先民後國; First the civil, then the state)
- 선이후난(先易後難; First the easier, then the difficult)
- 선류후정(先流後定, First flow, then define)
- 선동후이(First the same, then the different)
- 선동후서(First the East, then the West). The East is not 'the Rest.'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 공동체건설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샐러드 그릇 모델(Salad Bowl-Type)이 다시 중요해지게 된다.(역 1.5 Track) 유럽의 경험은 공동체만들기를 위한 모멘텀을 설계, 관리, 지속, 정교화 하는데 있어서 국가가 가지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가

장 효율적이고 최종적인 접근법은 신자유제도주의적 접근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럽의 사례는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국가 기능의 약화가 아니라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결국 국가만이 지역문화공동체 수립을 통한 세계화 속도의 조절이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시민사회에 대해 설득하고, 계약을 위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 물론 샐러드 모델 내에서도 스파게티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별 국가엘리트들 간의 순환근무제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문화공동체와 관련하여 스파게티 모델과 샐러드 모델이 병존하는 중첩적 전략은 다음과 정식화해볼 수 있다.

- 지시제초(志始制礎; Intention initiates, but Institution initializes)
- 민개국료(民開國了; The civil opens, but the state finish)
- 정기이결(情起理結; Emotion proposes, but reason concludes)
- 선저후고(先低後高; First the low level, then the high level)

V.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위한 한국의 위상설정과 제안

한국의 새로운 지정전략적 제안으로서의 ‘동북아 중심국가론’은 ‘동북아시대론’에 자리를 양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동북아 협력(partnership)론과 동북아 협치(governance)론을 포괄하는 동북아시대론은 기존의 ‘동북아 중심국가론’이나 ‘동북아 경제중심’과는 달리 경제 이외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정치, 경제, 안보, 문화적 영역별로 분절적이거나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이고 총체적이며 압축적인 지역 만들기(region-building)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북아문화공동체란 동북아시대를 위한 출발점이자

중착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이 제안하는 동북아문화공동체란 동북아적 표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 형성의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질서란 일정한 표준을 중심으로 문화적(cultural), 물질적(materialistic), 제도적(institutional) 차원들에 존재하는 특정한 종류의 패턴이며, 그러한 패턴을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들의 나선형적 동학을 통해 다시 표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유지된다. 문화적 차원에서의 변화는 다른 차원에서만큼 즉각적이고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결코 국제권력구조의 잔여물은 아니다.

1. 한국의 위상설정(South Korean Positioning)

가. 전쟁과 평화, 근대화와 정상화, 봉쇄와 통합의 징검다리

한국은 새로운 동북아에 있어서 대륙과 해양의 충돌, 조우, 공존, 혼용의 공간으로 설정된다. 냉전시대 동북아의 핵심어가 분할(divide)과 봉쇄(containment)였다면 동북아시아의 핵심어는 통합(integration)이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 단절이 아니며, 역사의 창조적 계승을 의미한다. 과거 동북아의 또 다른 핵심어가 근대화(Modernization)였다면, 동북아시아의 핵심어는 정상화(Normalization)이다. 그것은 북한을 포함하는 한미관계의 정상화, 한중관계의 정상화, 한일관계의 정상화, 중일관계의 정상화, 시민사회와 국가 관계의 정상화 등을 의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물론 북한 역시 신뢰할 만한 평화문화의 정착을 위해 일차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0세기 동아시아의 대표적 전쟁이었던 한국의 6·25 전쟁, 베트남 독립전쟁, 동티모르 독립전쟁 등 전쟁유산을 히로시마 평화공원 수준의 평화자원으로 활용하고, 시민단체와 연계된 국제사업으로서 동북아 평화문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나. 해양과 대륙의 연결고리

동북아문화공동체는 공동체적 역사 인식과 세계관을 강조하는 인문학적 토대와 연결성을 강조한다. 인식론적으로 주관주의(중심국가론)와宿命주의(주변국가론) 사이의 제 3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다. 서구 따라잡기(catch-up)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문명사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변영의 모델을 창조하고자 하는 탈근대적 기획의 성격을 지닌다. 동북아시대론은 동북아 중심국가론과는 달리 ‘중심주의’적 담론이 낳을 수 있는 폐해와 오해를 불식하고, 관련국가와 동북아민(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중심과 변방의 이분법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삼국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문명적 네트워크의 그물코국가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한다.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동북아문화공동체가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밀폐된 공동체로서의 동북아가 아닌 세계를 향해 열린 동북아를 지향할 것이다. 동북아중심국가론이 자칫 중국과 일본을 대자적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졌다면, 동북아시대론의 대자적 개념은 세계화 시대인 동시에 닫힌 민족국가의 시대 또는 유럽 중심적 근대, 대서양 양안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과도기(이라크 안정화 이후 대서양연대가 다시 회복되기 전)가 동북아 추진의 호기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은 지역적 대국이나 강국이 추진할 경우 경계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오히려 지역적 중·소국들을 중심으로 추진될 때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에 주어지는 과제를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동북아 문화공동체가 문화적 동질성의 추구하고 더불어 그 현실적 다양성에 대한 학습과정이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것은 결국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대국 중심의 문화적 통합이 아닌 국가 간 ‘다양성의 통일’을 기하는 방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 동북아와 동남아의 연결고리

유럽 공동체의 경험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점은 지역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완충지대(Buffer zone) 내지 회랑(回廊, corridor)의 중요성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의 역사는 지역적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이견과 갈등을 베네룩스(BENELUX) 3국과 같은 중간국가들이 매개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폴란드와 같은 나라는 동유럽 내의 로마카톨릭국가로서 서유럽과 동유럽의 통로로서 기능했다. 냉전체제 해빙의 기운이 폴란드로부터 시작되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한국은 동북아문화공동체가 지나치게 폐쇄적이지 않고 해양을 향해 열려 있는 문화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일 한국이 단독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중국의 연안지역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베트남, 태국 등과 같이 유교적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는 동남아 국가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약소국들 간의 연대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지역적 강대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중요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2. 한국의 프로포절(South Korean Proposal): 선이후난(先易後難), 선저후고(先低後高)의 관점에서

가. 기속(既屬)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대역(協力帶域)의 확대

동북아 문화공동체에 관련된 국가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 예를 들어 유네스코와 같은 기존의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서로의 협력대역을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중복투자 또는 재투자를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서로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상호이해교육프로그램의 강화와 동북아 공동의 교육기관 설립

동북아지역과 관련한 국제이해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동북아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속의 동북아,’ ‘일본의 이해,’ ‘중국의 이해,’ ‘동남아 화교공동체에 대한 이해,’ ‘러시아 까레이스끼에 대한 이해,’ ‘국내 외국인들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교과목을 개발하여 미래 세대에게 동북아의 지표와 현황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북아 장학재단의 설립을 주도하여 한국 중심의 동북아 교육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나는 프랑스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럽인으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동북아의 정체성과 동질적인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한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사를 넘어 역사를 가르치려는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미래 세대들에게 동북아적 정체성의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만 한다. 아울러 국민정신에 입각한 국가 엘리트교육기관을 대신하는 유럽 엘리트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피렌체 소재 유럽연합연구원(EUI)과 같이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 지도자과정(EAI: East Asian Institute, NEAI: North

East Asian Institute)을 설립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정체성 증진 및 지역적 지식공동체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공동체의 후속세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다. 동북아 고등학술원

각국의 원로저명학자들이 휴양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동북아고등학술원을 설립하여, 동북아의 문화적 표준을 공동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先易後難의 방침에 입각하여 이 학술원에서는 우선적으로 학문분야별로 한자권 국가들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될 신생 서구어의 한자번역어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Care => 介護(일본식 번역), Multi-media => 多媒體(중국식 번역) 등의 번역어들 중 알맞은 것을 다른 나라들에서도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3국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생 서구어의 한자번역어 사전 편찬도 이 학술원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 물론 동북아 지역을 유교 문명권 혹은 한자 문화권으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비록 동북아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유교 혹은 한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근대화의 발전과정에서 많은 문화들이 이질화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국가들은 서구 열강과의 초기 접합과정에서 다분히 분화적이고 다원적인 속성을 보여 주었으며, 그 결과 동북아 국가들은 현재의 문화구조에서 각기 다른 변이를 보여주고 있음도 사실이다. 결국 동북아 국가들이 과거 역사의 굴곡과 문화적 변질을 뛰어넘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공동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로서의 문화공동체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라.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역할 (From Gordian Knot to Civilizational Node)

인적 자원의 차원에서 한국은 동북아 국가들과 하나의 문화권을 이루고 경제적 호혜성을 유지하며 전략적 동반자가 된다고 할 때 구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2백만 명, 일본에 1백만 명 등 동북아 공동체 역내에서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고른 해외동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해외동포는 한국이나 일본보다는 동남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그나마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해외동포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해외동포를 활용하여 보다 다각적인 문화 교류와 확산을 유도할 수 있으며, 한국이 중심이 된 문화적 동질성과 지역적 정체성을 유도할 수 있다. 그동안 동북아 각국에 존재하고 있던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은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과도 같은 역사적 복잡성을 함축한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그 매듭을 그저 잘라내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은 비극을 초래해왔다(스탈린시기의 강제이주, 재일동포 복송, 문화혁명당시의 조선족 탄압 등). 그러나 앞으로는 관련국들 모두 이들이 문명충돌을 넘어 문명적 연대를 위한 매듭으로서 활약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유럽연합의 성공적 추진과정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여했던 모습과도 유사하다.

마. 한류를 통한 문화적 혼용

근래 들어 동아시아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한류(韓流) 열풍 또한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 문화의 중재자적 역할의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대중문화의 역내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앞으로 미래 세대의 문화를 하나로 엮어가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류 열풍은 우리가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대중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한류 열풍을 단순한 문화적 흐름의 한 가지 현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동북아 지역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다각적인 문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미 한국은 일본 문화의 유입에 대하여 단계적 개방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는 한류의 역풍으로 화풍(華風)과 일풍(日風)이 불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문화를 접목하여 동북아적 문화로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주역이자 산실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추진해 볼 만한 구체적 사업은 대중문화산업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대중문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동아시아 역내 영화와 대중음악과 같은 문예콘텐츠의 공동개발 및 제작, 유통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국가간 문화산업의 교류와 협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주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바. 사이버공간을 통한 포스트모던적 패러다이스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적 접근방법을 강화함에 있어서 한국이 지닐 수 있는 또 다른 강점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다. 문화교류의 차원에서 한국은 역내 교통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지리적·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한국이 문화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장점이기도 하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인터넷의 활용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과 중국을 능가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강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가 국경의 장벽 없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확산될 수 있는 무형의 공간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공동체의 인터넷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한국이 이러한 정보네

트위크의 중심지가 되려는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삼성경제연구소는 ‘디지털 칸’이라는 새로운 전략개념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용어는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위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특성을 잘 요약하고 있지만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위한 개념이 되기에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한 포스트모던적 패러다임을 건설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윈-윈(Win-Win)의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사. 동북아 공동의 문화사업 확대

동북아 문화재단과 같이 동북아 국가들의 각종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재단의 설립을 주도한다면,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한국이 교량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북아 국가들 간 혹은 동북아 지역외로 반출되어 있는 문화재들에 대한 공동관심을 반영하는 이탈 문화재 관련 DB사업과 더불어 상호 문화재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국가와 시민사회, 시민단체와 전문가집단 등을 중심으로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의 사회·문화적 교류를 확충함은 물론 한국의 장점을 살려 보다 광역적인 문화교류와 연대사업에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作为国家级项目的国际文化共同体： 以欧洲经验的含义为中心

金明燮

1. 文化不是手段，而是目的

文化与特定的时间和空间有着密切的关系。所有空间的文化都会变，但重要的是其文化与时间的关系。跟一个人的寿命相比，围绕他的文化过于迅速的变化时，会使人感觉到威胁。缩小物理空间的全球化，使文化层次的问题变得更加严重。而且这样的问题在适应全球化潮流的国家之间频繁出现，远远多于主导全球化的国家。从这种角度来看，为了扩大全球化中的机遇的同时尽量减少全球化的挑战，应该建立东北亚共同体。

2.3. 作为“遗产”的文化共同体与作为“工程”的文化共同体

文化共同体可分为作为遗产的文化共同体和作为工程的文化共同体。如果说前者基于共同的文化遗产的话，后者基于遗产的有效利用，而不是文化的总量。从欧洲的经验中，我们不难发现，欧洲共同体基于古代希腊的遗产和基督教遗产，但却由有效利用遗产的法国与德国所主导。目前，遗产的发祥地 - 希腊无法扮演住导作用，过去欧洲的盟主 - 英国也落后于德、法等国。

所谓作为工程的国际文化共同体来自超越一个人对国家的想

象的对地区的想象中。也就是说，从想象中的共同体中建立现实中的共同体。这样“建立某个地区”等于制造围绕着个人的许多“选择的漏子”中的一个。中世纪欧洲的个人一生下来就被许多层次的标准所围绕着。这就是支撑欧盟的“互补性”原则的渊源。

以东北亚为例，从遗产的总量来看，中国是颇有地位的。不仅如此，中国与希腊或梵蒂冈不同，在目前的力学关系上，占居强有力的地位，而且今后也大有可为。在这样的情况下，中国光执着于“作为遗产的文化共同体”，会令人想到中国实行探源工程、东北工程的目的在于重建中华秩序。为建立东北亚文化共同体，还是要懂得有效利用遗产。

4. 国际文化共同体的推行主体与战略

根据文化共同体与国家主权的关系区分国际(international)文化共同体与跨国(transnational)文化共同体，可以分为“沙拉碗模式(Salad Bowl-Type Model)”与“意式面条碗模式(Spaghetti Bowl-Type Model)”。意式面条碗模式相似于跨国模式，国际文化共同体相似于沙拉碗模式。特定宗教文化占优势的伊斯兰原教旨主义共同体与国际文化共同体不同，还是与跨国文化共同体相似。

意式面条碗模式是跟“蜘蛛网模式(Cobweb Model)”一样，市民社会和市场的各种网络像线团缠绕在一起，从中形成新的超越国家的实体的方式。与此相比，沙拉碗模式是尊重各国主权的同时，加强政府之间的合作，以实现世界的和平与繁荣的方式。但两种模式不一定是相抵触的。欧洲的“共主(pooled sovereignty)”模式证明，扩大独立的主权共处的空间的沙拉碗模式，能够为连接市民和企业的意式面

条碗模式的健康发展，奠定良好的基础。

为建立东北亚文化共同体，我们有必要区分以市民社会为主体的意式面条碗模式和沙拉碗模式，但最后还是同时要采用两种模式。在建立东北亚文化共同体的过程中，意式面条碗模式已经获得了诸多成果。这与主张超越国家主义的日本市民社会的宗旨相近。(1.5 Track) 根据意式面条碗模式，发展文化共同体时，我们可以采用如下行动指南。

- 先民后国 (First the civil, then the state)
- 先易后难 (First the easier, then the difficult)
- 先流后定 (First flow, then define)
- 先同后异 (First the same, then the different)
- 先东后西 (First the East, then the West). The East is not “the Rest.”

但是为了继续进行共同体建设事业，要再度重视沙拉碗模式。(1.5 Track) 欧洲的经验证明，设计、管理、保持、体现建立共同体的推动力时的国家的重要性。唯有国家才能使市民社会认识到，通过建立地区文化共同体，调节全球化的速度来提高市民生活水平，唯有国家才能说服市民社会达成一致。

- 志始制础 (Intention initiates, but Institution initializes)
- 民开国了 (The civil opens, but the state finish)
- 精起理结 (Emotion proposes, but reason concludes)
- 先低后高 (First the low level, then the high level)

5. 为建立东北亚共同体的韩国的定位和建议

5-1. 韩国的定位(South Korean Positioning)

- (1) 从战争到和平、从近代化到正常化、从封锁到整合演变的时代的桥梁
- (2) 海洋和大陆的连接点
- (3) 东北亚和东南亚的连接点

5-2. 韩国的建议(South Korean Proposal): 从先易后难、先低后高的观点

- (1) 通过所属国际组织扩大合作范围
例) 教科文组织(UNESCO)
- (2) 加强互相了解, 建立东北亚地区的共同教育机构
例) 意大利佛罗伦萨的EUI
- (3) 东北亚高等学术院
最新外来语汉译标准化工作
- (4) 韩国共同体的新的作用 (From Gordian Knot to Civilizational Node)
- (5) 通过“韩流”的文化上的交融。韩国的“华风”与“日风”之间的交汇。
- (6) 网络上的“后现代”的乐园- 超越“数码汗”的概念
- (7) 扩大东北亚共同的文化事业
建立东北亚文化财团、遗失文化财的公用数据库。

国家的プロジェクトとしての国際文化共同体：

欧州の経験の含蓄的意味を中心に

金明燮

1. 文化は手段ではなく、目的である

文化は特定の時間や空間と密接に結び付いている。どこでも文化は変わりつづけるが、重要なのは、その変化と時間の関係である。ある個人を取り巻く文化が自分の寿命に比べ、あまりにも早いスピードで変化をつづけると、一つの脅威として感じられるかもしれない。物理的な空間の人為的な圧縮を伴うグローバル化は、そのような文化レベルでの問題をさらに深めている。特に、この問題はグローバル化をリードしている国に比べ、それについ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国においてより深刻である。北東アジア共同体はグローバル化の機会を広げ、このようなグローバル化による脅威を最小限にくとどめるために行われる努力の一環である。

2.3. 遺産としての文化共同体と、プロジェクトとしての文化共同体

文化共同体の概念は遺産としての文化共同体とプロジェクトとしての文化共同体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前者は共通する文化遺産に基づいているが、後者は遺産の総量より遺産の活用に注目している。欧州が経験したことは、このような違いをもっともよく表している。欧州共同体は古代ギリシャの遺産とキリスト教の遺産に基づ

いているが、その遺産を積極的に活用したフランスとドイツが構築の舵取りをした。遺産の源泉地であるギリシャも、一時欧州の覇権を握っていたイギリスもリーダーにはなり得なかった。

プロジェクトとしての国際文化共同体は、ある個人の国家に対する想像を越え、より広い地域に対する想像によって作られる。要するに、創造の共同体から現実の共同体を作り出すということである。このような「地域づくり」は個人を取り巻く複数の「選択のじょうご」のうち一つを作る作業だと言える。中世の欧州において個人は誕生と共に多層の標準に囲まれていた。これが欧州連合を支えている補充性(subsidiarity)原理の淵源である。

北東アジアの立場で遺産の量という側面からいうと、中国の地位を否定することは難しい。さらに、ギリシャやバチカンと違って中国は現在の力関係においても圧倒的な地位を保っており、その将来に対しても一層の成長が見込まれている。このような状況の中で、遺産としての文化共同体にこだわるのは中国が進めている探源工程や東北工程を連想させ、世界における中和秩序(Sinocentric order)の復活のように映る可能性が高い。そのため、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に向けたプロジェクトとしての文化共同体は遺産の総量より遺産の活用に注目すべきである。

4. 国際的な文化共同体の推進主体と推進戦略

国際的な(international)文化共同体と超国的な(transnational)文化共同体を国家主権との関係に基づいて区別してみると、サラダ・モデル(Salad Bowl-Type Model)とスパゲッティ・モデル(Spaghetti

Bowl-Type Model)に単純化することができる。スパゲッティ・モデル(Spaghetti Bowl-Type Model)が超国的な(transnational)文化共同体に近いとすれば、国際的な(international)文化共同体はサラダ・モデル(Salad Bowl-Type)に近い。国家に対してある宗教文化の優位を前提としているイスラム根本主義の共同体を例にあげると、これは、国際的な文化共同体というよりは超国的な(transnational)文化共同体に近いと言える。

スパゲッティ・モデル(Spaghetti Bowl-Type Model)はクモの巣モデル(Cobweb Model)と同様、市民社会や市場の様々なネットワークが網のようになっており、新しい超国家的な実体を作り出す方式を意味する。これに比べ、サラダ・モデル(Salad Bowl-Type Model)は個別国家の主権という固形物を尊重しつつ、世界平和や繁栄に向けた政府間協力(intergovernmental cooperation)が強化される方式を意味する。しかし、スパゲッティ・モデル(Spaghetti Bowl-Type Model)とサラダ・モデル(Salad Bowl-Type Model)は必ずしも対立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むしろ欧州の共主(pooledsovereignty)からもわかるように、確固たる主権が共存できる空間を広げていくというサラダ・モデル(Salad Bowl-Type Model)は、結果として市民と企業をつなげるスパゲッティ・モデル(Spaghetti Bowl-Type Model)のより堅実な発展を可能にする土台となる。

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のためには市民社会が主体となるスパゲッティ・モデル(Spaghetti Bowl-Type Model)とサラダ・モデル(Salad Bowl-Type Model)を区別しつつも、両方が併存できるように併行して進めていく方が望ましい。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づくりにおいては、国家主義を越えようとする日本の市民社会の主張と類似してい

るスパゲッティ・モデル(Spaghetti Bowl-Type Model)がすでに多くの成果をあげている(1.5Track)。スパゲッティ・モデル(Spaghetti Bowl-Type Model)に基づいた発展に弾みをつけるために、下記のアクション・プランを正式に採用することも考えられる。

- 先民後國(First the civil, then the state)
- 先易後難(First the easier, then the difficult)
- 先流後定(First flow, then define)
- 先同後異(First the same, then the different)
- 先東後西(First the East, then the West)The East is not "the Rest."

しかし、ある程度時間が経ってから共同体構築事業を継続していく上ではサラダ・モデル(Salad Bowl-Type)が重要性を帯びてくるようになる(訳1.5 Track)。欧州の経験は共同体づくりに向けたモメンタムを設計、管理、継続、精巧化していくことにおいて国家がもつ重要性をうまく物語っている。つまり、国家が市民社会に「地域文化共同体の確立によるグローバル化のスピード調節が結局生活のレベルアップに貢献する」ということを説得し、契約に必要な合意を導き出す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

- 志始制礎(Intention initiates, but Institution initializes)
- 民開國了(The civil opens, but the state finish)
- 情起理結(Emotion proposes, but reason concludes)
- 先低後高(First the low level, then the high level)

5. 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に向けた韓国の位置づけと提案

5-1. 韓国の位置づけ(South Korean Positioning)

- (1) 戦争から平和へ、近代化から正常化へ、封鎖から統合へと変化していく時代における架け橋
- (2) 海洋と大陸の架け橋
- (3) 北東アジアと東南アジアの架け橋

5-2. 韓国の提案(South Korean Proposal)：先易後難、先低後高の観点から

- (1) 従来から加盟している国際機構を活用した協力帯域の拡大
例：UNESCO
- (2) 相互理解教育プログラムの強化と北東アジア共同教育機関の設立
例：イタリア・フィレンツェのEUI
- (3) 北東アジア高等学術院
例：西洋の新造語に対応する漢字語の標準化事業
- (4) Korean Diasporaの新たな役割(From Gordian Knot to Civilizational Node)
- (5) 韓流(韓国ブーム)を活用した文化的な混融。韓国内の華風や日風との還流
- (6) サイバー上でのポストモダンなバラダイス：「Digital Kahn」の概念を越えて
- (7) 北東アジア共同の文化事業を拡大
北東アジア文化財団、離脱文化財関連共同DB事業など

‘거리’ 개념을 논하며

자오팅양

1. 심리적 거리 (The mental distance)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를 언급할 때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기대하고 상상합니다. 그 상상 중의 ‘동북아시아’ 공동체는 아직 그 개념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동북아 주요 국가의 많은 정치가와 학자들이 가능성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해 구상하고 분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정부와 학자들이 가장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비교적 복잡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상상은 많게든 적게든, 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유럽연합(EU) 모델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상황을 보면 유럽연합 모델이 현대 정체모델에 한 획을 그었을 뿐 아니라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으로 하여금 미국과 동등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경제·문화 공동체로 거듭나게 했으며, 이는 세계구도를 바꾸어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동북아 공동체를 구상하고 형성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에게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 되었습니다.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같이 신 제국주의 모델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구도 속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모델이 참고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전략분석가 몇 분이 집필한 『신 전국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주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동북아 연맹의 절대우위와 호혜적인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 ‘동북아 공동화폐’가 탄생하게 되면 달러 혹은 유로화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관계는 주로 경제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를 분석의 근거로 삼는 모델은 현대 정치분석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델로는 중요한 문제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간과하기 쉬운 요인이 바로 문화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문화는 가장 중요한 정치문제이자 장기적이고 심도 깊은 정치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상의 조화로운 협력관계가 없는 공동체는 가장 기본적인 존재의 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리’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나 문화 전통으로 보나, 동북아 각국 간에는 뚜렷한 혈연관계와 수많은 유사점이 존재합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매우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심리적 거리는 사실상 매우 멀고 상호간의 깊은 이해와 충분한 협력, 그리고 친밀감(affinity)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렇듯 ‘보기에는 가깝지만 사실은 먼’ 거리의 패러독스(paradox of distance)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거리’의 문제입니다. 이는 거리를 이해할 때 공간적 또는 전통적 시각에서만 이해해서는 안되고, 욕망 또는 미래에 대한 상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화에 대한 공동의 욕망으로 인해, 각국은 이웃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현대화된 서구국가만을 학습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으로, 서구가 되고 싶은 동양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위 ‘숭배자(fans)’들 사이에는 공동의 숭배대상에 대해 논할 때만이 공동의 관심사(common concerns)가 형성됩니다. 모든 마음을 공동의 한 숭배대상에게만 집중하므로 숭배자들은 서로에게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따라서 숭배자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관심(reciprocal concerns)과 흥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로지 숭배의 대상이고, 소위 말하는 공동의 관심사는 단지 공동의 숭배대상인 ‘타자(the other)’에 대한 관심이므로, 그 밖

의 대상은 단지 ‘주변인(the else)’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타자’는 주목의 대상을 말합니다. 숭배의 대상이든 적대의 대상이든 주목을 받는 대상입니다. 반면 ‘주변인’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불특정한 존재를 말합니다. 무시해도 좋은 행인이나 낯선 사람 등을 가리킵니다. 이는 조금 과장된 구분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숭배자 공동체(a community of fans)’ 모델에 따르면, 동북아 각국은 서구(특히 미국)를 학습과 모방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서구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관계들 중 서구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의 길들이 모두 곧장 서구로 통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각국간의 관계는 우선 각자 서구에 도착한 뒤 선회해 돌아오는 우회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서구를 거친 뒤 맺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동북아 각국간의 실제 거리는 매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동북아 각국간의 거리는 그들 각자와 서구와의 거리보다 훨씬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지리적 거리에 걸맞은 심리적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친밀한 문화적, 심리적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코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2. 지식체계와 정체성의 위기(Knowledge system and the crisis of self identity)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화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국가들이 경제, 정치, 사회 발전과정 중 과도하게 서구화 되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아직 진정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듯합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식체계와 개념체계가 거의 모두 서구의 것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지식 또는 문화의 서구화는 우리가 철저히 서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구의 지식체계와 개념체계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

됩니다(사실 서구의 지식체계는 위대합니다). 그들의 지식·개념체계가 우리 동양의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지식체계에 오도되어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 잘못된 것은 마찬가지로 위대한 우리의 지식과 문화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체계를 사용하느냐는 경제와 정치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체계라는 것은 우리의 사상을 결정하고, 무엇을 생각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더 나아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문화, 한 국가가 스스로 사고할 능력이 없다면 표현의 위기(crisis of representation), 정체성의 위기(crisis of self identity)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당면한 정신적 문제입니다. 즉, 동북아의 주요 국가는 물질적 생산 대국이라고는 할 수는 있어도, 지식과 관념의 생산(knowledge/ideas producing) 대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발전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이 상태로는 모두가 세계 속의 모방자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아직 자신의 현대 국가 이념(ideas), 사회 이념, 완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와 세계체계에 대한 창조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흐름에 대처하기에 급급합니다. 글로벌화를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라 글로벌화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대화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즉, 아시아 주요 국가간의 대화는 대부분이 일시적인 이익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불과합니다. 이념적이거나 정신적인 협력은 없습니다. 이는 낮은 수준의 빈약한 대화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우리 사이의 머나먼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시아 주요 국가들에게 있어서 국가, 사회, 세계, 생활에 대한 이념의 설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

대한 이념 없이는 위대한 공동체가 탄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패권사상에 찬성하지 않고, EU의 이념이 아시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념설계를 위한 그들의 노력과 성과는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은 ‘사회시장(social market)’이나 ‘삶의 질(quality of life)’ 등과 같은 미국 문화와는 전혀 다른 유럽의 이념과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위대한 이념과 가치관은 공동체의 초석이 됩니다. 동북아가 자신만의 이념과 가치관을 발전시킬 수 없다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단지 미국문화의 일부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대화이론의 기본 문제 (An essential problem in theory of dialogue)

대화이론 혹은 커뮤니케이션이론(theory of dialogue/communication)은 오늘날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철학의 핵심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화는 거리를 초월해 합의와 협력에 이르게 하는 수단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서양철학의 대화이론은 ‘이성(minds)’의 틀 안에서 문제를 분석합니다. 따라서 이성적 여건이 잘 마련되면 상호이해가 가능해지고 공감대와 협력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예, Habermas). 하지만 이성의 틀에 의한 분석은 불완전합니다. 최소한 중국철학의 분석의 틀에서 볼 때, 대화의 어려움은 이성(minds) 간이 아닌 감성(hearts) 간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해(understanding)’가 공감대 형성과 협력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수용(acceptance)’이야말로 공감대 형성과 협력의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며, 이해했다고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주의 대화이론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의미 있는 대화이론을 정립하려면 ‘수용’

을 그 핵심으로 삼고 감성의 관계를 틀로 삼아 분석해야 합니다.

인식론(epistemology)은 현대 서양철학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모든 사물을 인식론의 개념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대화문제를 다룰 때에도 이성만을 고려해 ‘이해’라고 하는 인식론적 차원에 머물기 쉽습니다. 이에 중국 개념체계에 바탕을 둔 한 분석방법, 즉 ‘관계론(relationology)’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의 관계는 항상 감성(hearts)간의 관계를 말하며 마음(hearts)의 거리를 염두에 둡니다. 또 친소원근, 인의충신, 우애존경, 예의제도 등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호이해, 상호수용, 상호협력의 가능성은 관계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가 거리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화이론은 관계이론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중국철학의 관점에서는 대화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조화로운 관계가 좋은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서양철학은 대화, 협력, 공존 등 현 시대의 주요 문제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반면 중국철학은 이 문제에 있어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 지식공동시장 형성 (A common market of knowledge)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 만약 ‘동북아 공동체(Northern Asian Union)’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이는 경제 또는 정치상의 전략적 협력(strategic cooperation)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식공동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지식, 문화, 가치체계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즉 진정한 소프트 파워를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공동시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창의성과 생산성을 갖춘 내재적 순환체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에는 이러한 지식공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시아는 사상과 이념에 있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심지어 자신의 사회와 생활에 대한 구상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문화는 경제나 정치보다 더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지식공동시장이 동북아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공동시장’이라는 것은 각국이 서로의 사상, 학술, 문화적 성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식과 문화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지식과 문화를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論“距离”概念

赵汀阳

1. 心理距离 The mental distance

当说到“东亚”或者“东北亚”时，人们显然是在期望和想象一个共同体。这个想象中的“东北亚”共同体目前还是很不清楚的，尽管东北亚的主要国家都有不少政治家和学者在构思和分析这个或许可能的共同体，我们知道，其中韩国政府和学者的态度最为积极和乐观，而日本的态度则比较复杂。人们对东北亚共同体的想象或多或少有意无意地受到欧盟（EU）模式的启发，这一点并不奇怪，就目前的趋势来看，欧盟模式不仅是当代政治模式的一个重要创新，而且已经显示出它的力量和优势，它似乎非常可能使欧洲成为与美国具有同等实力的另一个政治、经济和文化的共同体，这样就改变了世界的格局。于是，对于亚洲来说，想象并且创造一个共同体，就似乎成为必要的了，因为，亚洲的国家没有足够的实力，因此不可能采取美国的新帝国模式，而亚洲国家试图在新的世界格局中成为重要的一个方面，就只能建立共同体，这样，欧洲模式就成为了一个参考物件。

中国有几位战略分析家出版了《新战国时代》一书¹，在其中主要从经济学角度分析了东北亚的联盟的巨大优势和互利关系，并且认为将来如果“东北亚元”出现，就将形成与美元和欧元能够抗衡的东北亚经济共同体。至于政治关系，他

1. 王建、李晓宁、乔良、王湘穗：《新战国时代》，新华出版社，2004，第三、六、八章

们认为主要将取决于经济关系。这种以经济为分析依据的模式是现代政治分析的一个主要模型，但是这一模型恐怕不能说明全部重要问题，其中一个容易被忽略的重要因素就是文化的作用。在今天，人们已经意识到，文化其实是个最大的政治问题，而且是个长期的、深层的政治问题，尤其是对于一个共同体来说，如果缺乏文化上的和谐和合作关系，那么就缺乏存在的基本结构。所以我们要讨论文化共同体的可能性。

这里出现一个关于“距离”的问题。无论从地理还是文化传统上看，东北亚各国都有着明显的亲缘关系，有着许多相似之处，可以说在地缘距离上是很近的。但是非常多的人都会感觉到，各国在心理距离上其实很远，互相缺乏深入的了解，也缺乏充分的合作，缺乏心理上的亲和力(affinity)。这种“看起来很近却又很远”的距离悖论(paradox of distance)，这就是“距离”问题。这意味着，在理解距离时，不能仅仅从空间和传统去理解，还必须从欲望和对未来的想象去理解。

不难看出，共同的现代化欲望使得各国看不见近邻而只看见作为学习物件的高度现代化的西方，这是典型的东方主义(Orientalism)，即东方试图变成西方。这种“崇拜者”(fans)之间的关系只有在讨论共同的崇拜物件时才有共同语言(common concerns)，当众心都献给一个共同的崇拜物件，众心就互相不感兴趣，因此，在崇拜者之间并没有真正的互相关心(reciprocal concerns)，崇拜者互相不感兴趣，因为他们关心的都是被崇拜的物件，所谓的共同语言仅仅是关于那个共同被崇拜的“他者”的(the Other)，而其他人只不过是些“旁人

(the else) ”。“他者”是被关注的物件，无论他是被崇拜的还是被敌视的，都是焦点；而“旁人”却是无所谓的随便什么人，是可以漠视的路人或者陌生人。这种区别也许有所夸张，但事实大概如此。按照这一“崇拜者共同体”模式 (a community of fans) ，东北亚各国既然都把西方（特别是美国）看作是学习和模仿的物件，都向西方看齐，于是所优先发展的关系就是与西方的关系，无论是经济、政治和文化，其交通道路都是直达西方。东北亚各国之间的关系就变成是一条先各自通达西方那里再折回来的弯路，这样一种绕道西方的关系就使得东北亚各国之间的实际距离变得非常遥远。可以说，东北亚各国之间的距离比它们各自与西方的距离更大。所以，在今天，我们的一个任务就是重新建立与地缘距离相配的心理距离，也就是重新建立亲密的文化和心理关系，否则不可能有文化共同体。

2. 知识关系和身份危机 Knowledge system and the crisis of self identity

现在有许多人对现代化进行了反省，于是批评东方国家在经济、政治和社会的发展中变得太西方了，但在我看来仍然没有深入到真正的问题。真正危险的是，我们现在所使用的知识体系和概念体系几乎是西方的，而知识或文化的西方化才是彻底的西方化。这不是说西方的知识体系和概念体系本身不好（事实上西方知识体系是伟大的），而是说，这样的知识/概念体系对于我们东方所要解决的问题来说不够贴切。这样我们很可能被那种并不非常适合我们的知识体系所误导，从而以错误的方式去解决错误的问题，更错误的是，还破坏了我们自己同样伟大的知识和文化。使用什么样的知识体系，这是一

个比经济和政治更为基本的问题，因为它将决定我们的思想观念，决定我们想什么和怎么想，进而决定做什么和怎么做。如果一种文化、一个国家不能自己思想，就是个废脑 (waste mind)，就会有“表述危机” (crisis of representation)，就会有“身份危机”(crisis of self identity)。而这正是我们的精神困境：东北亚的主要国家或许是物质生产的大国，但却不是知识生产和概念生产 (knowledge/ideas producing) 的大国。这样，无论如何发展，都只是世界中的某个模仿者。

如果我们足够诚实，就只能承认，我们这些亚洲重要国家还没有自己的现代国家理念 (ideas)、社会理念和完整的价值观，更没有对地区共同体和世界关系的创造性设想。目前亚洲国家只是在应付着世界而不是在指导世界，是被卷入在全球化运动中，而不是在操纵某种世界性的运动。因此，这也是我们之间的一个对话困境，我们这些亚洲重要国家之间的对话主要是关于暂时利益的策略合作，而并没有理念和精神上的合作，这样的对话是低层次的和贫乏的。这种贫乏的对话进一步表明了遥远的距离。对于亚洲重要国家来说，关于国家、社会、世界和生活的理念设计就是我们现在的大问题。如果没有伟大的理念，就不会有伟大的共同体。尽管我们不同意美国的霸权思想，尽管欧盟的理念不见得适合亚洲，但不得不羡慕它们在理念设计上的努力和成就。欧盟近年来积极发展和推销欧洲的理念和价值观，例如“社会市场” (social market) 和“生活质量” (quality of life) 等，非常不同于美国文化。伟大的理念和价值观是共同体之基础。如果东北亚不能发展自己的理念和价值观，就不可能是个共同体，就只不过是美国文化的一部分。

3. 对话理论的一个基本问题 An essential problem in theory of dialogue

对话或交往理论 (theory of dialogue/communication) 在今天已经成为政治学、社会学、人类学和哲学中的一个关键问题。一般来说, 对话被假定为能够超越距离从而达成共识和合作的途径。西方哲学的对话理论是在“理性心灵” (minds) 的框架中去分析问题的, 因此他相信, 如果给定了良好的理性条件, 那么就总能够最后达成互相理解, 于是就能够有共识和合作 (例如Habermas)。但是这个基于 minds 框架的分析是非行可疑的, 至少从中国哲学的分析框架去看, 对话的困难并不出现在 minds 之间, 而是在“情意心灵” (hearts) 之间。我们可以发现, “理解” (understanding) 并不是共识和合作的充分条件, “接受” (acceptance) 才是共识和合作的决定性基础, 而理解不能保证接受, 所以, 理性主义的对话理论没有解决任何问题。如果要建立一个有意义的对话理论, 就必须以“接受”为核心问题, 并且在 hearts 的关系框架中去分析。

知识论 (epistemology) 在现代西方哲学中占据核心地位, 处处以知识论概念去分析事物, 所以在思考对话问题时就只看到 mind, 就容易局限在“理解”这样的知识论层次上。这里我们可以考虑基于中国概念体系的一种分析方法, 可以称作“关系论” (relationology)。关系总是 hearts 之间的关系, 它考虑的是心 (hearts) 的距离, 所以分析的是亲疏远近, 仁义忠信, 友爱尊重, 礼仪制度, 如此等等。能不能互相理解、互相接受和互相合作, 要取决于关系的品质。可以说, 关系决定距离。对话理论应该被看作是关系理论的一个部分。从中国哲学去看, 不是对话创造了良好的关系, 相反, 是和谐的关系才产生良好

的对话。我想说，西方哲学不能给诸如“对话”、“合作”、“共存”等等当代重要问题提供理论基础，而中国哲学在这些问题上却有着巨大的意义。

4. 建立知识共同市场 A common market of knowledge

在具体实践上，我相信，如果要建立一个“东北亚共同体”(Northern Asian Union)，它不应该只是经济和政治上的战略合作(strategic cooperation)，而还应该是一个知识共同市场。一种知识、文化和价值体系要具有足够强大的影响力，要成为真正的“软力量(soft power)”，就必须拥有足够大的共同市场，这样才能够形成有创造性和生产力的内在循环系统。亚洲现在缺乏这样一个知识共同市场，所以亚洲在思想和理念方面在世界上没有足够的影响力，甚至对自身的社会和生活也没有足够的设计能力。知识和文化是比经济和政治更为长远的利益，我们不能不认真考虑。知识共同市场应该是东北亚共同体的基础。所谓“知识共同市场”，就是各国互相关心对方的思想学术和文化成就，在各国之间形成知识和文化的流通，使各国的知识和文化成为自己的重要参考。

「距離」の概念を論じる

趙汀陽

1. 心理的距離 The mental distance

「東アジア」あるいは「北東アジア」と言ったとき、人々はその一つの共同体を期待したり、想像したりすが、ここには距離的な問題がかかわっている。地理、文化、**伝統**の面で北東アジアの**国々**は明確な**親縁(血縁)**関係にあり、類似しているところが多いため**地縁**的に非常に近いと言える。しかし、心理的には多くの人々が互いの**国**に対して「遠い」と感じており、相互理解の乏しさや協力の不十分さのため、感情における親化力(affinity)は十分ではないと感じている。このように、一見近いように見えても**実**は遠い距離のパラドックスがまさに「距離の問題」である。これは、「距離」の理解は空間や**伝統**からではなく、必ず**欲望**や**将来**に対する想像から理解すべきであることを意味する。

アジア諸**国**は現代化という共通する欲望によって隣**国**のことを見逃させられ、**学習**の**対象**として高度の現代化を成し遂げた西洋だけに目を向けているとよく言われるが、これは典型的な東方主義(Orientalism)で、東洋の西洋への**変貌**を意味する。こういう**崇拜者**(fans)のような**関係**は共通する**崇拜**の**対象**を論ずる際にのみ、共通言語(common concerns)をもつ。大衆の心が全て共通する**崇拜**の**対象**に集中されると、互いへの**関心**は失われてしまう。つまり、**崇拜者**の間には互いへの**関心**を保つための言語(reciprocal concerns)がまったくなくなり、結局、共通言語も共通他人(the Other)に対するものになってしまう。東アジア諸**国**はその「**崇拜者**共同体モデル」

に基づいて西洋(特にアメリカ)を学習と模倣の対象だと位置付けており、アメリカ=西洋という論理に陥っている。とにかく西洋との関係を発展させて経済、政治、文化など全ての道を西洋の方に向かって開拓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ある。このように、北東アジア諸国の関係は、それぞれが先ず西洋と結ばれ、その後互いに對する関係へという順番になっている。西洋を通過して遠回りをするため、北東アジア諸国の互いへの距離はさらに広がってしまう。北東アジア諸国の距離は西洋との距離よりはるか遠い。そのため、今日における我々の果たすべき役割は地理的な距離に合わせて心理的な距離を見直すことであり、これがまさに親密な文化や心理関係を築くことになるだろう。

2. 知識システムとアイデンティティの危機 Knowledge system and the crisis of self-identity

多くの人々が「アジア諸国の経済、政治、文化、社会は西洋化しすぎ」と非難しているが、本当の問題の本質は見逃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私は思う。本当の問題は、現在我々が使っている知識システムや概念がほとんど西洋の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だ。もちろん、西方の知識システムや概念が悪いと言っているのではない。ただ、その知識システムや概念は我々アジアが解決しようとする問題には最適の方法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これは、我々に適していない知識システムに邪魔され、間違ったやり方、間違った解決方法を選んでしまいかねない。どのような知識システムを使うかというのは経済、政治よりもっと基本的な問題である。これは、知識シ

システムによって我々の思想観念が決められ、我々が何を考え、どのように思うのかも決められるためである。自分たちの文化や国のアイデンティティに基づく考え方ができなければ、「捨てられた頭脳(waste mind)」の世界や「表現の危機(crisis of representation)」に陥ってしまい、「アイデンティティの危機(crisis of self-identity)」にさらされるようになるだろう。これは主なアジア諸国における精神的な危機につながる。我々は多くのモノを作り出すことには成功したが、「知識や観念の生産(knowledge/ideas producing) 立国」とは言えない。このままだと、いくら発展しても世界の中に存在する模倣者にすぎない。

我々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完全に消滅していないならば、「アジア諸国は自ら現代国家の理念、社会の理念、完全な価値観を持っておらず、地域共同体や世界システムに対する創造的な構想を持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を認めるべきだ。今のアジア諸国は世界についていくことだけでも精一杯で、世界をリードしているとは言えない。グローバルの渦巻きに困惑しているだけで、うまく世界の舵取りをしているとは言えない。これもまた我々の対話問題から生じた結果であろう。アジア諸国の対話というのはほとんどが足先の利益に関する戦術的な協力に限られており、理念や精神的な協力は見られない。はっきり言って、レベルの低い、不十分な対話があるだけだ。この不十分な対話が互いへの距離がどれだけ遠いのか裏付けている。アジア諸国における最も大きな課題は国家、社会、世界、生活に関する理念作りである。偉大な理念がなければ、偉大な共同体もない。これができなければ、たとえ我々はアメリカの覇権主義に反対し、国連の理念がアジアに適していないと考えるとしても、彼らの努力や成果を羨んでいるしかないだろう。

3. 対話理論の基本問題 An essential problem in theory of dialogue

対話/コミュニケーション理論(theory of dialogue/communication)は今日の政治学、社会学、人類学、哲学における核心問題となっている。対話は「距離の壁を越えて共感をなし、協力へとつながる道」と認識されている。西洋哲学の対話理論は理性的なマインド(minds)という枠組みの中で問題を分析するため、納得できる理性的な条件さえ定められれば、相互理解に到達できると信じている。それゆえに共感と協力は存在するというのである(例えば、Habermas)。しかし、このマインドの枠組みに基づく分析には疑問が残る。中国哲学における分析の枠組みを例にあげると、対話のトラブルは理性的なマインドから生じるのではなく、情感的なマインド(hearts)から生じるものである。ここで理解(understanding)が共感や協力の十分条件ではないということがわかる。受容(acceptance)こそ、共感や協力における決定的な基礎で、理解が必ずしもその受容を保証するとは言えない。従って、理性主義の対話理論は何一つとして問題の解決策にはならない。意味のある対話理論を築きたいのであれば、受容を核心に据えるべきで、情感的なマインド(hearts)との関係も考慮した枠組みの中で分析すべきである。

知識論(epistemology)は現代西洋哲学において重要な位置をしめており、物事を分析する際にはどこでも知識論に基づいた概念を用いる。しかし、対話の問題を考える際、単なるマインドだけに目を向けると、「理解」という知識論レベルに限られてしまいかねない。ここで、中国の概念システムに基づいた一種の分析方法について考えてみよう。これを関係論(relationology)という。関係論は情感的

なマインドとの**関係**で、常に心理的な距離を考慮した親疎・遠近**関係**、仁義忠信、友愛尊敬、礼儀制度などに**対**する分析が行われる。相互理解、相互受容、相互協力ができているかどうかは**関係**の質に**関係**している。つまり、**関係**によって決められるというのである。**対話理論**は**関係理論**の一部と見なされる。中国哲学では**対話**によって良き**関係**が生まれるのではなく、逆に調和をなした**関係**によって良き**対話**が生まれるという。西洋哲学は**対話**、協力、共存など、今の重要な問題に理論的な基礎を提供していないが、中国哲学はこういう問題において注目すべき意義を持っていると、私は考える。

4. 知識共同市場の構築 A common market of knowledge

北東アジア共同体(Northern Asian Union)を構築する具体策としては、**経済**や政治上の**戦略**的な協力(strategic cooperation)にとどまるのではなく、必ず一つの知識共同市場が必要であると信じている。知識、文化、**価値**システムが協力的な影響力を持ち、**真**のソフトパワーを**発揮**できるようになるためには、十分に大きな共同市場が必要である。それがなければ、創造的で生産力のある**内**在循環システムは作れない。今のアジアにはそのような知識共同市場が不十分であるため、アジアの思想・理念が**強力**な影響力を**発揮**できずにいる。それどころか、自らの**社会**や生活に必要な設計能力にも欠けているのである。知識や文化は**経済**や政治より**長期的**な利益になる。これについて深く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北東アジア共同体は必ず知識共同市場から始めなければならない。

단절의 세기를 넘어
: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를 위한 覺書

다카하시 데즈야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는 가능한 것일까?

여기에 3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어느 것이든 정의자체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동북아시아에는 어느 나라,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 것일까? 문화란 어떠한 범위를 커버하는 개념인가? 공동체란 무엇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집단인가? 각각 논의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상은 1990년 이후 특히 ASEAN을 중심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ASEAN 플러스 3(한국, 중국, 일본)은 2001년 제 5차 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여 평화, 번영, 진보의 지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 2003년 12월에 개최된 일본·ASEAN 정상회담에서 동경 선언을 발표하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을 향한 동아시아 협력의 심화추진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은 이 흐름에 따라, 지난달 21일 국제연합 총회 연설에서 “나는 ASEAN 플러스 3의 기초 위에서, 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제창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첫째로 ASEAN=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점, 둘째로 경제관계중심이라는 점에서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와 다른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3월 25일 취임연설에서 “EU(유럽연합)와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아시아에도 구축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동북아시아에 ‘번영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동북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꿈이라고 하여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식발언한 의미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동북아시아 공동체와 유사한 구상은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씨, 강상중씨 등 지식인이 제창한 것이 있습니다. 와다씨의 구체적인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구상은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이나 일·북 공동선언

(평양선언 2002년)에 등장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이라는 표현에 주목한 것입니다. 와다씨의 구상의 특징은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건설에서 한국이나 조선이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하고 일본, 중국, 미국의 재외교포의 존재가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이 군사적 패권에 의해 수립되고 좌절한 대동아공영권의 오류에 대한 반성이 있고 이 점에서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와다씨와 나는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한 인식이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첨예하게 다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가 일본정부에 국가보상을 요구한 데 대해 와다씨는 이를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본정부에 의한 민간기금을 추진하였는데 나는 민간기금은 일본정부의 책임회피라고 생각하고 국가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러한 구상은 ‘문화’를 주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를 구상하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EU가 통화통합에 이어 최근에는 정치통치의 실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발전한 것은 유럽에는 기독교라는 문화적 공통성이 있어서 라던가 구 로마제국의 판도라는 공통의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북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성은 ‘한자’ 문화권이라던가 ‘유교’ 혹은 ‘불교’ 문화권이라는 논의가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한 구체적 文化事像에 문화공동체의 근거를 두는 것은 그리 잘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자문화권이라고 하여도 중국의 한자와 일본의 한자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달라졌고 한국에서는 한글이 주류이며 동북아시아라고 한다면 지리적·경제적으로 러시아 연해부까지를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곳을 한자문화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유교나 불교를 근거로 한다면 한국에 현재 많이 존재하고 일본에도 있는 기독교의 중요한 공동체가 배제되며 중국의 이슬람 교도도 배제되는 결과

를 가져옵니다. EU의 경우에도 기독교를 강조하면 유태인의 중요한 집단이 다시 차별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고 터키 가입문제를 구태여 들지 않아도 서구제국에 있는 이슬람계 이민사회를 자리매김할 수 없게 됩니다. 구 로마제국의 판도라고 하여도 이는 북구나 동구의 여러 나라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언가 특정한 구체적인 文化事像을 공동체의 기반에 두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배제되는 것이 있으므로, 저는 이러한 문화공동체의 구상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북조선이나 러시아 연해부를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에서 문화공동체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19세기 말에서 오늘에 이르는 현대사에서 발생한 동북아시아 각국간의 대립, 단절을 아직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본인인 나에게 있어 최대의 과제로 인식되는 것은 다음 2가지 점입니다. 먼저 첫째, 과거에 일본제국이 조선반도나 중국대륙을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나 군사점령을 하고 동북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전 후 일본이 그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아 현재 지금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사람들과 일본인 사이에 단절이 남아 있는 점, 두번째로 그 단절을 일본이 극복하지 않고 있는 채 현재, 다시 역사 교과서 및 역사 인식문제,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한국과 중국 사이에 단절이 만들어지고 있는 점, 이러한 단절을 만들어 내고 있는 일본의 국가와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극복해야만 일본인 측에서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점이 드러난 최근의 예를 들면, 지난 여름 아시안축구컵이 중국 重慶에서 벌어졌을 때 중국인 서포터가 일본팀의 플레이에 격하게 항의하거나 일본의 국기를 파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일본의 미디어에서는 중국의 ‘반일교육’이 가져온 ‘반일행동’으로 보도하고

이전부터 중국에 대해 공격적인 발언을 일삼았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 愼太郎) 도쿄도지사는 중국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항일수도’ 重慶에 일본군이 행한 폭격이 세계사상 최초의 적국수도에 대한 무차별 전략폭격이며 중국에서는 ‘히로시마 이전의 히로시마’로서 기억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일본인은 극히 소수입니다. 많은 일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중국인은 반일적이다’라는 인상만을 받고 ‘반일중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도 애국심교육을 시행하고 내셔널리즘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여러 번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가 있습니다.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의해 일·중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게 되는 등 일중, 한일관계에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운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는 내일 26일 이 문제에 대해 한국국회 내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위 ‘야스쿠니문제’란 A급 전범 합장문제, 조선반도나 대만출신의 전몰병사의 합장취소문제, 수상의 참배에 헌법상의 정교분리위반 혐의가 있는 문제 등 다면적이고 복잡한 문제이지만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 국내의 야스쿠니 참배 지지파 중에 야스쿠니참배나 A급 전범합장을 일본의 문화로서 정당화하려는 생각이 강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저명한 종교학자는 “일본문화는 죽은 자를 용서하는 문화이고 중국의 문화는 죽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문화이므로 A급 전범합장문제로 대립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10월 18일 일본의 국회에서 고이즈미 수상은 이웃나라가 죽은 자에 대한 위령의 방법이 “우리와 달라 좋지 않다”라고 하여 “그렇군요”라고 따라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며 ‘죽은 자에 대한 위령의 방법’은 문화의 차이의 문제이므로 외국으로부터의 비판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야스쿠니문제는 동북아시아의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을

생각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는 한자나 유교나 불교와 같은 특정한 文化事像, 더욱이 <겨울연가>(일본에서 인기있는 한국의 텔레비전드라마)와 같은 유행현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문화공동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EU연합은 먼저 석탄철강공동체로서 그리고 점차 경제통합에서 통화통합으로 진전되어 정치 통합을 추구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만 이러한 프로세스가 가능한 것은 수세기에 걸쳐 전쟁을 계속해온 프랑스와 독일이 20세기에 2회에 걸친 대전쟁을 통해 서로 전쟁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무의미함을 확신한 것, 특히 독일이 나치스 독일시대의 침략정책이나 학살행위의 오류를 인정하고 프랑스와 다른 국가간에 현대사에 관한 역사인식에서 일정한 공유를 가능하게 한 것이 그 근원에 있는 것입니다. 독일이 나치스시대의 잘못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는 EU통합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북아시아에서는 야스쿠니문제나 역사교과서문제에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근현대사에 대해 여전히 국가나 민족간의 역사인식에 단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단절은 제국일본의 아시아침략에 의해 만들어지고 전후 일본의 무책임에 의해 오늘날까지 잔존하는 것인데 6·25전쟁이나 중국의 내전, 문화대혁명에 유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절을 넘어 화해와 상호신뢰에 이르지 않고는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는 탄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가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은 구체적인 文化事像을 공유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현대사상에 생긴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를 비롯한 고통에 넘치는 사건들의 기억을 가능한 한 공유하고, 가능한 한 공통의 역사인식을 형성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야스쿠니문제나 역사교과서문제를 비롯한 대소 여러 가지의 근현대사의 평가에 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역사를 알고 가능한 한 공통의 역사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대화를 거듭함에 따라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작은 시도로 최근 일본에서 저는 친구인 재일조선인¹ 작가 서경식씨와 함께 계간 종합잡지 『前夜』를 창간하였습니다. 또한 잡지 발행뿐 아니라 시민 세미나와 필드워크, 여러 가지 문화이벤트의 실시를 통해 국경을 넘는 ‘비판적 문화’를 위한 연대를 만들어가려고 NPO법인(특정비영리활동법인) 『前夜』를 창설하였습니다. 이 『前夜』는 1) 문화와 정치, 사상과 예술 등의 영역에서 전쟁, 차별,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거점이 되려고 한다, 2) 세계에 열린 동아시아에 軸足を 둔다, 3) 피억압자의 경험을 현재 뿐아니라 역사적인 시점으로 검증한다. 이는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구상에 작은 돌 하나를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잡지 『前夜』의 창간호는 ‘문화와 저항’을 특집으로 하였으며 ‘대테러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저항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둘러싸고 잭·테리다를 비롯한 세계의 지식인의 논고를 수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송연옥 씨 “식민주의와 페미니즘 근현대를 살아가는 조선의 여성들”, 고마고매(駒込武)씨의 “대만 씨를 둘러싼 여행”, 기미즈카(君塚仁彦) 씨의 “동북아시아의 역사박물관”이라는 연재, 서경식 씨와 新城郁夫 씨와의 대화 “오키나와에서 헌법을 생각한다” 등, 동북아시아의 근현대사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논고가 다수 게재되어 있습니다. 소위 ‘코리언 디어스포라’의 한 사람으로 현재 서울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미희 나탈리 르모완느(조미희, 김별)씨의 인터뷰도 실려 있습니다. 창간호의 롱인터뷰

¹ 서경식씨가 특별한 의미에서 「재일 조선인」이라는 호칭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겨레21』제 528호(2004년 9월 21일)에 게재된 서경식씨의 인터뷰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에서는 제가 일본의 식민지주의와 야스쿠니신양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고 ‘반식민지주의’ 특집이 실린 제 2호의 롱인터뷰에서는 한국의 역사가 한홍구씨의 “고통의 연대를 추구하는 역사학”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뷰가 게재됩니다.

저는 NPO 「전야」의 대표이사임과 동시에 잡지 『前夜』의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편집위원(이는 NPO 전야의 이사와 중복됩니다) 8인 중 3인이 재일조선인인 것도 일본의 잡지로서는 이례적입니다. 이와 같은 체제아래 『前夜』는 동북아시아에서 사람들의 단절을 만들어 낸 역사를 검증하고 현재의 단절을 넘어 이 지역에서 진정한 평화와 풍요한 문화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힘을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为东北亚共同体的照会

高桥哲哉

能建立东北亚共同体吗？

这儿有三个关键词。“东北亚”、“文化”、“共同体”这三个单词都是很难下定义的。所谓的东北亚的范围是什么？到底包括哪些国家？文化涉及到哪儿？共同体是共享什么、共享到什么程度的集体呢？这个话题讨论起来没有止境。

自1990年以来，东盟提倡东亚共同体的构想。东盟和韩中日(10+3)在2001年召开的第5届会议上发表了一份“面向东亚共同体 - 和平、繁荣、进步的地区”的报告。接着在2003年12月召开的日本与东盟首脑会谈中发表“东京宣言”并决定“为建立东亚共同体加强东亚合作”。日本首相小泉也上月21日在联合国大会上说过，“我建议东盟与韩中日的基礎上，建立东亚共同体”。

但是因为东盟包括东南亚国家，而且以经济关系为主，与东北亚共同体有所不同。韩国总统卢武铉2003年2月25日在就任仪式上说，“在东北亚地区建立跟欧盟一样的和平秩序我，这就是我的梦想。非在东北亚地区建设‘繁荣的共同体’、‘和平的共同体’不可。”虽说东北亚共同体的构想只不过是“梦想”，但一个国家的总统在正式场合上作了发言，具有很大的意义。

日本也有人提出过东北亚共同体那样的建议，如和田椿树先生和姜尚中先生等。和田春树先生提出的“东北亚共同的家”的构想是基于卢武

铨总统的发言和北日共同宣言中出现的“东北亚地区”这个字眼的。和田先生的构想的特点是在建设东北亚共同的家时，韩国和北韩要拥有主导权，在日本、美国、中国的侨胞要发挥出重要的作用。和田先生对过去日本利用军事力量试图建设大东亚共同圈儿遭到失败的经验感到悔悟，这点是我们值得高度评价的。但和田先生和我在第二大战的认识上大不相同。日本军慰安妇奶奶向日本政府要求赔偿时，和田先生认为很难做得到，因此他主张建立政府主导的民间基金会，但我一贯主张政府应该向他们提供赔偿，因为建立民间基金等于日本政府回避自己的责任。

但不管怎么样，这样的构想不是文化的问题。那到底能不能建立东北亚文化共同体？

欧盟统一货币后，能够向统一政治的方向发展，都利于基督教文化和罗马帝国文化的背景。关于此，日本方面认为东北亚文化的共同点是“汉字”、“儒教”、“佛教”等文化。但是我认为把文化共同体的根据看作是一个特定的文化事象是不太合适的。

虽说东北亚地区属于汉字文化圈，但中日两国使用的汉字有相当大的区别，而且韩国还是以韩语为主。所谓的东北亚在地里和政治上包括俄罗斯沿海州地区，但沿海州不属于汉字文化圈子之内。如果把“儒教”或“佛教”当作文化共同体的根据，不能不排除韩日等国的基督教共同体，也有可能排除中国的伊斯兰教徒。以欧盟为例，如果强调基督教的重要性，会产生对重要的犹太人共同体的歧视。在土耳其加入欧盟的问题上，也会使许多伊斯兰教国家在西欧地区难以立足。而且把根据放在古代罗马帝国文化，东欧国家也会排除在外。

总之，要把特定的文化事象当作共同体的根据，必然会出现被遭到排除的对象，因此我无法同意这样的文化共同体的构想。在包括韩中日三国、北韩、俄罗斯沿海州等地的东北亚地区建立文化共同体，我们有一个不可忽视的事情。那就是从19世纪到现在一直存在的，在现代立时当中出现的对立和断绝问题。尤其是，对我这个日本人来讲，最大的课题就是两点。首先，过去日本侵略韩半岛和中国大陆，给这些地区带来了严重的危害，但战败后日本却没有担负起应尽得责任，日本人和东北亚地区的人民之间仍然存在着很大的隔阂。其次，日本在没有解决上述问题的情况下，日本篡改历史教科书，参拜靖国神社，韩中两国与日本之间再度产生新的矛盾。只有日本社会和国家持有批判的态度去克服这些问题，才能对建立东北亚文化共同体做出贡献。

这些问题反映在去年在中国举行亚洲杯足球赛上。亚洲杯时中国的球迷对日本球队报有不满，损坏日本国旗。当时，日本的舆论媒体报道，这是中国进行的“反日教育”带来的“反日行为”导致的。一直对中国持有攻击性态度的东京都知事石原慎太郎借此机会，做出了侮辱中国人的发言。过去日本军队进行狂轰滥炸，使抗日战争的首都重庆变成原子弹轰炸后的广岛一样的废墟。但只有极少数的日本人知道这样的事情。大多数的日本人都不知道，只是认为中国人的反日情绪很高，为应付这样的反日情绪，日本也要进行爱国教育，也要搞国家主义。

纵观这件事的背景，我们就会发现日本首相小泉参拜靖国神社成了重要的原因。因为小泉首相强行参拜靖国神社，中日首脑会谈遭到搁浅，给日韩、日中之间的关系留下了很大的阴影。我将在26日韩国国会召开的听证会上发表讲话。我谈的问题涉及面广，如甲级战犯合葬问题、取

消韩半岛和台湾的阵亡将士的合葬问题、首相参拜神社是否违反宪法规定的政教分开原则等。但从东北亚文化共同体的角度来看，日本国内支持参拜靖国神社，合葬甲级战犯的人占多数。他们认为这是一种日本的文化。日本的一个著宗教学家竟主张，“日本宽恕死者”，但“中国不宽恕死者”，因此在甲级战犯问题上发生矛盾是很自然的。小泉首相在10月18日在日本国会上说，“如果邻国认为我国的慰灵方式与自国不同而觉得不好，我国难道应该毫无疑问地接受邻国的意见吗？”。小泉首相说，对死者的慰灵方式的不同只不过是文化上的不同，外国无权指责，日本夜不会接受外国的批评。我认为“靖国神社参拜问题”在建立东北亚文化共同体的问题上极为重要的，也是其试金石。

也就是说，上述的几点证明，“汉字”、“儒教”、“佛教”等特定的文化事象，尤其是“冬天的恋歌(现在在日本很受欢迎的韩国电视剧)”等流行的现象，都不足以建立东北亚地区的文化共同体。欧盟刚开始时个“煤炭钢铁共同体”，然后逐渐发展到经济整合和货币整合，进而发展到政治整合的阶段。这个进程能够顺利完成的理由是：德法两国清醒的认识到，在数世纪的战争和两次大战中互相残杀是没有任何意义的。特别是德国承认纳粹的侵略政策和大屠杀的错误的，然后和法国等国家拥有共同的历史认识。这就是欧盟发展历程中最重要的一点。如果德国不承认纳粹时代的错误，就不会有今天的欧盟。但在东北亚地区在“靖国神社参拜问题”或“篡改历史教科书”问题上，仍然存在着对亚洲近现代历史的认识上的矛盾和断绝。这样的断绝来自日本帝国主义的亚洲侵略和日本不负责任的态度，也是来自6·25韩战、中国的内战以及文化大革命。如果不能克服这样的断绝，建立相互信赖，就无法建立东北亚文化共同体。

我认为东北亚文化共同体不是通过拥有特定的文化事象，而是通过拥有近现代历史上出现的痛苦的回忆，形成共同的历史认识才能建立的。为解决“靖国神社参拜”、“篡改历史教科书”等近现代历史反思上的问题，我们应该认识历史，为形成共同的历史认识，应该通过对话谋求建立“东北亚文化共同体”的方案。

为此，我最近与“在日朝鲜人”¹作家徐庆植先生创刊了季刊综合杂志《前夜》。另外，为形成超越国界的“批判的文化”集团，我们通过举行市民之间的研讨会、现场工作和各种文化活动等的努力，建立了NPO法人(非盈利组织)《前夜》。建立《前夜》的宗旨是：1)成为在文化、政治、思想、艺术等领域上，反对战争、歧视、殖民主义的人的根据地。2)扎根在“面向世界的东亚地区”。3)用现代和历史的角度的去验证被压迫的人的经验。我相信这能够为东北亚文化共同体的建立助一臂之力。季刊杂志《前夜》的创刊号的主题是“文化和抵抗”。创刊号上刊登了很多论文：如宋莲玉的《殖民主义和男女平等主义 - 近现代朝鲜的女性》，驹达武的《台湾旅游记》、俊塚仁彦的连载《东北亚历史博物馆》、徐庆植和新城郁夫的对话《在冲绳想宪法》等，批判的验证东北亚地区的很多文章。通过这些文章谋求在反恐战争时代，怎样形成一个“抵抗”的文化的的方法。作为韩国共同体的成员，目前在汉城工作的艺术家的采访内容也刊登在本期杂志中。创刊号的采访栏目中，我说明可日本殖民主义和靖国信仰的关系。在反殖民主义特刊 - 第二期中，可以看到题为“追求痛苦和连带的历史学”的韩洪九先生的采访内容。

¹⁾ 徐庆植先生特意使用“在日朝鲜人”的称呼，请见韩国期刊《韩民族21》第528期(2004年9月21日)刊登的采访内容。

我是NPO《前夜》的理事，也是《前夜》杂志的编辑。8位编辑中的3位是“在日朝鲜人”，这对日本杂志来说是非常罕见的。我们通过这样的人选，验证东北亚地区人民之间出现断绝的历史，克服目前的断绝状态，为在东北亚地区实现和平繁荣的文化交流尽力而为。

「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をめぐる覚書

高橋哲哉

「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は、可能でしょうか？

ここには三つのキーワードがあります。「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です。これらはいずれも、定義することからして難しい概念です。

「北東アジア」に含まれるのは、いくつの国、どのような範囲なのでしょう？ 「文化」とは、どのような範囲をカバーする概念なのか？ 「共同体」とは、何を、どの程度、共有する集団なのか？ それぞれについて議論し始めれば、際限のないことになります。

「東アジア共同体」の構想ならば、1990年代以降、とくにASEANを中心に語られてきました。ASEANプラス3(韓国、中国、日本)は2001年の第5回会議で「東アジア共同体をめざして—平和、繁栄、進歩の地域」と題した報告書を発表。2003年12月に行なわれた日本・ASEAN首脳会議の「東京宣言」でも、「東アジア共同体」の構築に向けた東アジア協力の深化推進が確認されています。日本の小泉首相はこの流れを踏まえて、先月21日に行なった国連総会演説でも、「私はASEANプラス3の基礎の上に立って、私は“東アジア共同体”構想を提唱しています」と述べました。

しかし、これらはそもそも、第一にASEAN=東南アジア諸国を含んでいる点、第二に経済関係中心である点で、「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とは異なります。

盧武鉉大統領は2003年2月25日の就任演説で、「EU(欧州連合)のような平和と共生の秩序が北東アジアにも構築されることが私の夢だ。北東アジアに“繁栄の共同体”、“平和の共同体”をつくらねばならない」と述べました。「北東アジア共同体」構想が「夢」とし

てであっても、一国の首相から公式に語られた意味は大きいでしょう。

日本では、「北東アジア共同体」に類する構想は、和田春樹氏、姜尚中氏など、知識人のものしかありません。より具体的な和田氏の「北東アジア共同の家」の構想は、盧武鉉大統領の構想や、日朝共同宣言(平壤宣言、2002年)に登場する「北東アジア地域」という表現に注目したものです。和田氏の構想の特徴は、「北東アジア共同の家」建設のイニシアティブを取るのは韓国・朝鮮であり、さらに、日・中・米の在外コリアンの存在が大きな役割を果たすと考える点です。そこには、かつて日本が軍事的覇権によって打ちたてようとして挫折した「大東亜共栄圏」の誤りに対する反省があり、その点は評価に値します。ただし、和田氏と私とは、日本の戦争責任に関する認識が若干、しかしある意味では鋭く異なります。元日本軍「慰安婦」のハルモニたちが求めてきた日本政府による国家補償に関して、和田氏はこれを無理だとして、日本政府がつくった民間基金を推進しましたが、私は民間基金は日本政府の責任逃れだとして、国家補償すべきと一貫して主張してきたのです。

さて、しかし、いずれにせよ、これらの構想はとくに「文化」を問題に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北東アジアの「文化」の共同体を構想することは、はたして可能なのでしょうか？

EUが通貨統合から最近では政治統合の実現をめざすまでに発展したのは、ヨーロッパにはキリスト教という文化的共通性があったからだとか、旧ローマ帝国の版図に共通の文化的背景があるからだ、などと言われます。これに対して、北東アジアの文化的共通性は「漢字」文化圏であるとか、「儒教」あるいは「仏教」文化圏であるとかに求められる、という議論が日本にもあります。しかし、こうした特定の具体的な文化事象に「文化共同体」の根拠を置く考え方は、うまくいかないでしょう。漢字文化圏といっても、中国の漢字と日本の漢字はいまや相当異なっていますし、韓国ではハングルが主と

なっていますし、「北東アジア」というなら地理的・経済的にはロシア沿海部も含まれるべきですが、これは漢字文化圏とはまったく言えません。「儒教」や「仏教」を根拠にすると、韓国に多く日本にも存在するキリスト教の重要な共同体が排除されてしまいますし、中国のイスラム教徒も排除されてしまいます。EUの場合も、キリスト教を強調すればユダヤ人の重要な集団が再び差別されかねませんし、トルコ加入問題を持ち出すまでもなく、西欧諸国に多く存在するイスラム系移民社会をうまく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ません。旧ローマ帝国の版図といえば、北欧や東欧の諸国は初めから排除されてしまうのです。

要するに、何か特定の具体的な文化事象を「共同体」の基盤に置こうとすると、必ず、そこから排除されるものが出てきてしまいますので、私はそのような「文化共同体」の構想には賛成できないのです。そして、いずれにせよ、韓国、中国、日本、そして当然、北朝鮮やロシア沿海部なども含めての北東アジアで、何か「文化共同体」のようなものを構想するためには、どうしても無視できない問題があります。それはいうまでもなく、19世紀末から今日に至る現代史のなかで生じた、北東アジア各国間の対立、断絶がまだ乗り越えられていないという問題です。とくに日本人である私にとって最大の課題として意識されるのは、次の二点です。第一に、かつて帝国日本が朝鮮半島や中国大陸に侵略し、植民地支配や軍事占領を行なって、北東アジア地域の人々に大きな被害をもたらしたにもかかわらず、敗戦後の日本がその責任を明確に取ってこなかったために、現在もなお、北東アジア地域の人々と日本人のあいだに断絶を残していること。第二に、その断絶を日本が克服し得ないままに、現在また新たに、歴史教科書ないし歴史認識問題、首相の靖国神社参拝問題などによって、韓国や中国とのあいだに断絶を作り出していること。これらの断絶を作り出した、そして今日も作り出してい

る日本の**国家と社会**の問題点を批判的に克服することこそ、日本人の側から「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に寄与するための**第一歩**になるはずです。

この問題点があらわになった最近の例としては、今年の夏のサッカー・アジアカップで中国・重慶で行なわれた**数試合**で、中国人サポーターが日本チームのプレーに激しいブーイングを行なったり、日本の**国旗**を破ったりした事件があります。この事件を日本のほとんどのメディアでは、中国の「反日**教育**」がもたらした「反日行動」として報道し、以前から中国**対して攻撃的な発言**を繰り返してきた石原**慎太郎**都知事は、「中国人」を侮蔑する**発言**を行ないました。「抗日首都」重慶に日本軍が行なった重慶爆撃が世界史上初の敵国首都**対する無差別戦略爆撃**であり、地元や中国で「広島以前の広島」として被害の記憶が語られていることを知る日本人は、きわめて稀です。そこで多くの日本人は、この事件から「中国人は反日的だ」という印象だけを受け取り、「反日中国の脅威**対抗**するために日本も愛国心教育を進め、ナショナリズムを高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るようになるわけです。

この事件の背景にはもう一つ、小泉純一郎首相の度重なる靖国神社**参拝**もありました。小泉首相の靖国神社**参拝**によって、中日首脳会談が開かれなくなるなど、中日、韓日の**関係**に大きな影が落ちていることは御承知の通りです。私は明日26日、この問題について韓国国会内で開かれる公聴会に出席し、意見を述べる予定です。いわゆる「靖国問題」は、A級戦犯合祀問題、朝鮮半島や台湾の出身の戦没兵士の合祀取り下げ問題、首相の**参拝**に憲法上の政教分離違反の疑いがある問題など、多面的で複雑な問題ですが、「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という**観点**からいえば、日本国内の靖国**参拝**支持派のなかに、靖国**参拝**やA級戦犯合祀を日本の「文化」として正当化しようとする考えが強いことに注目する必要があります。日本のある著名な

宗教学者は、「日本文化は死者を許す文化であり、中国の文化は死者を許さない文化だから、A級戦犯合祀で対立するのは避けられない」と主張します。今年18日、日本の国会の議論の中で小泉首相も、「よその国が、死者に対する慰霊の仕方に『自分たちの考えと違うからよろしくない』と言って、『はい、そうですか』と従っていいのか」と述べて、「死者に対する慰霊の仕方」という文化の違いの問題だから、外国からの批判は受け入れないとの立場をあらためて表明しました。「靖国問題」は、「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の可能性を考えると、決定的に重要な問題であり、試金石だと思います。

これらの例は、「漢字」や「儒教」や「仏教」といった特定の文化事象、ましてや「冬のソナタ」(日本で大人気を博している韓国のテレビ・ドラマ)といった流行現象などによっては、北東アジアの「文化」共同体は成立すべくもない、ということを示していると思います。EU統合は、はじめ「石炭鉄鋼共同体」として、そして次第に経済統合から通貨統合へと進み、政治統合を追求する段階に来ているのですが、このようなプロセスが可能になったのも、元はといえば、数世紀にわたって戦争を繰り返してきたフランスとドイツが、二十世紀の二回の大戦争を経て、互いに戦争を繰り返すことの無意味さを確信したこと、とりわけドイツがナチス・ドイツ時代の侵略政策や虐殺行為の誤りを求め、フランスやその他の国との間で現代史に関する歴史認識の一定の共有を可能にしたこと、などによるものでした。ドイツがナチス時代の誤りを明確に認め、反省することなしには、EU統合は決してありえませんでした。ところが北東アジアでは、「靖国問題」や「歴史教科書問題」に典型的に見られるように、近現代史に関して、依然として国家や民族間の歴史認識に断絶が存在します。この断絶の多くは、帝国日本のアジア侵略によって作られ、戦後日本の無責任によって今日まで残ったものですが、朝鮮戦争や中国の内戦、文化大革命などに由来するものもあります。これ

らの断絶を乗り越え、和解と相互信頼に至ることなくして、「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はありえないでしょう。

そこで私は、こう考えます。「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がもし可能であるとすれば、それは何らかの具体的文化事象を共有することによってではなく、近現代史上に生じた戦争や植民地支配をはじめとする苦痛に満ちた出来事の記憶を可能な限り共有し、可能な限り共通の歴史認識を形成しようとする努力を通じてでしかありえない、と。「靖国問題」や「歴史教科書問題」をはじめとして、大小さまざまな近現代史の評価に関わる諸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お互いの歴史を知り、可能なかぎり共通の歴史認識を形成するための対話を重ねていくことを通じてこそ、「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の可能性が開け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のです。

そのためのささやかな試みとして、最近日本で、私は友人である「在日朝鮮人」¹⁾の作家、徐京植氏らと共に、季刊総合雑誌『前夜』を創刊しました。また雑誌発行だけでなく、市民セミナーやフィールドワーク、さまざまな文化イベントの実施によって、国境を超えた「批判的文化」のための連帯を作り出していこうと、NPO法人(特定非営利活動法人)「前夜」を創設しました。この「前夜」は、1)文化と政治、思想と芸術などの領域で、戦争・差別・植民地主義に反対する人々の拠点であろうとする、2)「世界」に開かれた「東アジア」に軸足を置く、3)被抑圧者たちの経験を現在のみならず歴史的な視点をもって検証する、などの点で、「北東アジア文化共同体」の構想にもささやかな一石を投じ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雑誌『前夜』の創刊号は、「文化と抵抗」という特集で、「対テロ戦争」と呼ばれる新たな戦争の時代に「抵抗の文化」をいかに作り出

¹⁾ 徐京植氏らがあえて特別の意味を込めて「在日朝鮮人」という呼称を使う理由については、「ハンギョレ21」第528号(2004年9月21日)に掲載された徐京植氏へのインタビューを参照してください。

すかをめぐって、ジャック・デリダを始めとする世界の知識人の論考を収めています。それと同時に、宋連玉氏「植民地主義とフェミニズム—近現代を生きた朝鮮の女性たち」を始めとして、駒込武氏の「台湾氏をめぐる旅」、君塚仁彦氏の「東北アジアの歴史博物館」といった連載、徐京植氏と新城郁夫氏の対話「沖縄で憲法を考える」など、北東アジアの近現代史を批判的に検証する論考が多数掲載されています。いわゆる「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の一人で、現在ソウルで活動するアーティスト、ミヒ・ナタリー・ルモワヌ（チョウ・ミヒ、キム・ビョル）氏のインタビューもあります。創刊号のロング・インタビューでは、私が日本の植民地主義と靖国信仰との関係を語っていますが、「反植民地主義」を特集する第2号のロング・インタビューでは、韓国の歴史家、韓洪九氏の「苦痛の連帯をめざす歴史学」と題した語りが掲載されます。

私はNPO「前夜」の代表理事であると同時に、雑誌『前夜』の編集委員の一人ですが、

編集委員(これはNPO「前夜」の理事と重なっています)8人の中の3人が「在日朝鮮人」の方であるのも、日本の雑誌としてはきわめて異例です。このような体制のもと、「前夜」は、北東アジアにおいて人々の断絶を作り出してきた歴史を検証し、現在の断絶を乗り越えて、この地域で真の平和と豊穡な文化の交流が可能となるよう、力を尽くしていこうとしているのです。

제 2 회의

토 론

1. 조 한 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동북아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구체적 방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독일이 EU의 중심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과거사 즉 전쟁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 이상의 철저한 자기반성의 바탕 위에 건강한 시민사회를 독일이 형성하였고, 이에 다른 유럽국가의 의심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전쟁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사회는 자기반성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성찰적 노력도 부족하였다. 한국의 경우 친미와 반공, 반미의 친북이라는 문화체계와 더불어 과거보다 자유로운 남북교류에도 불구하고 남남갈등이 존재하는 이러한 체제 하에서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추진하고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거대한 13억 인구가 움직이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은 친구로서의 중국, 즉 중국의 국력의 신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신뢰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3국의 근대화 발전의 역사는 서로 상호 중첩되어 있으며 동북아 전체의 근대화 과정이 왜곡되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근

대화의 정상성을 회복하려는 성찰적인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가 건강한 시민사회의 형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우리 스스로 냉전사회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건강한 시민사회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동북아의 왜곡된 근대화에 산물로서 나타난 국가가 성찰적 노력의 중심에 설 수 있을까? 시민사회가 국가를 성찰하게 만드는 시도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주체로서 시민사회를 장악시키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즉 철저한 자기반성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동북아 문화공동체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동북아의 지식인들이 관용과 공존의 문화를 추구하는 지식인 연대, 지식 운동을 통해서 문화공동체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 실현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아울러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신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관 심의관)

동북아 지역의 협력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늦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의 공동체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희망이나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문화공동체는 기초가 있어야 한다. 동북아 3개국이 2000년 동안 밀접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찬란한 문화를 형성해왔으나 이러한 관계에서 그동안 여러 유쾌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젊은이들의 교류 부족, 일본 국기 불태우기 등을 말씀했는데, 문화공동체 형성에는 이와 같은 많은 문제가 있고 이를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북아라고 하면 최소한 몽고와 북한을 포함해야 하고, 러시아의 극동지역도 포함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아직 정치적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공동체 형성은 우리 모두에

게 이익이 될 것이며 이를 형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국가 간의 정치적 신뢰가 없다면 공동체 형성은 불가능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간에 문화교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과 북한의 문화교류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북한 방문이 있긴 했지만, 북한에서 8년 동안 근무하며 느낀 것은 북한은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다. 한·일 관계의 경우도 2002월드컵을 공동개최하고 지도자들의 상호 방문이 있고 나서 일본문화와의 교류가 활발해졌다고 생각한다. 즉 정치적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문화교류가 필요하고 이것은 정치적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중관계에 있어서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정치 관계는 12년 간에 3단계로 발전되었다. 최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그 다음 이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켰으며 그 후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하여 한 단계 높은 관계로 발전시켰다. 한·중 간의 문화교류는 사실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했지만 많은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고 있는 외국학생은 한국학생이며 중국인들은 한국의 많은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공동체는 서로 간에 알게 모르게 형성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중 간 관계는 문제가 없을 듯하다.

단지, 고구려 문제의 경우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역사와 현실을 구분하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관의 한국방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다. 양국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협력을 이룬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문제의 경우도 중국의 13억 인구는 왜 일본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문화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이미 국제적인 문제로 동북아 전체가 주시하고 있다.

끝으로 공동체가 하루 빨리 형성되었으면 한다. 첫째는 3국 간의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고 두 번째는 현재 민감한 부분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구려 문제는 이미 합의하였고, 일본의 신사참배 문제, 북한의 핵문제 등을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겠다. 문화교류를 통해서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를 바란다. 구체적인 문화, 교육 담당자들께서 국민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국민들의 심리적인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3. 오사와 츠토무 (주한 일본문화원장)

김명섭 교수의 논문 중 특히 서양에 대응하는 한자에 관한 내용은 실제로 어떤 것이 가능한지 3국 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오팅양 교수의 논문 중에서 심리적 거리의 문제 부분을 보면 유럽 사람들은 동양의 문화나 생김새가 비슷하여 동양 사람들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동양 사람들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멀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는 개인적으로 각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 사람과 교류, 대화를 해야만이 그 나라를 알 수 있고,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신뢰가 부족한 것에 동의하며 해결 방법은 교류이다. 특히 청소년 교류가 매우 중요하며, 교류를 해야만 비로소 상대방의 견해를 알 수 있다.

몇 가지 문의를 하자면, 지식공동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김명섭 교수께서 언급하셨지만, 한자의 교류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다. 그리고 다카하시 선생님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공동 역사인식이라는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중국과 한국의 역사인식이 일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 국내에서 아직도 공통적인 역사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국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카하시 선생께서 3국의 일치된 것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모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유행하는 ‘겨울연가’와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표면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한국을 주시하게 하고 있다. NHK 한국어 교재가 작년보다 3배나 팔리고 있고 한국으로부터 가장 먼 일본 중년여성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교류하고 상대방의 나라를 보다 이해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학자들께서 일부 역사적인 인식이 일치된 책을 낸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합의를 얻어 낸 것은 아니다. 먼 것 같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교류를 넓혀감으로써 상대방이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단순한 TV 드라마, 표면적인 현상일지 모르지만 ‘겨울연가’가 가져다준 영향은 경시할 수 없는 것이다. 역사라는 것은 하나의 산이라고 생각한다. 산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사상,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사실로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산을 본다 할지라도 동서남북 각 방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각도가 다르듯이 한국을 바라볼 때, 견해가 모두 다를 것이다. 저는 하나의 인식으로 역사적인 사상, 사실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일본 국가의 견해가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산으로 치자면 지도를 만들고 객관적으로 어떤 것인지 즉 높이, 표고 등을 기록하듯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가야 한다. 또 하나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이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동쪽에서 보는 것도 있고 남쪽, 서쪽에서 보는 것도 있듯이 입장이 다른 상대방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과정에서 상대국·상대방에 대한 인식, 문화, 언어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의 ‘겨울연가’는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 사회자: 김우상

‘겨울연가’의 영향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한국의 드라마를 일본 30~40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변했다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즉 수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 답변: 김명섭

600만 유대인 학살, 2,000만의 소련의 희생과 같은 일을 저질렀던 국가가 미래를 위한 지역 공동체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국가를 우회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탈국사적, 탈영토적, 포스트 모던(post modern)적 공동체를 대안으로 추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나는 프랑스 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럽인으로 죽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강력한 국가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추진했을 때 이에 회답한 것이 단지 독일의 시민사회였다면 유럽연합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독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화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프로젝트라는 것이 단순히 일본의 시민사회와 연결된다고 하면 그것은 완결된 것이 아니다. 한국의 반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것이고, 동아시아를 살아갈 것이며 또한 세계를 살아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사만을 가르치고 있다. “프랑스사는 없다. 유럽사가 있을 뿐이다. 나아가서 유럽사는 없다. 세계사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과 같이 예를 들어 소르본 대학이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 당시 프랑스 편에서 지 않고 영국의 편에 섰다는 사실은 국사의 테두리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서 역사를 가르치는 노력이 우리도 필요하다고 본다.

■ 답변: 자오팅양

방금 오사와 선생께서 지식공동 시장에 대한 구체적 건의에 모두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국의 학술기관을 성립하여 각국의 학자들과 함께 문제를 토론한다면 상호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서양은 그다지 우수하지 않은 학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연구 성과물을 번역하는 과정이 있다. 우리 3개국 간에도 그와 같은 연구 성과물에 대한 번역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학자들로 이루어진 학술기구 성립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답변: 다카하시 데츠야

일본 국내에서 일치된 견해가 없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 생각하고 역사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 점에서 개별 국가, 시민사회 내에서 스스로 역할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여기서 역사에 대한 인식론을 전개할 여유는 없지만 역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일치하지는 않지만 현대사에 대한 개별 국가와 민족 간의 깊은 상처, 고통을 남긴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의 공유가 EU에서는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EU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동북아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겨울연가’를 비롯하여 여러 문화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축구의 교류를 함에 있어서도 얼마전 중국에서의 사건이 있었지요? 좀더 끈기 있게 협력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현경 외	공저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종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현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곤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여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 ~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 · 최의철 · 김병로 외	공저	8,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 최의철 ·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8,5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윤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철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외	저	4,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이현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서재진, 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흠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 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